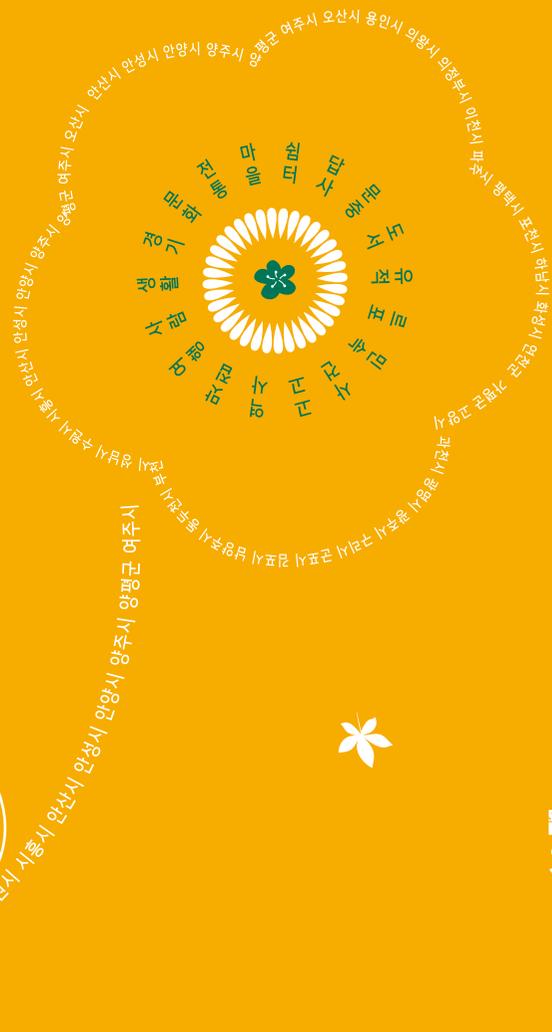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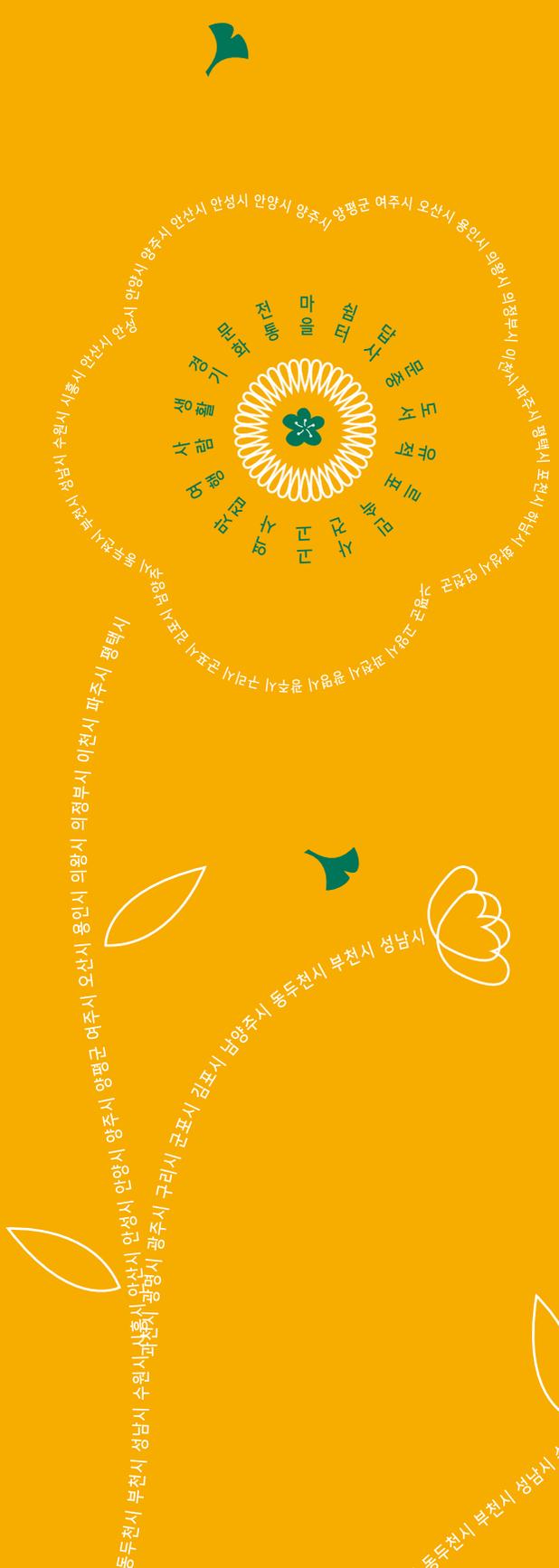


경기함 덩쟁

Vol. 10

2021 가을호



경기학광장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하는 계간지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자 합니다.

경기학광장

Vol. 10 2021 가을호



하남 미사리 경정공원 _ 사진출처 | 경기관광 포털사이트(ggtour.or.kr)

경기함광집

Vol. 09 2021 여름호



Village & Community

전통마을

신도심의 전원마을인 수원 호매실동 자목마을

08

작은모임

“외우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린이 논어교실

12

People & life

구술기록

고양 백정현 어르신께 듣는 6.25 전쟁 이야기

18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김형구 관장

24

인물탐방

경계 없는 유통의 달인,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 대표

28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발행인 강현
기획 이지훈, 김성태
발행일 2021년 10월 30일
주소 (우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전화 031-231-8578
홈페이지 www.ggcf.or.kr
E-mail kst9796@hanmail.net
편집디자인 디자인이즈

본 계간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rip & healing

휴, 여행

신구와 생사의 경계에서, 고양 행주산성과 서오릉 34

산행

한남정맥 답사기, 용인 아차지 고개에서 버들치 고개까지 40

명소답사

죽음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부활', 망우리공원 45

경기도의 맛

안양 비산누룽지백숙 51

Information & news

고고소식

경기도의 신석기인, 해양시대를 열다 - 김포 신안리 유적 56

사건과 성찰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길 <하> 62

경기학 책 소개

『도시의 두 얼굴 -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66

Research & study

공간과 역사

포천 '남북교역 시장'의 추억과 '새 희망 마을' 70

문화유적

여주 신륵사와 해인사 고려대장경 74

기전의 고문서

이천시 고백리 풍천임씨 고문서 78

경기도의 민속

조선의 신이 된 관우, 경기도 분원리에서도 좌정했었다 82

학예연구사 코너

풍악산에 건주던 경승, 한탄강(漢灘江) 88

의왕시, 의왕향토사료관 그리고 소장 문화재 96

논고

경기도 지역 석탑의 전개과정과 조영 특징 100

VILLAGE & COMMUNITY

전통마을

신도심의 전원마을인 수원 호매실동 자목마을

작은모임

“외우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린이 논어교실

신도심의 전원마을인 수원 호매실동 자목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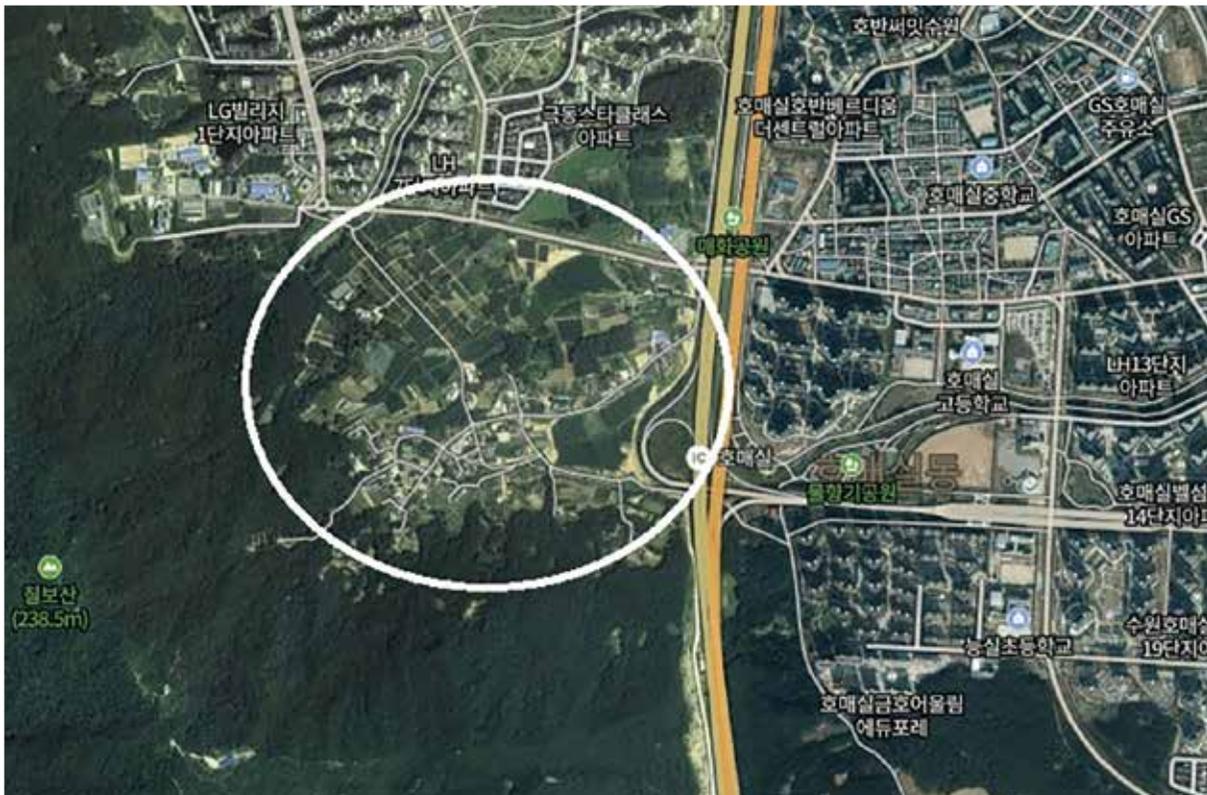
김준기

수원시 권선구의 호매실동은 호매실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들어서며 서수원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하지만 호매실동의 북서쪽 칠보산 기슭에 있는 자목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제외되었고, 아직은 마을의 대다수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신도심 속에 남아 있는 전원마을. 이것이 자목마을의 현재 모습이지만, 이러한 전원 풍경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미지수이다. 마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목마을 역시 상당한 변화의 바람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보산 자락에 깃든 전원마을

자목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칠보산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를 이루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이다. 정상이 해발 239m에 불과하고 산세도 그리 험한 편이 아니어서 남녀노소 힘들지 않게 등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평일에도 끊이지 않는다.

여덟 가지 보물이 산중 곳곳에 숨어 있어서 원래 팔보산이었으나 언젠가 이 고장에 살던 장사꾼이 그 중 하나인 금닭을 찾아서 가져간 후 칠보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에 운이



호매실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자목마을(네이버지도)

좋으면 나머지 일곱 보물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등산객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금닭을 발견하였던 장사꾼도 도둑에게 쫓기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 전설의 결말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칠보산이라는 명칭도 일제강점기에 붙여진 것이고 원래는 돌과 모래밖에 없었던 민동산이어서 진악산이라 불리던 산이라 하는데, 고지도에 이 산이 증악산(甕岳山), 치악산(稚岳山)이라 표기된 것을 보면 이 산의 이름이 본디 진악산이었음은 확연하다.

자목마을은 이 칠보산의 동편 자락인 낮은 구릉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자목이라는 명칭도 마을을 감싸고 있는 칠보산의 지형이 자라목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자목마을은 전통 풍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안정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산자락에 감싸여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지형일뿐더러 마을 앞에는 칠보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태인 것이다. 더욱이 그리 넓지는 않지만 비옥한 논과 밭이 있기에 풍족하지는 않다 해도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그러나 호매실동의 다른 자연마을인 원호매실이나 두암, 노림마을처럼 평야지대에 드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마을 도처에 흩어져 있으며, 마을은 입구에서 산 쪽으로 한참을 들어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마을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자가용이 없으면 마을에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대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마을 입지 조건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직 자목마을을 한적한 농촌마을로 남아 있게 한 동인이라고 판단된다.

집성촌의 성격이 남아 있는 자목마을

자목마을은 밀양박씨 충헌공파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성촌이었다. 입향조는 ‘박필의(1574~1644)’라는 분인데, 어떤 계기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던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가 임란과 병란 등의 전란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난리를 피하여 이곳으로 왔을 가능성이 짙다. 이는 숨어 살면서도 자급자족은 할 수 있는 마을의 입지 조건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1930년대 수원군에는 밀양박씨가 10개의 마을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¹ 밀양박씨는 수원 지역에서 상당히 번영했던 가문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56가구가 호매실리에 거주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자목마을이야말로 수원 지역 밀양박씨의 온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6.25 동안 이후로도 자목마을은 전형적인 집성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을의 호수가 70여 호가 되었을 때는 입씨 2가구, 최씨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밀양박씨였다.

물론 현재 자목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밀양박씨는 20여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목마을에 집성촌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밀양박씨는 자목마을에 종종 소유의 선영과 전답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밀양박씨의 선산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 곳은 입향조인 박필의와 후손 60여 명의 묘가 밀집된 곳인데, 원래 금곡동 엘지빌리지 맞은편에 선산이 있었지만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바람에 자목마을 뒤 칠보산 자락에 새롭게 조성되었다. 다른 한 곳은 자목마을의 내태리(內泰里)라 불리는 곳으로 박필의의 부인 전주이씨의 묘소를 비롯하여 30여 기의 무덤이 있다. 종종 소유의 논은 600평과 330평 규모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 배미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도지로 매년 시제를 지내는 비용을 충당



칠보산에 감싸인 자목마을. 왼쪽으로 뻗어있는 산줄기가 자라목과 유사하다고 한다.

¹ 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233~267쪽.

당시 수원군에는 117개의 동족마을이 있었는데, 전주이씨가 16개 마을로 가장 많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고, 밀양박씨는 10개의 마을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한다. 시제는 박필의의 기일인 음력 10월 7일에 지내며 부인 전주이씨의 시제도 같은 날 지낸다.

서수원의 근현대 역사가 아로새겨진 자목마을

자목마을에는 마을의 근현대 역사를 기억하는 토박이들이 다수 남아 있다. 그들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민족수탈, 광복 이후의 혼란상, 한국동란의 참담한 상황, 새마을운동 때의 농촌 재건 등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도시 개발 이전 서수원의 전형적인 자연마을의 변천 과정을 담고 있어서 나름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현재 ‘뜰안채’라는 식당이 있는 곳에는 일제강점기까지 서당이 있었다. 박수춘(1875-1943)이란 분이 자신의 집에 서당을 차리고 훈장을 모셔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였던 것이다. 학동은 소학교 입학 전인 7-8세의 아이들로 3년 정도 한문교육을 받았는데, 자목마을뿐만 아니라 금곡리에서도 학동들이 모여들어 25-30명에 달하였다. 서당으로 쓰인 방과 마루는 12평쯤 되었고, 훈장에 대한 보수는 쌀이나 잡곡으로 지불하였다. 이 서당은 조선 후기 마을 서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곡창지대는 수탈의 중심지였다. 1930년 수여선과 1937년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여 이 지역에서 집산된 양곡을 인천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해갔던 것이다. 더욱이 1940년대 들어 공출제도가 전면 실시되면서 식량 이외에 수 십종에 달하는 물품들을 강제로 공출하였다. 자목마을의 어르신들은 공출 물품 중 하나인 가마니의 양을 맞추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가마니를 짜야 했던 일을 기억한다. 또한 징병이나 징용에 끌려갔던 주민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전쟁 중에는 자목마을에 인민군이 15명 정도 상주하며 의용군을 강제 모집했었다. 또한 서울 등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를 닦치는 대로 땀기 때문에 칠보산이 민동산이 되어 버렸다.

이런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농촌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새마을사업에 적극 동참하였던 주민들이 지금도 마을에 살고 있다. 마을길을 확장, 포장하고, 벽돌을 찍어 마을회관도 지었다. 지붕개량 사업으로 초가집이 사라진 것도 이 시기였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자목마을

1990년대에 들어와 농산품의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농촌 사회는 큰 타격을 맞게 된다. 자목마을의 토박이들이 점차 외지로 떠나고, 외지인이 이주해온 시기도 이즈음이었다. 한동안 농촌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작은 시골마을은 이후 전원주택이 들어서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자목마을은 호사스러운 전원주택 사이사이에 1970-80년대에 지어진 허름한 집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원주택에는 외지인들이 살고, 허름한 집에는 토박이들이 산다고 생각하면 십중팔구는 맞을 터이다. 자목마을은 마을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실속 없는 농경지이 나마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고, 주택의 증개축도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니 토박이들은 농사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고, 자식들이 장성하여 분가시키려 해도 집을 새로 지을 땅을 마을에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토박이들이 집을 팔고 외지로 떠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 그 집을 헐고 전원주택을 짓곤 하였던 것이다.



전원주택 사이사이에 자리한 토박이 주민의 집

자목마을에 새로 이주한 외지인들은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한 경우와 전문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칠보산 자락에 위치한 자목마을은 풍광도 좋고 공기도 맑아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데 제격인 동시에 칠보산 등반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마을 뒤쪽 산자락에는 용화사²⁾라는 절도 있기

2 용화사는 용주사의 말사로 1920년 이응인 스님이 길가에 서있는 미륵석불에다 주민들이 불공을 드리는 것을 보고 초막같은 건물을 세우면서 창건된 절이다. 현재 용화사의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미륵석불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조선시대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러가는 도중에 말 위에서 졸다가 깨보니 불상 앞이었다. 이에 선비는 자신을 과거에 급제하게 해주면 절을 짓겠다고 발원하였고, 과거에 합격하자 불상이 있던 곳에 절을 지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용화사는 조선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일제강점기에 중건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자목마을 입구에 세워진 음식·문화거리 표지판

때문에 평일에도 탐방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더욱이 호매실동이나 금곡동 등 인근 신도시 지역에 젊은 층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식문화가 보편화되었고, 이왕이면 외식 겸 나들이를 겸할 수 있는 자목마을을 자주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자목마을에는 ‘칠보산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신도시 전원마을의 다양한 양상

현재의 자목마을은 한 마디로 전원마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채로운 마을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주변에 펼쳐진 전답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을 보면 농촌마을이 분명하고, 유럽식 별장과 흡사한 주택들이 도처에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전원주택단지이기도 하다. 또한 음식문화거리에는 전문음식점들이 즐비하고, 토박이 아주머니들이 길가나 집 앞에 좌판을 벌여놓고 이곳을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팔고 있는 모습은 유원지를 연상케 한다.

글 김준기

동국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원에서 구비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민속학연구소에 근무하며 마을조사를 다니면서 살아있는 민속현상과 그 안에 담겨있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연구하고 있다.



집 앞에 좌판을 차리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모습

이렇듯 자목마을은 개발지구에서 배제되면서 신도시 속의 전원마을로 남게 되었지만, 나름대로의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의 다양한 마을 양상들이 상충되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목마을은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지이자 유원지 마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밀양박씨가 세거했던 서수원의 대표적 농촌마을이라는 자목마을의 역사와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우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린이 논어교실

김예옥

어른들은 배워도 말짱 헛것

나이 들어 한문이나 동양고전을 배우는 사람들은 새삼 없던 호기심이 발동한 게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 한문에 노출되었던 경우가 많다. 내 주변만 봐도 그렇다. 전라도 순창이 고향인 한 친구는 60여 년 전 그 지역에서 이름난 유학자를 집에 모셔다 전통한학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할아버지 밑에서 한문을 배워 지금도 그때 외운 실력을 과시한다. 6년 전 우리 고전교실에서 사서를 가르쳤던 성태용 선생님 역시 고등학교 때 이미 한시를 수백 편 외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걸 보면 특정한 것에 대한 관심도 기질 때문이라기보다 경험과 습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두 형제. 세현(앞쪽)이와 유현이.

고전강좌를 해주신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른들은 배워도 말짱 헛것이야. 한문에서 문리(文理)가 나려면 무조건 외워야 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애들은 문장을 완벽하게 스캔한다니까!”

아이들을 가르쳐보라는 주문은 나에게 일종의 과제처럼 다가왔다. 그래서 마음을 내어 고전교실을 열어보기로 했다.

배움, 공자님에게 묻다

2015년 가을, 나는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며칠을 궁리해 전단지를 만들었다. 아이들에게는 흔히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논어》를 하기로 했다. 물론 초등학생들에게는 걸맞지 않는 책이다. 그럼에도 내가 그 책을 고집한 이유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배움을 좋아했던 공자님을 불러내어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다. 또한 공자와 제자의 관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문제를 논해보고,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공자가 실제로는 대단히 인간적인 인물이었음을 확인시키고 싶었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공자님 말씀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돼!’라고 말하는 대신 공자님의 말씀을 따라가다보면 그야말로 젓어들 것이 아닌가?

전단지에 내건 강의 제목은 “배움, 공자님에게 묻다”였다. 그러면서 세 가지 주제를 내걸었는데 그 첫째가 ‘배움의 즐거움 - 다 알고 태어났음에도 평생 배움을 그치지 않았다’였고 둘째가 ‘인간적인 매력 - 음악에 빠져 세 달간 고기 맛을 잊었다’, 셋째가 ‘그 제자들 - 용감한 자로, 덕성의 안연, 외교의 자공’이었다.

전단지 수십 장을 주변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돌렸다. 아파트의 게시판에 일주일간 게시했고, 연립주택에는 우편함에 한 장씩 꽂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띄엄띄엄 붙였다.

한번은 내가 드나드는 커피숍에 전단지 좀 붙여달라고 갔더니 그 주인은 “과연 이런 걸 누가 들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특목고 간다고 벌써 분주한 시절인데 한가하게 고전강좌나 들겠어요? 저니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하는 것이었다. 또 생협에 가서 아이들을 좀 보내달라며 전단지를 내밀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말문을 닫았다. 그들의 묘한 침묵 역시 이 강좌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정말 아이들이 안 올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두 형제가 나타났다. 교실 근처 빌라에 살고있는 아이들이었다. 전단지를 보자마자 강의의를 들겠다고 엄마한테 매달렸단다. 3학년, 1학년짜리였다. 큰아이가 세현이었고, 작은 아이는 유현이었다. 거기에 세현의 친구이자 역시 3학년인 시현이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세하는 바람에 갑자기 세 명이 되었다.

아이들이 한문을 배우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은 무조건 외워라

수업이 시작되었다. 일주일에 한 차례씩 3달간 강의하기로 했다.

나는 《논어》의 출발이자 배움의 기쁨을 표현한 유명한 문장,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칠필에 한글로 그 문장을 쓰고 밑에 한문 토를 달아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했다. 설명을 곁들이면서 내가 선창을 하면 아이들이 따라 읽었다. 10회에서 20회를 반복하고는 이제 각자 문장을 외우는 시간을 주었다. 나는 “공자님이 얼마나 배움을 중시하셨으면 첫 구절에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겠니? 대단하지? 지금 당장 너희들이 내용을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크면 저절로 알게 돼. 지금은 무조건 외우는 게 중요해. 동양고전은 이 책을 보려면 저 책을 알아야 하고 저 책을 보려면 이 책을 알아야 한단다. 그래서 외워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 특히 《논어》는 공자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란다. 공자를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논어》를 보면 알 수 있어.”

3학년과 1학년은 큰 차이가 있었다. 확실히 3학년짜리가 이해력이 높았다. 그러나 외우는 것에는 1학년짜리가 뛰어났다. 1학년짜리는 정말 문장을 단숨에 스캔해서는 눈 감고 줄줄 외워댔다. 당연히 나의 시선은 1학년짜리한테 쏠렸다. “와! 유현이 너 정말 잘 외운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형들은 이미 머리가 굳었나 봐. 학년이 올라갈수록 머리가 복잡해져 안 외워지는



논어 수업시간

것 같다. 너는 정말 좋은 때 한문을 배우는 거야.” 유현이는 이때부터 더 신이 났다.

그렇게 첫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두 형제는 수업이 좋았으며 환호성을 질렀단다.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두 번째 수업에서는 “나는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섰고, 마흔에 미혹되지 않았으며 쉰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에 귀가 순해졌으며 일흔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라는 문장을 외우게 했다. “공자님이 자신의 일생을 짧게 회고하는 문장인데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겠지? 이 문장은 너무 유명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 공자님은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셨대. 너희들은 어머니? 아직 열다섯도 안 됐는데, 다른 것 쪼ت혀두고 한문을 배우겠다고 찾아왔으니 너희들은 남다른 친구들이야.” 나는 아이들을 고무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논어》에서 내가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자발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자극하지 않으면 계발할 수 없고, 의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다. 탁자의 한 모서리를 지적하여 다른 세 모서리를 알지 못하면 나 또한 말하지 않는다.(不憤不啓 不悱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이 문장을 아이들에게 안 가르칠 도리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일이든 자기 맘에 우러나서 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어. 공자님도 똑같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 하나를 들어 알려 주시고는 나머지를 알아내라는 거야.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입을 다무셨어. 너희들도 알 듯 알 듯한데 입속에서만 웅얼거려질 때가

있지?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럴 때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라야 배울 자격이 있다는 거지.”

아이들도 이런 구절들을 신나게 외워댔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문장을 줄줄 외워댔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된 거야. 충분하지!’

세 아이

수업을 듣는 세 아이는 《논어》 속의 세 제자와 유사한 데가 있었다. 공자 문하에는 모두 3천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는 10명[孔門十哲]이다. 그중에서 또 세 사람을 꼽으라면 안연(顏淵), 자로(子路), 자공(子貢)이 될 것이다. 안연은 덕성이 있어 공자가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다. 공자는 때로 안연에게 경외의 눈길을 주기도 하는데 “자기의 화를 남에게 옮기지 않고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다(不遷怒不貳過)”는 구절이 대표적이다. 애공(哀公)이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했느냐고 묻자 공자는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어 배움을 좋아했는데 불행히 단명했다.”고 답하는데 제자의 죽음에 쓸쓸해하는 공자의 모습이 큰 여운을 남기는 구절이다.

공자가 인간적으로 가장 의지했던 제자는 자로였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황하를 건너며 죽음을 후회하지 않는 자와는 일을 도모할 수 없다”며 자로의 무모함을 비판하지만 공자는 그런 제자가 있어 든든하기 그지없었다. 자로

가 공자의 제자가 된 이후 공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것만 봐도 호위무사로서의 자로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나 전통 유학에서는 내내 자로를 하대하는 풍조가 있었다. 그것은 송나라 때 주희가 쓴 주석서《論語集註》 등에 자로를 흠대하는 평가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문인 관료 중심의 조선시대에는 무사를 차별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로는 공자 제자 중 제1의 자리에 놓아야 마땅하다.

자공은 머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 외교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사업가여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스승이 주유천하를 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뒷받침한 것도 자공이었다. 《논어》 전체를 통틀어 학문적 성취가 가장 뛰어난 인물도 자공이다. 세상을 떠난 스승의 묘소에서 6년간의 시묘살이를 하기도 했고, 누가 공자를 비난하면 탁월한 비유를 들어 스승을 옹호하는데 이런 부분(제19 자장(子張)편)은 《논어》 전체를 통틀어 압권이다. “담장에 비유하면, 나(자공)의 담장은 어깨 높이이므로 집안의 좋은 것을 엿볼 수 있다. 선생님의 담장은 높이가 몇 길이나 되므로,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각종 방들의 다채롭고 풍요함을 볼 수 없다.”거나 “공자를 헐뜯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현명함은 언덕과 같아서 넘을 수 있지만, 공자는 해와 달 같아서 넘을 수 없다. 사람이 비록 스스로 꿩고자 하더라도 해와 달에 무슨 손상을 주겠는가?” 같은 구절이 그것이다.

안연, 자로, 자공을 설명하면서 나는 세현이에게는 안연을, 시현이에게는 자로를, 유현이에게는 자공을 연결시켜 설명



어린이 논어교실에 참여했던 아이들. 유현이, 세현이, 시현이, 은수(왼쪽부터)

했다. “세현이는 공부를 좋아하고 조용하니까 안연의 이미지와 통하지? 활력있고 용감한 시현이는 당연히 자로를 연상시키고,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는 유현이는 자공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이런 비유는 부작용을 낳았다. 시현이가 자로를 닮았다는 말이 부모의 귀에 들어갔는지 시현이는 그후 진행된 한 문수업에 빠지려 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무모한 성격의 자로와 연결시킨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다.

유현이

무사히 수업이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유현이가 울면서 교실에 나타났다. “《논어》를 더 배우고 싶어요… 훌쩍 훌쩍…” 나는 당황했다. “가르쳐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엄마가 좋아할까? 엄마 허락을 받아오면 해줄게.”하면서 과자를 쥐서 돌려보냈다.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거예요.”라며 결기를 다지던 유현이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유현이는 그때부터 내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다시 수업을 열어달라고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멀리서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쪼르르 달려와 “안녕하세요?”하면서 어떻게든 아는 척을 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논어》 수업을 하면 동생도 데려갈게요.”, “뭐라고? 동생?”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태어난지 얼마 안 되어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기인데 그 애를 데려온다고? 그 전에 내가 앞으로는 학생 수가 다섯은 되어야 수업을 하겠노라고 엄포를 냈더니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됐어. 내가 졌다. 동생은 안 데려와도 돼. 겨울방학에 다시 수업하자.”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유현이가 인쇄박물관에 견학을 갔는데 직접 활판을 찍어 카드를 3장 만들었다. 그중 하나는 나한테 주려고 만든 것이라면서 그에 엄마가 가져왔다. “와! 감격이네요.”하면서 나는 카드를 열었다. 거기에는 내가 가르쳐 준 구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가 찍혀 있었다. 애 엄마는 “수업을 열어달라고 유현이가 압력을 넣는 거군요.”라고 말했다.

사달이 나다

유현이의 애원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논어》수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 번째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유현이 엄마와 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유현이 엄마

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명상수업을 하겠다고 해서 평소 내가 아는 스님을 소개해줬더니 강사료를 절반으로 똑 자르는 것이었다. 스님이 대학교수도 아니고 내노라 하는 직책(절의 주지 같은)도 없어서 그랬다는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니, 출가한지 40년이 된 스님이 원로가 아니면 누가 원로인가요? 강사료는 예민한 문제여서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니요? 우리 주고받은 문자가 그대로 핸드폰에 남아있어요. 이래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나는 억지를 쓰는 그에 엄마한테 단단히 화가 났다. “이런 상태로는 아드님을 가르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동안 똥똥한 두 아드님을 가르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렇게 해서 유현이와의 수업도 끝이 났다. 그리고 유현이네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 길에서 우연히 유현이를 만났다. 한눈에 알아보았다. 유현이도 나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다가왔다.

“안녕?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지금 몇학년이야?”

“5학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 정말 시간 빠르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네요.”

의젓한 소리를 하는 유현이를 앞에 두고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웬만하면 차 타지 말고 걸어다녀보렴.”

“...그럴게요.”

“.....”

“.....”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있을 줄은 진정 몰랐다.

글 김예욱

신문사에서 10년간 기자생활을 하고 이후 출판기획·편집자를 거쳐 글을 읽다출판사및 글을읽다 고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PEOPLE & LIFE

구술기록

고양 백정현 어르신께 듣는 6.25 전쟁 이야기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김형구 관장

인물탐방

경계 없는 유통의 달인,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 대표

고양 백정현 어르신께 듣는 6.25 전쟁 이야기

이옥석

백정현 어르신은 1933년(89세)에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사리현리 502번지에서 태어난 고명팔로 부모님, 오빠와 남동생들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받았다.

어르신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그때의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셨다. 어르신으로부터 듣는 6.25 전쟁의 이야기는 마치 생생한 영화 한 편을 보는듯했다.

아직도 깊은 아픔이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을 고양군 벽제읍에서는 어떻게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



백정현 어르신

초등학교에 대한 기억

완전 시골이었다. 당시는 고양동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집에서 십리도 더 되는 길이였다. 왜정 때였고, 오빠와 같이 다녔는데 나는 자라는 게 시원찮아서 1학년 다니다가 결국 못다니고 오빠만 졸업했다. 벽제 앞에 간이학교가 있었고 강습소가 생겼다. 집에서 가까워 입학해서 조금 다니다가 해방되면서 못다니게 되었다.

학교 다닐 때 눈에 모를 심으러 다녔다. 심을 줄도 모르는데 단체로 가야했다. 해방되고 나니 졸업이고 뭐고 없었고, 나는 1~2년 배우고 말았다. 졸업장도 못 받았다. 벽제국민학교가 생겼지만 나이가 많아져서 안다녔다. 그러다가 18살에 6.25가 나서 피란 다녔고, 그러다 보니 결국 학교를 못다녔다.

6.25 전쟁의 시작

나랑 다섯 살 차인 우리 오빠가 22살에 군인을 나갔는데 6.25사변이 나서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난리였다. 저녁이 되자 피난을 가야 한다고 해서 뒷산으로 가는데 먹을 거, 주전 부리가 없을 때였다. 집 뒤에 살구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이맘때니 잘 익었다. 그래서 동생이 나무에 올라가서 흔들어서 따다. 나는 광목으로 된 밀가루 자루에 한 자루 주워 담아서 같이 산으로, 온 동네가 같이 올라가서 밤에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난다.

밤을 새고 내려오니 동네가 말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에도 동네가 야단난 걸 알 수 있었다. 군인 나간 오빠가 내려가면서 손을 흔들며 갔다는 등 별 소리가 다 들렸다. 전쟁터에 갔다는 말이었다. 그때 준비 없이 당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군인들이 죽었다. 통일로 큰길로 군인들이 다 후퇴해서 쫓겨 갔는데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게 다 아군이였다. 너무 많았다. 그때 기억나는 게 아버지랑 오빠 시체를 찾으러 간 일이었다. 무서운 줄도 모르고 ‘우리 오빠도 그리로 갔을 테니 우리 오빠 시체라도 찾는다.’고 아버지와 둘이 가서 쓰러져 있는 군인들 이렇게 제껴서 얼굴보고 이렇게 제껴서 얼굴보고 그랬던 게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 기억이 있다.

행주와 능곡 방공호에서 겪은 일

능곡 행주강 있는데 거기가 전쟁터였다. 낮이면 아군, 밤이면 인민군이 점령했다. 거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집식구 저 집식구 다 몰려서 갔다. 우리 사촌 올케도 3살 먹은 어린애를 업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과 같이 가는데 갑자기 탱크가 왔다. 탱크 앞에 군인들이 새카맣게 딱딱딱 붙어서 몰려오는데 보고 있으니 무서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굴다리가 있었는데 거기로 피하라고 해서 모두들 뛰어 들어갔다. 그런데 미처 다 들어오지 못했을 때 총으로 쏘서 사촌 올케 다리를 관통했다. 민간인 틈에 인민군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군인들이 총을 쏜 거였다. 그래서 그렇게 애먼 여기 사람들도 그때 많이 사살되었다.

올케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수건을 얼른 꺼내서 짊 묶어주셨다. 다들 굴다리로 쫓겨 들어가 보니 굴다리 밑에 우리식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굴다리로 새카맣게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데 군인이 거길 와서 들여다보고 다 나오라며 안 나오면 쏜다고 했다. 인민군들이 섞여 있다고 찾는다고 그러는 거였다.

그 때 당시에는 지계에 짐을 지고 다녔고 지계를 세울 때 사용하는 지계작대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그 작대기에 수건을 묶어서 흔들고 나가시면서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다 아녀자고 우리 주변의 식구들이다.” 라고 말하셨다. 아버지가 안 나가셨으면 여기에 총을 쏘서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그렇게 하셨던 거였다.

우리가 거기서 지내며 집에를 한 달을 못 들어온 것 같다. 굴다리 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능곡에 있는 방공호에 들어갔다. 올케가 다리를 못디터서 오고갈 수가 없었다. 올케 다리 여기서 이렇게 뚫고 이리로 나왔는데 뚫어진 쪽 보다 나온 쪽이 구멍이 더 컸다. 총알이 헤베지고 나와서 그랬다는 거였다.

방공호에서 사는데 그때 진짜 무서운 게 밤이면 인민군이 우리 있는데 까지 오고, 밝으면 여기 군인이 왔다. 우리가 그 틈에 있는 거였다. 진짜 무서웠다. 슬쩍하면 죽는 거였다. 그런데도 우리 가족은 하나도 피해본 사람이 없었다. 전쟁 때 동네

분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도 죽은 이 없이 건넜다.

6.25사변 나고 우리 아버지 친구분네 할아버지가 비행기 폭격을 못피하셔서 돌아가신 일도 있었다. 어디서 웅웅 소리가 나면 빨리 피해야 했다. 비행기는 금방 오기 때문이다. 노인네들이 미처 생각 못하면 폭격에 맞았다. 폭탄이 한 번 떨어지면 엄청 큰 웅덩이가 둥그렇게 파졌다. 폭격 떨어지면 그냥 붙이 붙는 것도 있고 그냥 아주 두렁이가 빠지게 파지는 것도 있고 아주 힘이 무서웠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았다. 낮에는 아버지가 점심을 지계에 지고 날라다가 산에 있는 아군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다. 산에 군인들 있는 데는 미제 좋은 약들이 많았다. 아버지는 군인들 밥을 먹여주시고 군의관한테 얘기해서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얻어 와서 올케에게 주셨다. 그래서 염증도 안생기고 나올 수 있었다. 또 미군 깡통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그걸 얻어다가 대소변 받아내는 통으로 이용하게 하셨다.

백동무가 되어 인민군 치하에서 열심히 부역을 하고

결국은 인민군들이 이리로 쳐들어와서 주둔하고 살았다. 우리 가족들은 오빠가 군인 나갔다고 해서 반동분자라고 했다. 반동분자는 산에다 묶어놓고 총살시켰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러니 개네들 하라는 건 다했다. 빨갱이 노릇을 하는 거였다.

내무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말하면 읍사무소 같은 거였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내 이름이 백동무였다. 밤낮 백동무, 백동무 그러면서 불렀다. 지금도 우리 동생이 하는 말이 “누나가 안 나가면 찾아와 우리 문간에 서서 백동무 빨리 나오라우!” 그랬다고 얘기한다.

내가 했던 일은 주로 동네 다니면서 소집하는 일이었다. 안 오면 그 집을 몇 번이고 또 가야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몇 시 까지니까 꼭 나와 달라, 안 오면 여기 또 와야 된다. 너무 힘들고 다리 아프다.”면서 하소연 하니까 “재를 봐서라도 나가야겠다.”고 오죽이 동네분들이 그랬다. 낮모르는 먼 동네, 전혀 못보던 사람들한테도 갔다.

그렇게 모아놓고 공산당에 대해 선전하고, 자기네들이 최고고, 공산화 안하면 못산다고 내무반 사람들 나와서 그런 회의를 했다. 선전교육이었다. 거기서 꼭 ‘동무’자를 붙여야했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더니 나중에는 하도 들으니까 의례 그러려니 했다. 그걸 안하면 반동분자로 죽임을 당할테니, 아버지도

“너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을 보셨다. 아버지는 내무서에 가서 일을 하셨다. 아버지하고 둘이서 맹활동을 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니 ‘저 집은 빨갱이도 아니면서 아들 군대 내보내놓고 저런다.’고 말도 많이 들었어. 살아남으려니까, 이쪽 저쪽으로 쫓기니까 그랬던 거였다.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을 겪고

인민군이 후퇴할 적에 우리보고 같이 밤에 가자고 했다. 인민군들이 밤에 함께 가자며 총부리 들이대는데, 안갈 수 없었다. 그래서 따라나섰다. 우리 어머니는 울고불고 야단이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한 7-8명이 갔다.

밤에 사리현리에서 봉일천까지 걸었으면 많이 간 거였다. 독이 있고 개천이 있었다. 그때 ‘이렇게 가다가는 곧 강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앞뒤에서 총 들고 포위를 하고 우리를 가운데 몰고 갔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렇게 가다보면 이북까지 가고도 남을 것 같았다. ‘이북에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죽자, 여기서 더 이상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독에 주저앉아서 “나는 더 이상 못가겠으니 우리를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인민군이 공포를 쫓다. 진짜 총인 줄 알고 놀라서 움켜쥐고 울고 붙들고 있는데 죽지는 않았다. 인민군이 총부리로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랬는

데 안 간다고 그냥 여기서 죽겠다고, 안 갈거라고 그랬다.

그 사람들도 빨리 가야지 날이 밝으면 안되는 거였다. 그러니 그렇게 다그쳤던 거였는데도 우리가 서로 붙들고 울고 그랬더니 빵빵빵빵 총을 4번 쏘다.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옆으로 엎드려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치니 그 친구도 나를 쳤다. 숨도 못 쉬고 재는 어떻게 됐나? 하고 쳐보니 그 친구도 꿈틀거렸다.

밤이니 불이 있어 뭐가 있어. 캄캄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으니 가만히 숨도 못쉬고 엎드려 있다가 내가 움직여보니 몸이 움직여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인민군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고 두고 갔다. 그래서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밤으로 집에 오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기절을 하시며 우셨다. 저게 끌려가더니 안 죽고 살아왔다며 우셨다.

9.28수복 후 감옥에 간혀 고초를 겪고

인민군이 후퇴하고 가고 나서 아군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술렁대기 시작했다. 빨갱이 일하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냐고 동네에 와서 아군들이 물었다. 그러면 저 집이 아버지하고 딸이 그 일을 철저히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닌 걸 알면서도, 누가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신기한 사람에게 아군들이 ‘빨갱이냐?’고 물으면 그런 거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일을 했다고 얘기했고 결국 우리 집에 아군이 왔다. 총들이 대고 가자고 하면 가야지 꿈쩍도 못한다.



1978년 당시의 백정현 어르신 모습

아버지도 나는 또 잡혀가서 빨갱이 일을 했다고 감옥살이를 했다. 고양리 경찰서 안 감방에 넣었다. 감옥에서 하루 이틀씩 자고 나오고 그랬다. 주먹밥 주면 그거 먹고, 별 고생을 다해 봤다. 그렇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근본적인 빨갱이는 아니었으니까 오래는 안 살고 사흘 있다 나왔다. 그 당시 우리 오빠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인민군이 된 종로 포목집 아들을 도왔던 일

우리는 우리대로 그 인민군은 인민군들 대로 각각 밥을 해 먹었다. 윗집이 있었는데 밥은 그리로 가서 다 먹고 왔다. 인민군들은 밤이면 소에 마차를 매서 끌고나가서 어디 가서 먹을 걸 털어갖고 들어왔다. 밤에 마차를 끌고 어디가나 했더니 꼭 밤 되면 하나씩 실고 들어와서 먹고 그랬다. 쌀이고 뭐고 먹을 거는 다 뺏어왔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할 때 나도 같이 나가서 거들면 인민군인데 꼭 따라 들어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친절하고 나한테도 친절했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몸속에서 착착 짚은 태극기를 꺼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억지로 끌려서 인민군으로 간 것이고, 자기는 종로 포목집 아들이라면서 꼭 되돌아 가야할 사람이니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얼마 있어서 후퇴할 때 자기를 숨겨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하는 걸 보면 인민군들하고는 달랐다. 그 사람은 인민군 앞에서는 인민군처럼 행동하다가 우리한테는 다르게 행동했다. 하지만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거였다.

태극기 보여주던 사람이 인민군 후퇴할 때 정말 뒤로 빠졌다. 6.25사변 나고 뒷산에 파놓은 방공구덩이가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그이를 거기에 숨겨놓고 집에서 맨 날 밥을 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감춰갖고 다니시면서 갖다 주며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때 방공구덩이 가기가 무척 무서웠다. 전쟁 중이어서 비행기가 항상 떴다. 사람이 지나가면 인민군인지 빨갱인지 모르니까 비행기에서 총을 쏘다. 기관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탄피가 길었다. 그게 발밑에 툭툭툭툭 떨어졌다. 음식을 가지고 방공호로 갈 때 비행기 소리가 나면 짹싸게 내 몸을 숨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맞았다.

그때 짚가리가 있었는데 땀감한다고 짚을 한 단씩 빼면 우묵하게 들어간 데가 생긴다. 가다가 비행기가 뜨자 얼른 짚가리 속으로 쑥들어갔다. 그랬더니 짚가리 앞으로 탄피가 때구르르르 구르면서 떨어졌다. 비행기에서 날 쏜거였다. 그래서



가만히 죽은척 하고 짚가리 속에서 엎드려 있다가 비행기가 멀리 간 소리가 나길래 나와서 방공구덩이에 음식을 갖다 주고 그랬던 일이 있다.

그런데 아군이 들어왔을 때 누가 그걸 신고를 했다. 누구네 집에 숨겨놓고 밥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집에 군인이 와서 여기 숨겨놓고 밥 먹이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니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바른말을 하셨다. 이러저러해서 자기는 안 따라가고 뒤로 빠지겠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방공호에 넣고 밥을 먹여주고 걷어주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군인이 그러냐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군인 앞에서 그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별벌벌벌 떨면서 나왔다. 얼마나 떠는지 그게 지금도 눈에 훤히하다. 군인들이 그를 앞세워서 끌고 갔고 그 길로는 연락이 없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연락을 안 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기도 했다.

1.4후퇴와 피난 다녀온 일

그렇게 살다가 1.4후퇴 때 피난을 갔다. 아버지랑 가족이 다 같이 갔는데 피난 가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나가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못살 것 같았다. 그때 고생 참 많이 했다. 어머니, 동생, 나 셋이서 보따리를 이고 가다가 해가 지면 동네 어느 집이라도 보이면 들어가야 했다.

그때가 겨울이어서 눈은 많이 오고 춥고 그랬다. 하지만 피난민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집 헛간, 외양간 하나 차지하기도 어려웠다. 밭에 보니 수숫대의 목만 잘라가고 수숫대만 쌓아놓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수숫대를 서로 세워서 움집처럼

만들고 바닥에 수수깡을 깔고 그 위에 이불 깔고 덮고 네다섯 식구들이 잠을 잔적도 있었다. 별난 데서도 잠을 다 잤다. 그렇게 피난을 다니다가 아버지를 못 찾을 것 같으니 도로 집으로 가자고 어머니한테 말했다. 4살 먹은 동생이 있어서 이 애를 업다가 걸리다가 가니 너무 힘들었다. 게다가 짐이 또 있었다. 꿍여먹을 짐, 덮고 잘 이불 등이다. 그래서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 왔다.

피난 갈 때 한 달은 걸었을 것 같다. 한강을 건널 때는 강이 얼어서 트럭에 몇 짐씩 타고 건너갔다. 돌아올 적에는 한강이 너무나 얼어서 얼음이 솟구쳐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하얗게 많았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다. 되돌아오니 아버지가 와 계셨고 우리 집에 인민군과 중공군이 꼭 찰 만큼 많이 있었다. 소를 댔던 외양간에는 말을 매놨다.

안방은 인민군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한테는 작은 방을 하나 줬다. 중공군들은 신발에서 발을 빼면 발싸개를 하고 있었다. 발을 이런 넓은 천으로 싸서 발싸개를 하고 장화 같은 신발에 발을 집어넣었다. 우리와 헤어진 후 먼저 집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는 내일 우리를 찾으러 다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왔으니 기적이었다.



단기 4290년(서기 1957년) 단란한 가족 사진

이웃 동네 빨갱이 이야기

그 시절 군인 안 나간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우리는 오빠가 군인 나가셨기 때문에 더 빨갱이 편에 붙어야 했고 이쪽 편에도 붙어야 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왜냐,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에다가 묶어놓고 총싸죽이니까. 뒷산 나무에 사람을 묶어놓고 잔인하게 싸죽이는 걸 봤다. 너머에 사는 민간인이었는데 이 동네로 도망왔다가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뒷 산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을 묶어놓고 췌다. 빨갱이라고 쫓거니까 여기 사람이 쫓 거였다. 빨갱이도 그렇게 쏘고, 서로 그랬다.

우리 마을은 어렸을 적에 얘기 들어보면 비교적 빨갱이가 없었다. 그런데 그 너머 안골이라는 마을에는 그런 분이 많이 살았고 거기서들 그런 일이 많았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빨갱이가 사는 마을이 따로 있었다.

중공군, 인민군, 미군이야기

오빠가 군인나간 죄로 빨갱이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다. 하여간 아침밥만 먹으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일을 했다. 우리 집에는 인민군과 중공군이 2명 있었고, 뒷집에는 다 중공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친절했고 마을에 피해도 없었다. 어디 나가서 강탈 해오는 건 피해주는 거겠지만.

미군들이 여자들한테 피해를 줘서 나타나면 나무속에 숨기도 하고 그랬다. 미군이 오면 동생이 밖에서 놀다가 “누나, 누나, 누나 미군 와 빨리 숨어!” 이랬다. 그러면 부엌에 김부쟁이, 나무, 가랑잎, 솔잎을 가득 채워놓은 거 뒤로 가서 숨거나, 향아리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랬다. 그때 내가 19살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다. 미군들이 오면 “색시 색시” 하면서 찾아다니니까 피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스무살에 일찍 결혼을 했다.

그 당시 피해당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닐 때 남자들 못 입는 헌 잠바대기 입고 얼굴에도 시커멓게 칠하라고 하셨다. 얼굴이 하에서 열흘을 안 씻어도 깨끗하니까 우리 엄마가 지저분하게 보이라고 내 얼굴에 솟검뎅이를 발라줬다. 남한테 피지 않게 하려고.

중공군들과 인민군들은 여자들한테 깽뎀했다. 회의를 하러 내무반 남자들 쫓아다니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집에서 너무 멀리 가서 집에 오기가 늦으면 그 집 사랑방을 빌려서 잠을 자야했다. 그 집에서 사랑방을 하나 내주면 그 남자들

자는데서 나도 자야되니 참 난감했다. 혼자 속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야하나, 어찌야 되나...’ 그러면 “백동무 여기서 편하게 자라우!” 그러면서 이렇게 자리를 내주며 덮을 거 하나를 줬다. 그들은 깔끔하게 행동하지 사람한테 절대 치근대는 게 없었다. 참 지독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때 놀랐다. ‘애네들은이런 걸 잘 지켜주는구나.’ 어린 맘에도 그런 걸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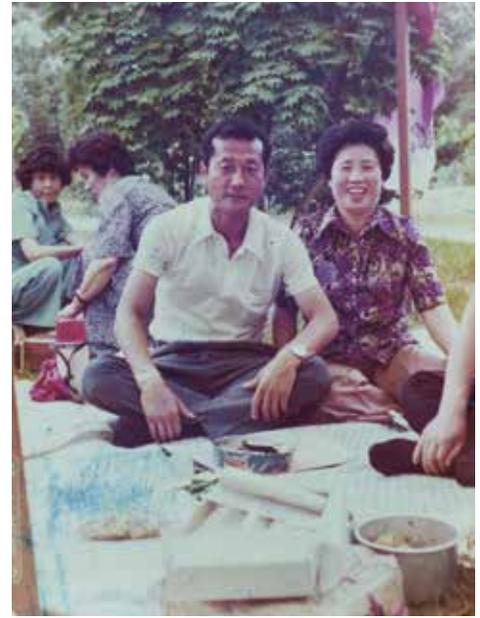
전쟁 그리고 결혼

전쟁 끝나기 한 해 전에 결혼했다. 스무살 되던 해 1월달에 결혼식을 했다. 집집마다 보따리 이고 다니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오는 할머니가 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나를 보고는 너무 곱고 깨끗하다며 좋은 신랑 하나 있으니 중신을 서겠다고 했다.

우리 아버지가 “애 달라는 사람은 수도 없지만 아무데도 못주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우리 딸처럼 이쁜 딸이 어딴어?”라고 늘 그러셨다. 그러면서 중신 할머니 설득에 선 보는 것을 허락하셨다. 선 보고간지 열흘도 안 되서 신랑 쪽에서 결혼식 날짜를 잡자고 했다. 아버지가 “아들만 많지 딸이라고는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무놈이나 줄 수 있나!”고 버티시다가 결국 결혼식을 하게 됐다.

신랑은 대학을 나온 동산리 사람이었다. 신랑이 택시를 대절해서 우리 집에 와서 대례를 지내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 당시는 대자리와 원당에 검문소가 있었는데, 전쟁터라 그랬는지 대자리 검문소에서 신랑을 안보내줬다. 신랑이 오면 대례를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신랑이 급하니까 한복 두루마기를 접어서 입고 자전거를 타고 왔다. 겨울 해가 짧으니 결혼식 하루해가 다 갔다. 그래도 서둘러 대례를 지내고 가마를 주선해서 가마꾼이 들고 밤에 신혼집에 들어왔다. 그렇게 살았다. 남편은 한 평생을 문교부에서 있다가 67세에 퇴임했다. 중매하시는 할머니 말따마나 대학 나오고 강직하고 똑똑했다. 그렇게 살다가 82세에 돌아가셨다.



1977년 당시 야외회 때 남편과 찍은 사진



백정현 어르신과 남편

글 이옥석

상명여자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고양신문 기자와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김형구 관장

박숙현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김형구 관장

“우리나라에서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하려는데 중국이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1500년 전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처음 기록이 세종실록에 나와요. 그렇지만 현재 일상 생활 속에서 온돌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은 온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50층짜리 아파트도 다 온돌이에요. 온돌이라는 것은 방바닥을 덥히는 시스템이에요. 초창기에는 밑에서 직접 불을 땀지만 지금은 스팀으로 하잖아요. 그것만 바뀌었지 밑에서 덥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주거의 95%가 온돌 주거예요.”

김형구 한국등잔박물관 관장은 최근 등잔 문화를 바탕으로 온돌문화가 우리 것임을 증명하는 이론 작업을 완성했다. 김 관장은 만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온돌이 우리것임을 증명하

는 외에 다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며 온돌에 대한 말씀만을 이어나갔다. 김 관장은 온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이 급하고 바쁘신 것이다.

“온돌이 처음 시작된 게 등잔부터 시작해요. 등잔은 좌식 문화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온돌은 어디서 왔나. 구들장이 중요한데 그걸 추적하다 보니 고인돌과 연계되고,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8000여년부터 잡히는 예맥족부터 만든거예요. 그 후예들이 지금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정몽주 선생 묘역을 지나 500여m 올라간 곳에 위치한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이곳은 한국의 등잔을 한 곳에 모아놓은 세계 유일한 등기구 역사 박물관이다.

이곳 김형구 관장은 온돌이 우리 것임을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7, 8년 전부터 이론 작업을 시작했다.

이같은 이론이 나올 수 있던 것은 등잔으로부터였으니 등잔 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 김형구 관장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온돌이 우리것임을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세계에서 나예요. 7, 8년전부터 주장했는데 그것을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등잔박물관을 함으로써 등잔과 연결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등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등잔은 전부 키(높이)들이 비슷하게 같아요. 왜냐면 그것은 온돌에 사는 사람만이 쓰게 발달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등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잔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잔을 썼어요. 간장종지 같은 것을 다 썼어요. 종지에도 동물성기름, 식물성 기름을 붓고 거기에 심지를 담귀 쓰는 거예요. 잔은 흙으로 빚어요. 그게 기초예요.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다만 주거 형식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대가 있는 등잔이 발달해요. 우리는 방바닥에 앉아서 사는데 잔을 바닥에 놓으면 빛의 효율이 없잖아요. 빛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잔을 끌어올린 거예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눈 높이보다 조금 낮게 놔야 바느질도 하고 책도 보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만 받침이 있고 대가 있어요. 같은 좌식이어도 동남아는 집이 형편없으니까 만일 쓰러지면 집이 다 타버리잖아요. 일본 역시 주거생활이 다다미예요. 풀을 말려서 방석 짜서 놓은 것 아니에요. 우리 것과 같은 등잔을 쓰다가 쓰러뜨리면 안되지 않아요. 중국은 시원찮아도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했어요.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대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온돌을 쓰는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대가 있는 등잔이 발달한 것이 증명되는 것이예요.”

김형구 관장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등잔은 온돌문화의 증명을 해줄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

“온돌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하면 구들장이에요. 그 구들장은 삼국시대부터 쪽 썼는데 구들장이 전부 돌이잖아요. 어디서 주워다 쓴 게 아니라 채석장에서 깬어요. 그 당시 돌 깨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었어요.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게 우리나라 산에 있는 돌의 지질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결이 있어서 췌기를 박고 몇 명이 같이 짝 때리면 결이 짝짝 나가는 돌이예요. 돌 깨는 기술이 있어야 온돌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돌 깨는 기술은 어디서 나왔냐.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나 그걸 추적해보면 예맥족에서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게 8000년전부터 잡혀요. 그때부터 한반도로 들어온 게 한 3000년이에요. 뿌리가 시베리아의 바이칼호수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예요. 수천년 동안 흘러서 이리로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당연히 통과해서 오다보면 마찰도 있었겠죠. 일부가 그쪽에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류는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물론 여길 찾아온게 아니라 오다보니 반도로 막혀있고 지형상 동굴이 많다보니 집합해서 살게 된거죠. 근데 4000년전부터 예맥족만의 독특한 장례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고인돌이예요. 고인돌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 프랑스, 영국인데 프랑스와 영국은 재료가 대리석이에요. 톱으로 잘라야 하죠. 우리나라 전체에 5만여 점 발견되는데 고인돌이 채석장에서 깬 거예요. 즉, 고인돌 깨는 기술을 만들어낸 게 예맥족이예요. 그 고인돌 깨는 기술이 곧 구들장 깨는 기술이 있었어요.”

김형구 관장은 “납작납작 다 비슷하게 깬 돌이 구들장이고 그것이 바로 온돌”이라며 “온돌에 살다보니까 이렇게 생긴 등잔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세계에서 등잔으로 박물관 한테가 여기밖에 없다”며 우리 문화의 뛰어난 우수성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나 김 관장은 “중국은 만주 북쪽에 고인돌이 700개가 있다”며 “그게 고구려 땅인데 중국 측은 거기에 고구려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서 왜 너희거냐며 인정하지 않아요. 왜 너희 땅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던 걸 무시하는 거죠”라면서 “중국 사람들이 온돌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데에 대응할 이론이 등잔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백년, 천년, 만년 이걸 가지고 싸워야 해요. 이론이 없으면 안되요.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이론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이론을 가르쳐야 해요.”

김형구 관장은 중국과 수백, 수천년을 싸울 가장 든든한 이론을 만들어 냈다고 자부했다.

김형구 관장은 “이 이론을 가지고 계속 후손이 연구를 덧붙여가면서 우리 민족의 주거문화의 긍지를 가지고 왜 우리 것 인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김형구 관장은 부친인 고 김동휘 전 관장의 뒤를 이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97년에 취임한 김형구 관장은 이미 99년에 박물관 전 재산을 국가에 기증했다. 현재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김 관장이 운영만 맡아서 하고 있다. 당연히 운영비를 국가에서 줘야 하지만 그렇지를 못하다보니 결국 사비를 연간 1억여원씩 들여가면서 여전히 박물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만큼 세계에서 유일한 등잔 박물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를 크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미 온돌을 놓고 중국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이길 이론 정립을 마친 상태이고 내년엔 취임 25주년을 기해서는 온돌문화연구소를 박물관 내에 오픈할 계획이다.

한국등잔박물관은 수원 최초의 산부인과인 보구산부인과 원장으로 지낸 김동휘 박사가 사비로 설립했다. 전체 4층 건물 가운데 1, 2층은 등잔 전시공간이고, 지하는 작은 무대공연, 미술전시, 심포지엄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이다.

이곳에는 부친 김동휘 박사가 생전에 아들 김형구 관장과 함께 50여년 동안 수집한 등기구 진품 200여점이 전시돼 있다. 고대로부터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어둠을 밝히던 등잔들로서 이곳 수장고에 보관한 것까지 합하면 1000여점에 이른다. 이곳은 귀한 도자기와 고가구 등 할아버지 대로부터 김형구 관장까지 3대가 수집해온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난 99년 박물관 기증할 때 모두 국가에 기증했다.

고가구와 도자기 등은 박물관의 입체적 전시를 위해 등잔과 함께 전시돼 있다. 부엌, 마루방, 사랑방, 안방 등 조상들의 생활양식을 방방이 꾸며 그곳에 잘 어우러지게 배치했다.

“요즘 사람들은 등잔만 진열해 놓으면 어떤 환경에서 어찌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옮겨놓았죠.”

전시된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 등잔이 좌식문화, 온돌문화에서 사용했던 물건임을 대번에 알 수 있다.

김형구 관장은 어린시절부터 할아버지 김용옥, 부친 김동휘로부터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배우면서 성장했다.

김형구 관장 윗대 조상들은 원래 안성분들이었는데 지손지손으로 이어지면서 땅 한마지기 없이 촌수만 높아지다보니 증조할아버지가 결단을 내려 수원으로 이사 나왔다. 처음 수원에 터잡으면서 밀천이 덜 들어가는 솜틀집을 시작했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대장간에 취직을 했고, 둘째인 김용옥 할아버지는 두뇌가 명석해서 나이가 좀 든 상태에서 수원에 삼일학교가 설립되자 전체 일등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 당시 서울에 도청이 소재해있던 경기도공무원시험에 합격하니 수원에서 경사가 났다. 도청에 다니다보니 스스로 일본놈 앞잡이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수원으로 내려와서 수원에서는 최초로 수원 행궁자리에 경찰제 문방구를 열었다. 일본이 하는 것 중에 경찰제만큼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인심으로는 깎아주는 게 정서상 맞는데 십원도 안깎아주자 인심이 나쁜 미친놈이라고 욕을 했다. 그러나 경찰제 가격 자체가 안깎아줘도 다른 문방구보다 싸다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장사가 잘돼 백화점같이 발전을 했고 수원상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 아들이 김동휘 박사다.

김동휘 박사는 당시 제일고보(현 경기중고교, 김형구 관장과 선후배)에 합격을 할 정도로 머리가 명석했다. 아들 김형구 관장과는 수원 신평초등학교도 선후배(20회, 45회) 사이다. 김동휘 박사는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이북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구세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당시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직장인 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재원 어머니 장영숙을 만나 결혼했다.

그 후 김동휘 박사는 경기도립병원에 근무하다가 김용옥 할아



버지가 항공사거리인 종로에 수원 최초로 지은 2층집의 1층에 수원 최초의 산부인과병원인 보구산부인과 병원을 6.25 이전에 개원했다. 보구산부인과 병원은 수원, 평택, 오산, 용인 등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로 명성을 얻었다.

할아버지는 워낙 검소해서 당시 가구가 불쏘시개로 버려지는 것을 안타까이여겨 고가구 위주 수집에 뛰어 들었다. 아버지 김동휘 박사는 민간에서 사용하던 등잔을 위주로 수집을 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등잔을 보면 등잔불 아래서 밤늦도록 바느질 하던 어머니가 떠오른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잠을 깨면 수집한 가구며 등잔이 가득했어요. 어린 마음에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집은 도깨비집 같았거든요. 어린 내가 볼 때는 너무 헛것들만 잔뜩 싸놓은 거예요. 딴 집 가면 호마이카장도 있고 깨끗하잖아요.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오기가 싫었다니까요.”

어린시절부터 우리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수집하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김형구 관장도 이미 중학교 때부터 수집에 눈을 떠서 도자기를 사서 모았다.

“모두 하찮아보여서 모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찮은데서 귀한 것을 보는 안목이 있으셨어요. 두 분이 수집하지 않았으면 모두 아궁이 불쏘시개로 다 사라져버렸겠지요. 나도 평생 수집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좋은 것 있으면 샀어요. 그땐 비싸지 않았죠. 내가 수집한 것만해도 70년 모았어요. 왕실의 능에서 나오는 것은 사용하지 않은 새것이지만 내가 모은 도자기는 민간이건 관이었던 일상에서 쓰던 도자기들이에요.”

김형구 관장은 태어나면서부터 골동품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목이 뛰어나다. 한번만 보면 다 안다.

원래 김형구 관장은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부터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다양하게 공헌한 경제통이었다. 20대 후반에 무역협회에서 하는 무역연수원 교수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끌던 리더였다. 당시 돈도 최고로 많이 벌었다. 그 같은 재력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박물관을 지탱해 올 수 있었다. 개인사에 대해서는 알 필요없다면서 굳이 말씀을 피하셨지만 경기중고교에서도 공부를 잘했던 뛰어난 인재였고 학맥 또한 탄탄했다.

원래 화공을 전공했지만 개인적으로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 50년 넘게 고고학 공부를 했다. 또한 음악, 미술, 문학 등 미적 안목과 문화예술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예가 깊다. 등잔박물관

장으로 있으면서 20여년간 5만여명을 대상으로 박물관, 대학 등에서 10개의 테마를 놓고 강의를 펼쳤다. 아마 김형구 관장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조예가 가장 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 악기 연주는 물론 이론과 감상에 막힘이 없다.

원래 한국등잔박물관은 69년 ‘고등기전시관’으로 출발했다. 보구산부인과 병원 2층에 등잔과 민속품을 수장고식으로 모아두다 보니 유물이 많아져서 보관 활용을 고민해야 했다. 그때 종종 병원에 들렀던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황수영 선생과 미술과장을 하던 최순우 선생이 강력하게 권유해 전시관을 개관하게 됐다. 당시 사립박물관으로는 1964년에 설립된 제주민속박물관 등 몇 안되는 소규모박물관만이 있을 뿐이었다. 개관할 때 할아버지 김용옥씨가 개관식 테이프를 끊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9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됐다.

용인 모현에 문을 열게 된 것은 부친인 김동휘 박사가 이곳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아무 연고가 없던 곳이었는데 김동휘 박사가 오지중의 오지였던 이곳 모현 능원리를 수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대지고개를 넘어와 진료를 봐줬다. 당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놀고 있던 소녀들을 데려다가 보구병원에 취업을 시켜주기도 했다. 이곳 등잔박물관 동네 할머니들 가운데는 지금도 김형구 관장에게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다.

김형구 관장이 20대 때인 1975년에 부모님을 위해 이곳에 부지를 마련하고 집을 지어드렸다. 현재 박물관 내에 그대로 남아있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은 95년 김홍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설계로 수원 화성의 공심돈을 본 떠 건축했다.

유물 수집부터 박물관 건립까지 모두 자비로 했고, 99년에 이 모든 것을 국가에 기증한 후에도 10년 넘게 자비 운영을 하다 보니 최근 다소 힘에 부치시는 것 같기에 도자기라도 한 점 팔아서 박물관 운영비에 보태 쓰시죠라고 속이 상해서 말씀드렸다가 혼쫓이 났다. 김형구 관장은 펄쩍 뛰시며 일침을 가하셨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박물관인데 후세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박물관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글 박숙현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공공감사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사주의의 태교신기, 처인성 등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경계 없는 유통의 달인,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 대표

류설아



경제 용어로 유통(流通)은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제품'보다 '행동'에 무게중심을 둔 단어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서 (주)그리니쉬농업회사를 경영하는 권영석 대표를 '유통의 달인'이라 칭하는 이유다.



제품 가리지 않는 겁 없는 유통업자

서울 노량진에서 태어난 권영석(55)은 대학에서 경제학, 대학원에서 무역을 각각 전공했다. 전공 살려 일하기 쉽지 않은데, 첫 사회생활부터 지금까지 유통업계에서 활약한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일찌감치 자신의 적성을 제대로 꿰뚫어 본 듯하다.

“가만히 있는 것은 체질적으로 맞질 않더라고요. 활기차게 움직여야 즐거워서 유통이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직장이나 개인 사업이나 그 즐거움이 사그라들고 일 자체가 지루해지면 고민 없이 빨리 정리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으로 잘 알려진 영풍광업이었다. 바쁜 직장인의 삶을 기대하며 입사했지만, 날이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할 일도 적게 느껴졌다고. 1년여 만에 영풍광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청년 시절 ‘일 좀 해보자!’라는 열정이 낳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적응기가 끝나자 지루함을 느꼈다. 다이내믹한 변화보다 딱 짜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 생리가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는 결국 20대 초반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 처음으로 개인 사업, 유통에 도전했다. 1988년, 스물 세 살 청년이 흥미를 느끼고 발 디딘 곳은 이국적인 문화가 빠르게 흐르는 서울의 이태원이었다.

“그 당시 이태원에서는 ‘짜퉁’이 아니면 판매가 힘들었어요. 그 특유의 유통 과정이 흥미로워서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패션에 관심도 경험도 없던 청년이 1988년 옷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만든 판에서 도소매 판매 경력을 쌓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가는 유통 과정의 최적화된 자신을 대면한 시간으로 기억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 2년 후 옷 장사를 접고 경기도 안산으로 내려가 장난감 유통을 벌였다.

“장난감도 당연히 모르는 제품군이었죠. 그래도 일찍 결혼해서 낳은 저희 아들 키우면서 해를 만나겠다는 생각에 도전했어요.”

새로운 제품 경계에 넘나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유통

의 본질을 즐겼던 그다. 권 씨는 1990년 안산에서 장난감 상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재래시장에 ‘도도매’로 납품하고 마트에도 판매하면서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텔레비전과 극장에서 쏟아낸 국내외 애니메이션 열풍에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때마침 경제적 안정기에 접어들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소비문화가 자리 잡던 시대다.

“모든 애니메이션과 장난감 이름 달달 외웠죠. 지금이야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장난감 골프채예요. 골프선수 박세리 열풍이 불었을 때 장난감 골프채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였거든요.”

장난감 유통으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그는 또 단조로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됐다. 미련 없이 함께 사업을 키워 온 직원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유통 아닌 음식점 운영이었다.

돌고 돌아 제 길 찾기

“큰 매형이 땅을 사고 별장을 지으려다가 힘에 부쳐서 멈춘 상황이었어요. 사업을 직원들에게 물려준 터라 새로운 일도 하고 가족도 도울 겸, 땅을 인수해서 식당으로 다시 짓기 시작했죠.”

그는 38세가 되던 해에 연고가 전혀 없는 경기도 오산시에서 유통업도 아닌 소매점으로 백숙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개업했다. 무모하게만 보이는 식당 영업에 겁 없이 뛰어들면서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장사는 꽤 잘 됐다. 하지만 유통업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

“새로운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체질상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유통업 할 때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나고 씩씩이도 큰 편이었죠. 그런데 객단가 낮은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 일단 사람 만나는 횟수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아는 사람이 오면 팔아주려는 마음인데 그것도 받아들이질

못하고요. 체질상 맞지 않았던 거죠.”

음식점 운영과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음을 확인하는 시간 속에 우리나라 최초로 발발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타격 입고 가게가 있는 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수용 발표까지 더해져 의욕이 사그라들었다. 그가 애써 눌러왔던 유통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불거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권 씨는 ‘나는 식당을 운영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재확인하고 유통업으로 되돌아갔다. 직원들에게 물려준 장난감 유통은 그들의 영업권을 빼앗는 꼴이 돼 그의 성정상 다시 할 수 없었다. 품목을 고민하던 끝에, 제조업체와 친분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통을 시작했다. 전국의 롯데마트가 주 거래처였다.

“유통업의 본질은 ‘사람이 사람 만나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품 특성을 잘 알지 못해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죠.”

다시 유통계로 돌아온 그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의 롯데마트에 트리를 납품했다. 그리고 2015년, 지금의 권영석 대표를 존재하게 하는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014년 롯데마트 측에서 원예 유통과 운영을 부탁받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식물의 ‘식’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거절했죠. 이듬해 지인이 롯데마트 내 원예매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나섰는데 그 사람이 중도 포기한 거예요. 영겁결에 제가 책임지기 위해 나섰는데 이렇게 원예 유통법인 대표가 됐네요.”

유통의 산증인으로 살아온 권 대표에게 유통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치열한 유통업계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물었다. 답은 간결했다. ‘간절함과 열정’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간절함과 열정이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유통업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지요. 살다 보면 향

상 어려울 때가 오는데, 그때 더불어 산 사람들이 ‘귀인’이 되어 고비를 극복할 힘을 줍니다. 변화가 빠른 유통업계에서 간절함과 열정으로 일하면서 평소 위기를 극복하는 힘까지 비축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운명같이 다가온 원예 유통

권 씨가 원예 유통을 시작한 2015년 2월, 대형상점 내 원예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봄에만 시즌 행사로 취급하는 등 전국의 상황이 같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그해 12월 마트 내 100평 규모의 원예복합매장을 오픈했다. 꽃과 식물, 화분 등 원예 상품을 시즌 행사로만 취급하지 않고, 연중 상시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대형마트 내 첫 원예 상설 매장은 당시 새로 문을 연 롯데마트 마산 양덕지구점이었어요. 화훼 상품 판매의 80%가량은 결혼식, 장례식, 입학식 등 경조사에만 주고받는 시대였죠. 이걸 상시로 전시하면서 ‘나를 위한 꽃 선물’로 홍보했어요. 극찬을 받았어요.”

국내 최초로 대형마트에 화훼 매장을 마련한 그는 매장을 홍보 전진기지도 삼았다. 침체한 화훼 농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였다. 권 대표는 소비자가 꽃과 화분 등 다채로운 원예 제품을 특별한 날에 구매하는 선물에서 나아가 자신과 가족, 친구를 위한 일상적 소비 상품으로 인식하기를 바랐다. 이 때문에 그는 휴게공간 겸 가드닝카페 ‘그리니쉬’와 ‘페이지그린’ 등을 잇달아 론칭, 확장했다. 현재 대형마트, 프리미엄아울렛, 백화점 등 카페와 서점을 결합한 전국의 23개 매장이 성업 중이다. 2016년에는 화훼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 유지할 유통센터도 마련했다.

“2015년 이전에는 남사라는 지역도 아예 몰랐죠. 화훼 유통을 하다 보니 이 남사 지역이 관엽 식물이 모두 모였다가 전국으로 나가는, 물류창고 기능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농사짓는 땅과 함께 관엽 식물 유통이 모두 몰려 있었어요. 저도 대형마트와 거래하다 보니 큰 물류창고가 필요했어요. 창고가 있어야만 전국의 식물을 파악하고 소비 흐름을 읽어 내며 다시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기존 대형 센터를 임대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어요.”

권 대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용인화훼유통센터를 마련했다. 남사화훼단지가 조성되기 수년 전부터 이곳에 터 잡고 다져왔다. 유통센터를 토대로 기존의 화훼 유통계에서



관례로 취했던 위탁 구조를 지양, 직영 농장을 운영하고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고품질 상품을 확보하고 이를 전국의 판매점으로 빠르게 보내면서 상품의 질 확보와 가격 경쟁력 획득에 각각 성공했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품질 좋은 화훼 상품을 제공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무엇보다 유의미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매출액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그가 2016년 처음으로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하필 ‘김영란법’이 시행된 해였다. 전국적으로 화훼 사업이 타격 입고 고꾸라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권 대표는 같은 해에 처음으로 용인화훼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 센터의 전년 대비 두 배나 오른 매출액 116억 원을 올렸다. 유통센터에서 이윤을 남기기도, 이곳을 거점 삼아 혁신적인 화훼 부가 사업을 고민하고 추진한 결과다. 그는 남사육세에 마련한 유통센터를 수익 창출보다 새로운 원예 상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우리가 아는 농업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제가 본 화훼는 다르더라고요. ‘황금알’처럼 보여요. 생산 수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만 기대어 있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직영 농장을 운영하며 생산하는 동시에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권 대표는 공부에 매진했다. 식물은 직영 농장에서 연구원들과 함께 배우고 연구했다.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흙이 없고 무기성분만으로도 자라는 수경 식물이다. 식물 공부와 더불어 2020년, 30년 만에 손 놓았던 경영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경영과 농업을 주제로 정하고 미래 농업,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중이다.

제조, 유통, 경영 능력 갖춘 농업인이 그리는 미래

“이제 다른 유통은 하지도 못해요. 코로나 시국 속 올해 1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1세에 화훼를 시작했는데 그 나이에 다른 것을 했으면 나는 지금처럼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라고요. 화훼 유통으로 미래를 봤고, 가족(자녀)이 모두 화훼 업계에서 직업을 찾고, 많은 직원이 믿어주고 함께하는 지금 이제 판 생각 절대 못 하죠.”

유통업자로 화훼에 발 디뎠을 때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고, 농민들의 ‘안줏거리’였다. 특히 화훼단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자리 잡은 남사 지역에서는 재래시장에서 찾아오는 상인이 대부분이어서 대형마트에 화훼 유통망을 구축한 권 대표가 눈엣가시였을 터. 하지만 그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선지급하는 등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좋은 상품을 좀 더 빨리 확보하며 자리를 다졌다.

특히 사회적 농업과 치유 농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면서 농업인은 물론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기대감을 동시에 얻고 있다. 현재 그리니쉬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예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 그리니쉬에서는 중증장애인 14명을 채용해 근무한다.

“기업의 미래는 ‘더불어 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것이 장애인 채용, 원예치료사 양성 교육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회사의 모체가 됐어요. ‘치유를 위한 고용’, ‘치유를 위한 공부’랄까요. 이것이야말로 미래 농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국가 화훼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 가치 창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사업영역 다각화, 기업인의 모범적인 나눔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 대표의 꿈은 원예학교가 있는 치유마을 조성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살아 숨 쉬고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에게 희망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 만들기를 그린다. 무모해 보였던 모든 선택을 실현해 온 권 대표의 미래가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류설아

신문과 방송사에서 15년 동안 취재기자로 활동,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고 인간의 삶에 주목하는 다양한 저술을 펴냈다. 현재 구술사 채록 등 프리랜서 인터뷰어로 활약하고 있다.

TRIP & HEALING

휴, 여행

신구와 생사의 경계에서, 고양 행주산성과 서오릉

산행

한남정맥 답사기, 용인 아차지 고개에서 버들치 고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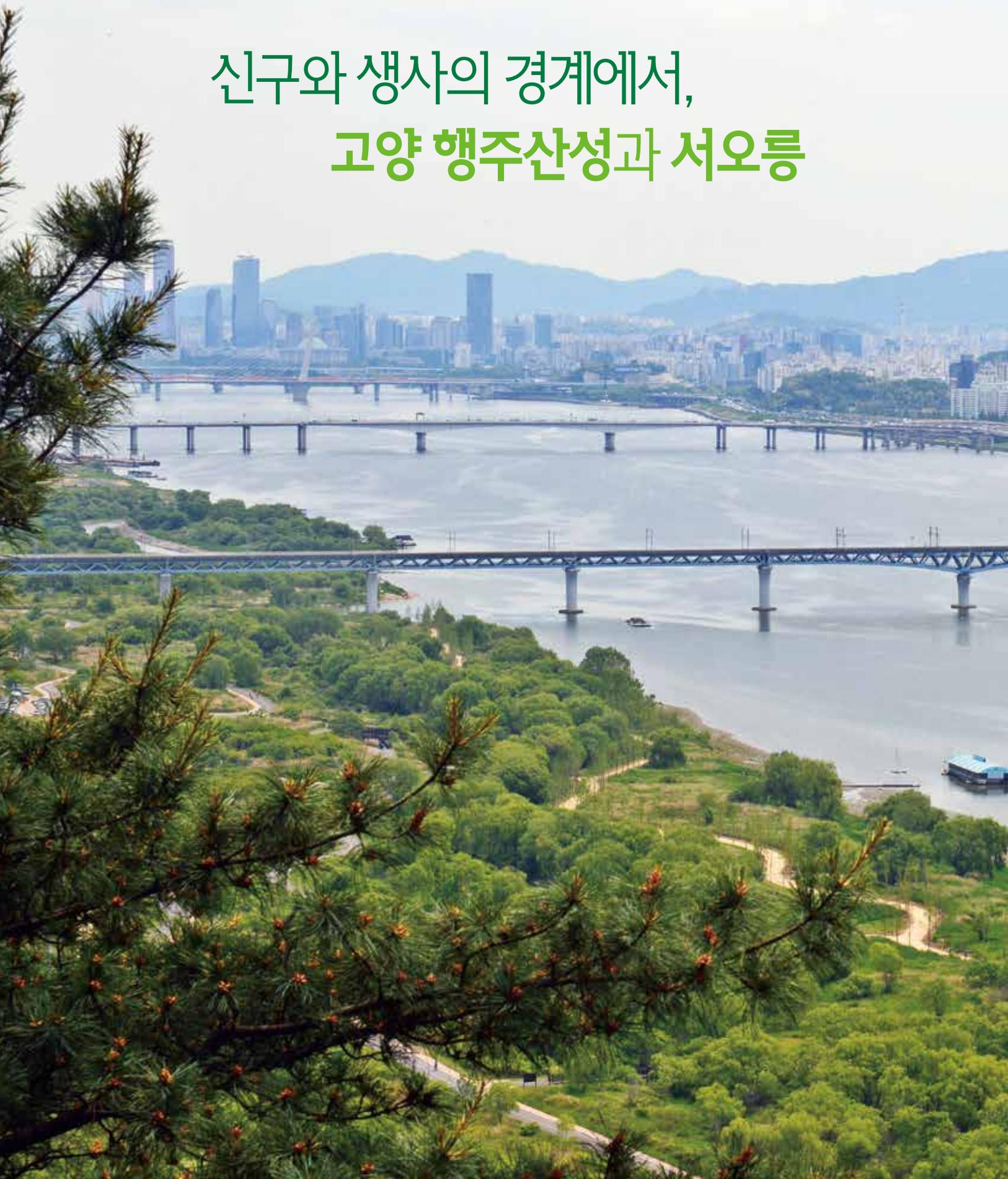
역사유적

죽음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부활', 망우리공원

경기도의 맛

안양 비산누룽지백숙

신구와 생사의 경계에서, 고양 행주산성과 서오릉



두 가지 이상의 것이 맞닿아 있는 경계(境界)가 풍경이 될 때, 나는 경계 위를 한참동안 서성인다. 경계는 분명치 않은 성격으로 때때로 불안을 낳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여백으로 사유의 기회를 준다. '신도시'라는 이름의 대단지 아파트가 숲을 이루는 고장에서 도시의 원류를 찾는 여정은 경계를 걷는 일과 같다.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섞이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경계를 고양시 덕양구에서 발견했다.



고양시의 뿌리를 찾아서

고양시하면 일산이 먼저 떠오른다. ‘첫’은 언제나 선명한 기억으로 남기에, 허허벌판 위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1기신도시 일산은 그 자체로 고양시라는 상위 카테고리를 압도해왔다. 그래서인지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고양시에 산다고 하지 않고 꼭 일산에 산다 말한다. 이는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였던 일산호수공원은 시의 상징으로 굳혀졌다. 호수 역시 신도시가 건설되었던 1996년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고양시의 뿌리이자 도시의 정체성을 품은 지역은 일산과 이웃한 덕양이다. 고양시(高陽市)의 이름은 조선 태종 때 고봉현(高烽縣)과 덕양현(德陽縣)으로 나누어져 있던 행정구역을 통합하면서 두 구역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이후 덕양현의 이름을 덕양구가 이어받았다. 덕양현의 영역은 현재의 덕양구와 대체로 일치하며 그 이름은 덕양산에서 비롯했다. 조선시대 한양의 풍수에서 덕양산은 관악산, 용마산, 북한산과 함께 서울 밖 4외산이었다. 풍수로 길한 덕양산의 상징이 바로 산보다 더 유명한 행주산성이다.

행주산성에서 만난 ‘전쟁과 평화’

덕양구 남쪽 끄트머리, 덕양산 행주산성이 있다. 한강과 맞닿아 서울과 김포를 두루 바라볼 수 있는 위치다. 덕양산의 북쪽으로 자유로가 지나고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는데 좌우로 행주대교와 방화대교가 강을 가로지른다. 도로와 강을 경계로 타원형의 섬처럼 구분된 땅은 오롯하게 ‘행주산성지구’다. 산이라고는 하나 한강변의 야트막한 구릉지대나 다름없는, 사방이 탁 트인 도심 공원이다. 산성은 마치 서울 빌딩숲 안의 봉은사나 경복궁처럼 신구(新舊)의 오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산성의 남쪽은 리버뷰, 북쪽은 마운틴뷰로 도심 속 고급 호텔 전망이 부럽지 않다. 무려 한강과 북한산을 동시에 바라보는 ‘명품 전망’이다.

산성지구의 풍경은 그저 평화롭다. 사부작사부작 산책을 즐기러 온 젊은 연인들, 투호놀이를 하며 아이처럼 웃는 어르신들, 쉼터 테이블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행주산성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 그 풍경 앞에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가 떠오른다. 실제 전투가 치러진 산성이지만 현재의 산성은 애당초 평화의 땅으로만 탄생한 것만 같다. 오늘날의 전쟁터로 말하자면 차라리 산성 아래 내려다보이는 빌딩속 치열한 일터가 아닐까. 하다못해 명색이 산성인데 산을 오르는 이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해발 125m의 정상은 천천히 걸어도 20여 분이면 닿는다.



행주치마 두른 아낙들의 참전은 낭설일까

행주산성에서의 치열했던 전투는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불과 두 달 만에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했다. 다행히 이순신과 수군들의 활약으로 잠시 기세가 주춤했던 왜적은 그 이듬해인 1593년 2월, 평양성에서 조선군과 명군의 반격을 받아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한양으로 내려왔을 때 전라 순찰사 권율은 한양의 일본군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기 위해 행주산성에 진을 쳤다. 마침 일본군은 자신들을 내몰던 명군을 격파했고 행주산성의 조선군까지 물리치기 위해 덕양산으로 공격해왔다. 이때 일본군의 숫자는 무려 3만 명. 권율 장군이 이끄는 군사는 적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3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593년 3월 14일(음력 2월 12일), 단 하루 동안 벌어진 9차례의 전투에서 조선군은 대승을 거두었다. 수적 열세에도 승리한 요인으로 기관총의 원조로 볼 수 있는 변이 종이 만든 화차, 로켓형 화살 무기인 신기전 등 신무기의 활약이 꼽힌다.

이쯤에서 의문을 품게 된다. 행주산성, 행주대첩의 ‘행주’가 민가의 아녀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참전했다고 해서 비롯된 이름이 맞는가? 신무기들이 진격해 적군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녀자들의 돌 운반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은 모양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행주라는 지명은 임진왜란이 있기 한

참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한다. 즉 이름으로 빚어진 낭설이라는 것. 그러나 여민공수(與民共守, 백성과 함께 지킨다)의 이념을 떠올리면 행주치마 투석설이 억측만은 아니다. 조선시대, 전쟁이 나면 백성들은 민가를 비우고 산성 안에 들어가 병사들을 도왔다. 신무기가 포진해 있었어도 화살이 거의 떨어진 막바지 전투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돌을 날라 병사들을 도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모조록 행주치마의 진위 여부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실은 전쟁에 일반 군사뿐만 아니라 승병, 의병 등 민간인도 참전해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일 것이다.

정상까지 20분, 전망 앞에 200분

행주산성에 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첩문을 통과한다. 문턱을 넘자마자 권율 장군 동상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46세로 벼슬길에 올라 나이 권 살이 넘어 이치 전투, 독산성 전투, 행주대첩까지 승리로 이끈 명장 권율. 사람마다 시기가 다를 뿐 늦은 때란 없다고 장군님은 말씀하신다.

권율 장군 동상을 지나 포장도로를 따라 5분쯤 오르면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총장사와 옛 토성을 복원한 토성길이 나온다. ‘토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 행주산성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인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산성이다. 잘 알려진 토성



1. 행주대첩비 앞에서 바라본 덕양정과 빙화대교의 풍경. 행주산성의 포토존이다.
2. 복원된 토성길을 따라 덕양산 둘레를 돌아볼 수 있다.
3. 행주대첩의 승전 과정을 적은 경기도문화재 제74호 행주대첩비
4. 고양시를 한바퀴 도는 트레킹 코스 고양누리길은 우리나라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과 경리가 겹친다. 평화누리길이 행주산성을 지난다.
5.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북한산과 행신동 일대
6. 행주대첩을 대승으로 이끈 권율 장군의 동상. 행주산성 대첩문을 통과하면 바로 보인다.

으로 몽촌토성, 풍납토성, 처인성 등이 있는데 행주산성은 이들과 달리 행주대첩의 명성 때문인지 석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엄밀히 말하면 행주산성은 토성과 석성의 결합형 산성이다. 2017년, 오랫동안 토성으로 알려졌던 행주산성의 정상 부근에서 석성이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산 정상부에 450m의 석성이 축성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재 행주산성의 토성은 총 길이 1km 중 415m가 복원되었으며 토성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 석축이 없다보니 자연적인 언덕길처럼 보인다. 곳곳에 벤치가 있는 아늑한 숲길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다.

토성길이 정상에 다다르면 계단이 많고 가파르다. 그래도 15분이면 충분하다. 계단을 다 올라 거친 숨을 돌리면 평평한 광장이 등장한다. 덕양산의 정상이다. 다른 산들과 많이 다른 정상 풍경이다. 정면에 수직으로 솟은 탑은 1970년에 세운 신 행주대첩비이고 옛 행주대첩비는 그 앞 비각 안에 경기도문화재 제 74호로 보호받고 있다. 행주대첩의 승전 과정을 조선의 문장으로 유명한 최립이 짓고 명필 한석봉이 썼는데 현재는 마모가 되어 식별이 어렵다. 큰 기와지붕 건물은 행주대첩 영상을 상영하는 층의정이다. 사실 정상에 올라온 이들에게는 이 건축물들보다 사방으로 펼쳐진 자연과 도시 풍광에 먼저 시선이 쏠린다. 20분 만에 정상에 올라와서 200분을 전망 보는 데 쓴대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근사하다.

산의 해발은 낮아도 서울, 고양, 김포, 파주가 발아래에 있다. 남산타워, 63빌딩, 일산 킨텍스, 김포대교, 삼학산이 다 보인다. 그중 가장 웅장한 풍경은 역시 북한산이다. 백운대, 노적봉, 만경대가 선명하고 여러 능선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의 위엄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해질 무렵이면 신 행주대첩비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고정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들의 프레임 안에는 한강을 향해 세워진 정자 덕양정과 그 뒤로 빨간 아치가 돋보이는 방화대교가 있다. 다리 건너 방화동의 빌딩들에 하나 둘 불이 켜지고 방화대교에도 조명이 들어오면 셔터를 누르는 손길이 바빠진다. 덕양정과 방화대교가 나란한 풍경은 행주산성을 홍보할 때 반드시 쓰이는 이미지다. 이 역시 묘하게 아름다운 신구(新舊)의 조화다.

100년 된 서까래 아래 작은 십자가

산성입구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한옥 성당인 행주성당이 있다. 행주성당은 1910년 완공한 한옥성당이다. 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긴 건물이라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멀찍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행주성당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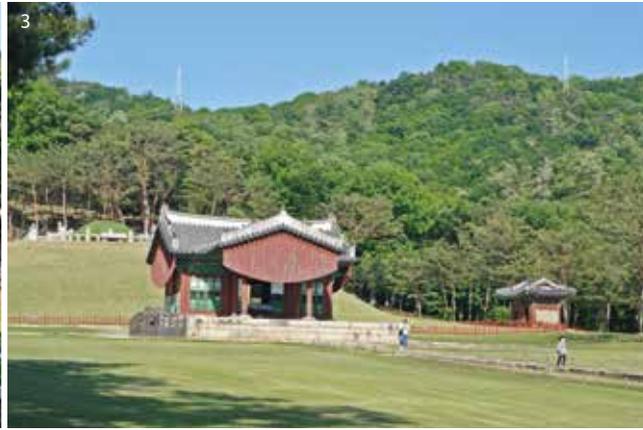
은 팔작지붕에 일곱 칸짜리 일자 형태의 기와집 외관이다. 언뜻 보면 성당으로 보이지 않는 외관인데 내부는 더욱 생경하다. 나무로 세운 기둥과 들보, 서까래가 견고하게 꺾을 맞춘 천장, 그 아래로 기다란 성당의자와 제대, 그리고 십자가와 성모마리아상... 대들보에는 ‘천주강생 1910년 4월 17일 입주 상량’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고딕 성당의 높다란 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면서도 종교시설 특유의 경건함이 느껴진다. 100년이 넘는 세월, 이곳에서 간절하게 손을 모았을 신자들을 떠올리면 건물 양식이 한옥이든 양옥이든 무슨 대수일까. 눈길을 끈 요소는 단순히 한옥성당이라는 형태지만 그 안에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한 세기에 넘게 존재해왔으리라.

고양시의 마스코트를 아꼈던 임금 숙종

덕양구의 남쪽 끝에 행주산성이 있다면 중앙부에는 서삼릉과 서오릉이 있다. 조선왕릉 42기 중 32기가 경기도에 있는데 이중 8기가 고양시 서삼릉과 서오릉이다.

서삼릉도 서오릉도 바람 부는 날 ‘왕실림 산책’으로 참 좋지만 발걸음이 먼저 닿는 곳은 서오릉이다. 서오릉은 소위 ‘숙종과 여인들’로 불리는 왕릉군이다. 숙종은 고양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왕이기도 하다. 수원에 정조가 있다면 고양에는 숙종이 있다고 할까.

서오릉의 상징, 명릉은 서오릉 입구와 가장 가까이 자리한다. 숙종과 그의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가 나란히 묻힌 쌍릉과 쌍릉 오른쪽 언덕의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의 능을 함께 가리켜 명릉이라 부른다. 14세에 왕으로 즉위해 어린 나이에도 수렴청정 없이 권력을 장악한 숙종은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군주였다. 숙종 재위 내내 조정은 시끄러웠지만 그럼



1. 1910년 한옥으로 세워진 행주성당.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쳐 외관은 거의 새 건물처럼 보인다.
2.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능인 익릉. 20세 때 요절해 숙종의 능침과 거리를 두고 묻혔다.
3. 숙종과 두번째 왕비 인현왕후, 세번째 왕비 인원왕후가 잠든 명릉

에도 숙종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혼란했던 사회를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킨 왕으로 인정받는다. 그는 대동법 확대, 상평통보 주조와 통용, 군제 개편 등 영조와 정조로 이어지는 조선 르네상스의 초석을 마련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또 다른 산성, 북한산성도 숙종의 작품이다. 숙종은 ‘금손’이라고 이름 붙인 고양이를 아꼈던 애묘인으로도 유명하다. 우연하게도 고양시의 마스코트가 고양이다. 숙종은 식사 때도 금손이를 옆에 두었고 금손의 어미인 금덕의 장례식까지 치러주었다고 한다. 숙종이 승하하자 금손이도 시름시름 앓다 죽었는데 인원왕후가 금손이를 숙종 옆에 묻으라고 명해 명릉 옆에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고양이를 아꼈다는 점도 놀랍지만 성질이 불 같았다는 숙종이 예민한 성격인 고양이의 ‘집사’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무덤가를 걸으며 삶을 생각한다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의 능인 익릉은 명릉에서 200m 쯤 떨어진 숲 안쪽에 있다. 익릉이 숙종의 능침과 떨어져 있는 까닭은 인경왕후가 스무 살에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다. 숙종과 동갑으로 11살에 왕세자빈이 되어 14살에 왕후가 되었는데 천연두를 이기지 못했다.

이들 세 왕후보다 유명한 후궁 ‘장희빈’, 희빈 장씨의 묘는 명릉과 멀찍이 떨어져 흥릉(영조의 비 정성왕후 무덤)과 창릉(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무덤)으로 향하는 언덕길 초입에 있다.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라는 ‘스펙’을 보면 묘소의 칭호는 ‘원’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죄인으로 세상을 떠난 까닭에 묘가 되었다. 1968년 경기도 광주에서 이장이 되었는데 묘의 자리부터 구성까지 너무 초라하다는 의견이 많다. 게다가 유명세 때문인지 묘를 둘러싼 괴담도 많아서 서오릉에서 명릉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묘소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서오릉을 모두 둘러보고 나면 사극 한 편을 다 본 느낌이 든다. 사실 능마다 어떤 양식과 구조로 어떤 석물들이 배치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능의 가시적인 정보를 적지 않은 이유는 내 무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릉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덤 속 죽은 이의 삶에 더 기울어져 있음을 알아서다. 사람들은 능에 세운 석물이 아니라 지하에 들어간 이들의 인생 이야기에 감정을 싣는다. 그랬을 때 능은 무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된다. 여러 인생을 곱씹으며 무덤가를 걷는다. 그러다 홀연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깨닫는 것이다. 한 왕조의 오래된 숲에서 숨 쉬고 걷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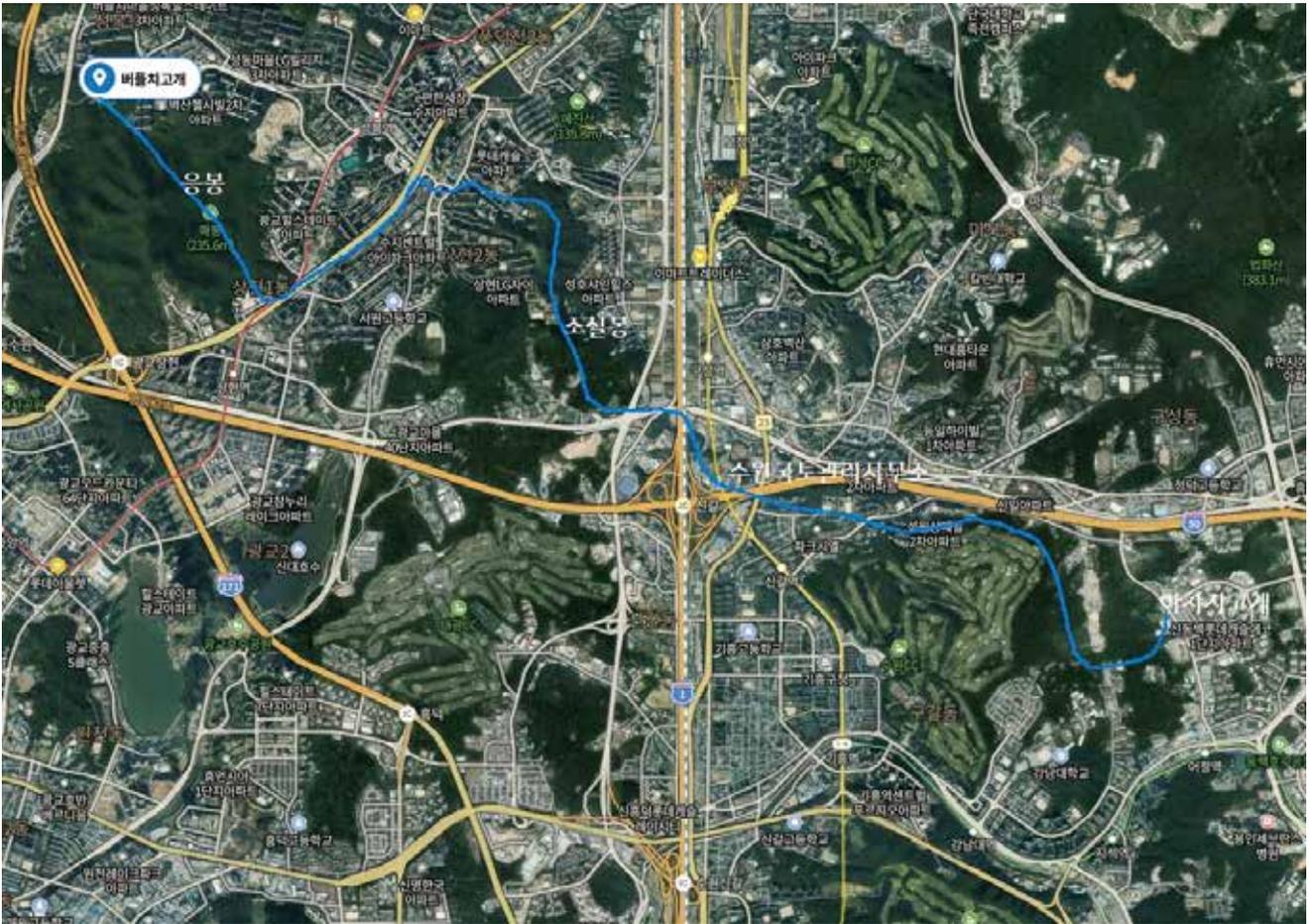
글·사진 유승혜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여행작가로 활동하며 국내외 곳곳을 걷고 문장으로 적는 일을 한다. 지은 책으로 『침표,양코르와트』, 『침표,경주』, 『침표,제주』, 『같이 오길 잘했어』 등이 있다.

한남정맥 답사기

용인 아차지 고개에서 버들치 고개까지

고영창



자료 출처: 네이버 지도 재편집

도시의 개발은 산줄기 흔적을 지우고

드디어 한남정맥 용인구간의 마지막 구간을 진행한다. 이번 답사의 종착지인 버들치 고개는 용인과 수원 지역의 경계에 있는 고개다. 용인구간을 지나는 정맥 산줄기는 시를 관통하며 지나가기에 수많은 훼손으로 산줄기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이번 답사에서는 용인시 도시 개발과 맞물려 있는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

에 더욱 극심한 훼손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원상태의 정맥 산줄기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와 아파트 단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아차지 고개를 출발하여 수원C·C 경계를 따라 가다보면 눈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길을 막고 서있다. 갑자기 산줄기는 사라지고 거대한 아파트들이 사방에서 서로 키 자랑을 하듯이 뻗뻗하게 들어서 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 걸까?’ 도무지 판단이

서지를 읽는다. 갈등은 또다시 심한 후회를 몰고 온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정맥 산줄기 찾기는 무의미하다고 판단, 더 이상 산줄기 찾기를 포기하고 용인운전면허시험장까지 걸어간다. 앞서 정맥을 답사하신 분들의 기록에 의하면 면허시험장 인근에 있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건너가야 한다고 한다. 일단 그곳까지 걸어가 본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JC가 바로 지척이다. 그뿐 아니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예정) 등 수많은 도로와 철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지금의 도로망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었던 곳이었다. 제대로 된 도로를 갖추지 않고 구(舊)도로에 살짝 붙여 시가지와 주거지를 개발한 결과였다.



경부고속도가 지나는 도로 밑 지하차도



70년대 수원·신갈 JC 부근 모습 지도



지하차도 인근의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입구



최근의 수원·신갈 JC 부근 모습의 항공사진

2009년 이후 기존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여럿 건설이 되어 교통체증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그 대가로 주변의 많은 자연마을들과 더불어 아름다웠던 경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예전에 비포장 이 길을 따라 자전거를 빌려 타고 소풍을 다녀오기도 한 곳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것이 관건이다. 수원지방국토관리사무소 정문으로 향하다 오른쪽으로 빠져 삼막곡 제1지하차도로 향해 가다가, 제1지하차도 옆으로 난 또 다른 지하차도를 찾아 맥 빠진 걸음을 옮겨본다. 이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면 마복운수 차량 주차장이 보이고 그 뒤로 앞으로 가야할 소실봉 산줄기가 보인다. 주차장 앞으로 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지하차도가 나타난다. 두 번째 지하차도인 셈이다. 여러 번 지하차도를 건너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맥 산줄기의 단절과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아무튼 토끼굴 같은 이곳을 빠져나와 삼막곡 저수지를 향해 가다보면 육교를 하나 지난다. 육교를 지나면 용인시 보정동 고분군이 나타난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에 발견이 되어, 2002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발굴에 이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150여기의 대규모 고분군이다. 도로공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매우 통탄할 일이었을 것이다.



지하차도를 빠져나와 뒤돌아 본 모습



지하차도를 나오면 앞에 보이는 산이 소실봉 능선이다.



두 번째 지하차도



삼막곡 저수지로 건너가는 육교. 산등성이에 고분군들이 보인다.



이곳에서 소실봉 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산줄기를 걷고 싶어 동물생태이동통로 위에 도로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고분 수기가 복원되어 있다. 이들 역시 보정동 고분군 중 하나이다. 만일 이 고분군이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분명 산줄기를 절개하고 도로를 건설하였으리라.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나오다 어렵게 산길을 찾아 소실봉으로 향한다. 소실봉 가는 길에 소현 초·중학교를 통과해 지나게 된다. 절묘한(?) 곳에 학교를 세웠다는 생각이 든다.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소현중학교



소현중학교 앞 소실봉으로 향하는 길목

어렵게 학교를 통과하고 소실봉 가는 길로 접어든다. 이곳에서 멀지 않아 10여분 진행을 하면 소실봉에 닿는다. 너른 공터로 조성이 되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 여럿이 쉬고 있다.



이곳에서 소실봉 공원을 향해 내려가면 더 이상 산줄기 찾기가 어려워진다. 다음으로 가야할 목적지는 매봉과 응봉 그리고 오늘의 종착지인 버들치고개이다. 소실봉에서 정맥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였다가 다시 매봉과 응봉을 들어올린다. 고도가 낮아진 산줄기는 개발의 손길에 쉽게 노출이 되어 주변 일대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주거지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 도무지 이곳으로 산줄기가 지나간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맥의 흔적이 지워져 없어졌다. 어떻게 가야할까 고민을 하다가 응봉 능선으로 가기 위해 조광조 선생 묘소로 향한다. 조선 중기 성리학자로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고자 당시 훈구파에 대항하다 실각하고 끝내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다.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워 묘역 일대를 돌아보고 나왔다. 능선으로 오르는 길은 묘역 입구에서 약 100m에 동쪽에 있다. 입구에는 광교산 형제봉까지의 자세한 산행 안내판이 서있다.



이곳에서 다시 매봉과 응봉을 향해 걸음을 시작한다. 하지만 매봉 정상은 군부대에 의해 출입이 통제가 되어 갈 수가 없다. 부대 철망을 옆으로 끼고 응봉으로 갈 수 밖에는 없다. 응봉에는 케른(cairn) 형식의 작은 돌무더기가 있다. 여기서 약 1.1km 정도 이정표를 따라 가다보면 샴터를 겸한 휴식 공간이 나타난다. 매봉샘이다. 주민 여러 분이 목도 축이면서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물 한 모금 마셔볼까 하다가 내친 김에 그대로 갈 길을 계속 재촉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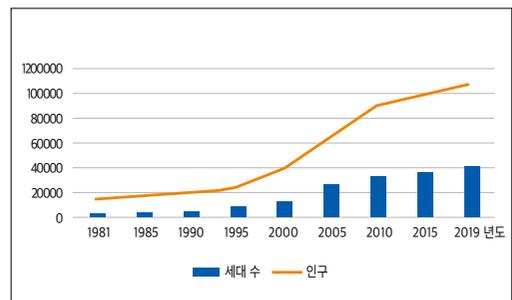
매봉샘을 끼고 오른쪽 능선으로 올라간다. 길은 편안하고 한적하다. 버들치고개가 멀지 않았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다. 도시 주변에 이러한 산들이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집 뒤로 이런 산들이 어디를 가도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계획한 목적지가 가까워지니 갑자기 피로감이 밀려온다. 작은 성취감보다는 웬지 모를 미안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폭염에 지친 탓일까? 아니면 조용한 산속에 있다가 갑자기 아파트 숲속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 또 숲속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한 탓일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매우 심란했다. 앞으로 진행할 코스들 또한 도시를 통과하는 일이 다반사일 건데 벌써 이렇게 지치면 안 될 텐데. 속절없이 앞날이 걱정이 된다.

오늘 답사로 한남정맥 용인구간이 끝이 났다. 용인은 1981년 까지만 해도 약 3만 세대에 인구가 15만이 되지를 않는 작은 지방 중소도시였다. 하지만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90년에 44,134세대 187,977명, 2000년에 130,599세대 395,028명 2005년 249,939 세대 639,691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경험하였고 2019년 기준으로 406,880 세대 1,078,591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 즉, 95년부터 2010년 사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를 하였으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 개발 또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약 20년 동안 이번에 통과한 구간에 있는 기흥구와 수지구 개발의 흔적은 역력하였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정맥 줄기의 훼손은 극심하다. 한마디로 ‘정맥은 없다’라고 할 정도이다. 특히 수지구 난개발의 후유증은 실로 심각하다.

정맥은 도심 속으로 몸을 낮춘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렸다.



버들치 고개



용인시 인구 및 세대 수 변화

글 고영창

영남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 4년 전부터 파주 전통마을 기록화 사업에 공동 참여 중이다. 『산경표』의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산들을 직접 탐사하고, 그 곳의 인문지리를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죽음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부활’

질곡의 역사를 살다간 근현대 뛰어난 인물 한곳에..., 망우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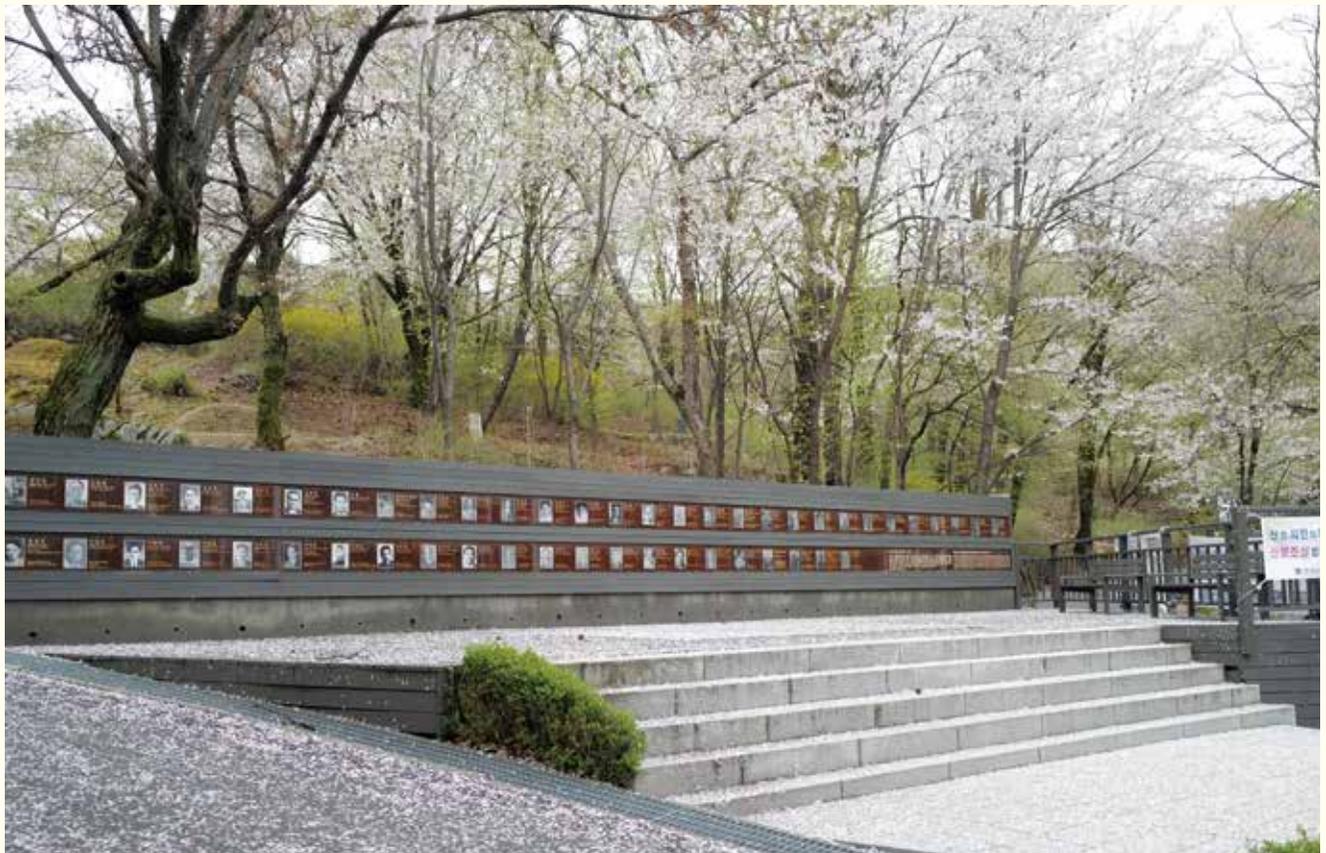
김종경

망우리 고개 일대에 있는 ‘망우리 공원’은 지명만으로는 서울 중랑구지만 공원 내 주요 인물들의 묘지를 보면 경기도 권역인 구리시에 밀집해 있다. 망우리 공원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한용운, 방정환, 조봉암, 오세창, 안창호, 유상규, 문일평, 아사카와 다쿠미 등 유명 인사들의 묘역이 구리권역인 망우산(282m)의 동사면에 영면해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망우리 공원이 실제로는 경기권역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편집자 주>

이제 묘지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의 공간이 아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소통하는 공간이다.

해외 유명한 묘지공원(공동묘지)에는 해마다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든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짜르트르, 보들레르, 모파상, 푸코, 하이네 등 평소 동경하던 음악가, 철학자, 시인, 소설가들이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과 함께 잘 가꾸어진 공원묘지에서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서울 중랑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망우리공원(공동묘지)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묘지공원이다.



물론 해외 묘지공원처럼 이곳에 잠들어있는 유명 인사를 만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지는 않지만 더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친근하고 익숙한 일상의 공간이 된 것만으로 괄목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화사한 꽃나무와 무덤이 어우러져있는 망우리공원은 탐방객, 추모객, 어린자녀를 대동한 가족단위 나들이객, 데이트를 즐기는 청춘 남녀, 산악회, 조깅족으로 상시 북적거린다.

이곳은 60여 명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 인물이 한 공간에 잠들어 있는 근현대사의 보고다. 세계에서조차 이처럼 다양하고 뛰어난 인물들이 한곳에 잠들어 있는 곳은 드물다고 한다.

한용운 묘가 등록문화재인 것을 비롯해 오세창, 문일평, 방정환, 오기만, 서광조, 서동일, 오재영, 유상규 등 독립지사 8명이 잠든 묘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또 하나의 역사 공간이자 살아있는 현장 박물관이 아닐 수 없다.

현재에도 새로운 인물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망우리공원은 과거에 망우리공동묘지로 불리었다. 기피와 두려움의 공간이 명소가 된 것은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각자 수많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는 근현대 예술가, 독립운동가, 정치인, 과학자, 의사, 가수 등 유명 역사 인물들이 영면해 있는 묘지를 문화콘텐츠로 끌어낸 시민과 행정당국의 노력에 기인한다.

망우리고개 일대에 조성돼 있는 망우리공원 위치는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 중랑구에 걸쳐 있어 구리권역과 서울권역으로 이뤄져 있지만, 중요한 인물 상당수가 구리시 권역에 밀집해 있어 경기권임을 알 수 있다.

한용운, 방정환, 조봉암, 오세창, 안창호, 유상규, 문일평, 아사카와 다쿠미 등 유명 인사들이 망우리공원의 구리권역인 동사면에 영면한 채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망우리고개는 경기도 구리시 서쪽으로 뻗어 있는 망우산의 북쪽 산등성이에 있다.

구리시의 서쪽으로는 광주산맥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남북 방향으로 펼쳐져 있고, 이 산줄기는 구리시와 서울 중랑구 및 노원구의 행정 경계를 형성한다.

이 산줄기의 북쪽인 구릉산(177.8)과 남쪽 아차산(286.8)의 중간 지점이 안부(鞍部·산의 능선이 말안장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를 형성하면서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이 지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개가 망우리 고개이다.

원래 망우리면은 1963년 서울시 동대문구에 편입되기 전까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1988년에 서울시 중랑구가 신설되면서 면목동을 제외하고는 양주군 구리면에서 분리된 지역 모두가 중랑구에 소속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중 중화동을 제외하면 1914년 양주군 구리면에 속했던 당시의 리 명칭과 일치한다. 중화동만 중하리에서 아래하(下) 대신 화합화(和)로 교체됐다.

망우(忘憂)! 근심을 잊다.

망우리공원에 도착한 것은 벚꽃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4월 3일 오전이었다.

다소 이른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조깅족을 비롯해 강아지와 함께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긴 해도 필자처럼 묘역 탐방에 나선 사람, 추모객도 보였다.

막 봄비가 그친 뒤라 땅바닥에 흩뿌려진 맑고 투명한 벚꽃잎은 별빛이 가득한 우주공간 같아 보였다.

공원관리소를 지나 망우리공원 초입에는 ‘근심 먹는 빨간 우체통’이 반기고 있었다. 마치 산 자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먹여 버리겠다는 듯.

망우(忘憂)! 근심을 잊고 잠들어 있는 망우리 묘지에 제격인



작명이다. 원래 망우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현재의 동구릉을 자신의 능지로 정하고 돌아오다 쉬면서 “이제는 근심을 잊게 됐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됐다고 전한다.

우체통 바로 옆 망우리공원에 잠들어 있는 역사 인물 60여 명의 얼굴과 간단한 약력이 한눈에 들어오는 기념벽이 없다면 묘지임을 모를 것 같았다. 마음이 경건해졌다.

공원으로 거듭난 공동묘지

망우리공동묘지는 일제가 조성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경성부에서는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태원묘지를 택지로 재개발하고 대체지로 망우산 일대 83만2800㎡에 조성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 서울시립망우리공동묘지로 지정됐고, 1973년 포화상태로 폐장될 때까지 40년 동안 유택은 2만 8000여 기에 달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산등성이며 골짜기에 공동묘지로 빼곡했던 이곳은 귀신 소문이 무성한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현재 무연고 묘를 정비하고 이장과 납골 등으로 7000여 기만 남아있다.

망우리공동묘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은 것은 1997년부터였다. 프랑스 파리의 정원묘지인 페르 라 셰즈나 오스트리아 빈의 중앙묘지처럼 가꾸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묘가 없어진 자리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해 아름다운 시민의 공원으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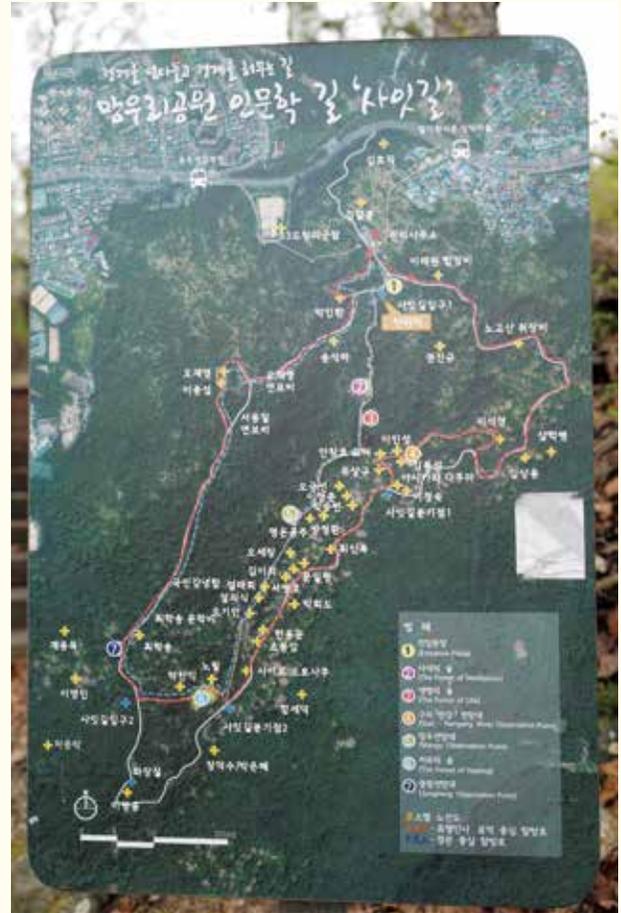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면서 숲과 산책로를 따라 애국지사의 묘역을 만나는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다. 구리시에서도 둘레길을 조성해 두 도시 합작으로 망우리공동묘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한 공간에서 아름답게 조우하는 푸근한 묘지공원으로 재탄생했다.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 학생들의 역사교육 공간은 물론 방정환 묘소를 찾는 어린이 방문객도 많다.

사이사이에 민초들의 묘도 자리해

유명인사가 구리시에 많이 분포해 있지만, 막상 공원에 들어서니 고인들 앞에서 지역 나눔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심을 잊은 채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을 추모하는 경건한 마음만 필요했다.

중앙 기념벽 좌우 둘레길을 놓고 출발을 망설였다. 기념벽 바로 좌측에 유관순열사 분묘합장 표지판이 보였다. 마지막을 장식하기로 남겨놓고 오른쪽 길을 택해 걷기 시작했다.



산길로 오르는 '망우리 사잇길'이 보였다. 이름이 그럴듯해서 근현대인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걸으니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손바닥만 한 면적에 자리잡은 민초들의 묘와 묘비가 울망졸망 구획도 없이 친근하게 분포해 있었다. 아주 작아 봉분으로 여겨지지도 않을 정도여서 오히려 친근한 느낌마저 들었다. 사잇길 여기저기 명언판이 있어 사색하며 걷기에 좋았다.

그러나 한참을 가도 유명인사의 묘는 보이지 않고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나타났다. 아차 싫었다. 지나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좌측 산길로 빠져나오면서도 이곳 무명의 작은 묘들이 망우공원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죄송스러웠다.

유명인 묘가 밀집한 동쪽 구리시 영역

내리막길에 도산 안창호 선생 묘터가 보였다. 이곳에는 2016년 새롭게 조성한 묘비석만 있었다. 묘는 1973년에 강남구 도산공원으로 이장됐다. 도산이 망우리에 들게 된 것은 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독립운동가이자 아들 같았던 유상규 묘 근처에 자신도 묻어달라는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유상규는 상해 임시정부

에서 도산 안창호의 비서로 일했다. 그는 도산의 정신적 아들이었으며, 경성 의학 전문학교 부속 병원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유상규는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유상규 곁에 묻히기를 원했던 안창호의 묘(터)가 위쪽에 있기 때문이다.

야트막한 지붕이 덮인 듯 특이하게 생긴 묘역도 나타났다.

이곳에는 오공선의 묘가 있었다. 최초의 세브란스병원 조교와 의사로 고아 구제 등 사회사업도 했지만, 반민족 친일행위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망우리에는 친일 오명으로 외면 받는 이가 있고, 좌익의 명에를 짊어진 죽음도 있다. 좌익과 우익, 독립지사와 친일파,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세상일을 내려놓고 잠들어 있다.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라는 문구로 애송되는 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를 지은 월파 김상용 또한 친일명단에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교육가로 이곳에 잠들어 있다.

마침내 돌레길로 빠져나왔다. 돌레길에는 근현대 인물의 묘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연보비 등이 세워져 있었다. 안창호와 유상규 묘를 알리는 표지판도 눈에 띄었다. 돌레길 가까이 근현대인물의 묘가 많이 분포해 있음을 알수 있는 묘역탐방지도도 보였다.

입구 좌측이 망우리공원의 동쪽 구리시에 해당했다. 길을 잃고 헤매느라 지나쳐온 좌측 초입부터 노고산 취장비, 김상용 시인, 종두법의 지식영, 좌우의 대립 속에 희생된 삼학병(三學兵), 천재적인 근대 서양화가 이인성의 묘 등이 있었다. 공원 입구 쪽에는 소설가 김말봉이 눈에 들어왔다. 가곡 그네는 사위 금수현 작곡에 장모 김말봉이 작사했다.

좌우를 둘러보니 바로 근처에 일본인 묘소가 눈길을 끌었다. 조선총독부 산림과에 근무했던 아사카와 다쿠미 묘다. 그는 임업 발전에 기여했고, 조선을 사랑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죽어서 조선인의 흙이 된 일본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그는

유언대로 한국에 묻혔다. 매년 4월 2일 서울과 일본의 지인들이 다쿠미 묘 참배 행사를 열고 있다. 필자가 찾은 날, 화환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총독부 산림과장을 지냈던 사이토 오토사쿠도 잠들어 있다. 그는 식목일을 제정하고 포플러(미루나무)와 아카시아를 처음 심은 반면 산림 수탈의 지휘자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어린이의 벗 소파 방정환의 돌무덤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고 19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제정한 인물답게 봉분대신 예쁜 돌무덤을 썼다. 앞면에는 ‘동심여선(童心如仙)’, 뒷면에는 ‘동무들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다. 동심여선은 오세창의 글씨다. 연보비에는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살펴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늘 책을 읽히십시오.”라는 당부의 글이 새겨져 있다. 비문에 적힌 일대기를 큰 소리로 읽었다. 손병희의 딸 손용화와 결혼한 그는 유교 사상이 깊게 남아있던 당시에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하고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의 높은 의식이 존경스러웠다. 아동문학가로, 독립운동가로 짧은 인생을 굵게 살다 간 방정환 선생 묘에 엮으려 큰절을 올렸다.

조선 순조의 맏딸 명은공주와 부마 김현근도 인근에 누워 있다. 명은공주는 23세에 요절했고, 김현근은 78세까지 살았다.

동요 ‘오빠생각’을 작사한 최순애의 오빠인 아동문학가 최신복도 잠들어 있다. 최순애는 ‘고향의 봄’을 작사한 이원수의 부인이다. 최신복은 방정환을 존경해 1937년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수원의 선산 대신 방정환의 묘 아래쪽에 묘를 마련했다. 후에 갓 나서 죽은 자신의 아들도 이곳에 묻었고 자신도 이곳에 묻혔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옥고를 치렀고, 해방후에는 건국 준비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오세창, 조선학 운동을 펼친 민족 사학자 문일평의 묘를 지나 좀 더 내려가니 죽산 조봉암의 묘다. 1959년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비석 뒷면은 비문 없이 근현대사의 거울처럼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13명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보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엔 또 아니하시고는 안 될 일이기엔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아니냐”라는 글귀에 울컥했다.

바로 곁에 독립지사이자 스님, 시인인 만해 한용운이 잠들어 있다. 2012년 10월 19일 등록 문화재 제519호로 지정됐다. 한용운은 일본 패망을 1년 앞두고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1933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심우장(尋牛莊)이라는 택호로 집을 짓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 집을 지을 때 그를 돕던 인사들이 겨울에 별이 잘 드는 남향으로 집을 지으라고 했으나, 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다며 끝내 동북향으로 틀어 집을 지었다.

묘비에는 ‘부인유씨재우(夫人兪氏在右)’라고 쓰여 있다. 조선 총독에게 “대처승을 허해 달라”고 ‘건백서’를 보냈던 만해는 14세 때 풍습에 따라 조혼한 바 있으며, 55세에 간호부인 유씨와 결혼했다.

극작가 함세덕, 언론인이자 정치인 장덕수를 지나 멀리 차중락의 묘가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번안한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러 히트했던 인물이다. 시 ‘풀’을 쓴 천재시인 김수영의 이종사촌 동생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가 서동일, ‘백치 아다다’를 남긴 근대 소설가 계몽묵과 ‘탈출기’의 작가 최학송이 잠들어 있고, 1923년 동대문야구장 1호 홈런을 날렸던 이영민의 묘는 이장돼 묘비만 남아있다. 이장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돌레길을 따라가며

길 가까이에 들릴 수 있는 묘는 짧게라도 인사를 올렸다.

돌레길을 걷다 보니 힐링도 됐다. 오후가 되자 햇볕이 나면서 산벚꽃의 화려한 진면목이 드러났다. 소풍 나온 인파가 어느새 유원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 늘어났고, 모두 벚꽃 아래서 하하 호호 서터를 누르기에 바빴다.

계속 걷다보니 황소를 그린 화가 이중섭 묘가 나타났다. 후배 차근호가 세운 추모비에 이중섭 그림에 나오는 두 아들이 새겨져 있고, 잘생긴 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묘를 지키고 서 있었다. 마침 한식을 앞두고 유족 방문을 위해 관리인이 묘지를 손질중이었다.

돌레길 주변 산자락 사이사이에 보이는 작은 묘는 앞뒤로 만발한 벚꽃과 개나리 꽃잎 이불을 덮은 꽃무덤이었다. 그렇게 따사롭고 예뻐 보일 수 없었다. 포근한 꽃 이불 덮고 어린아이들처럼 즐겁고 행복해할 것만 같았다.

넘비 시설, 혹은 명소

좀 더 지나 사잇길 중랑 전망대에 오르니 멀리 한강과 북한산, 백운대, 도봉산의 화강암 기암절벽과 큰 바위로 이뤄진 흰색 봉우리가 새파란 하늘과 대비를 이룬 채 파노라마처럼 흘러다. 빼곡한 아파트 숲이 눈앞에 펼쳐져 망우리공원이 도심 숲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공동묘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넘비 시설이 될 수도, 인기 명소로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레길 일주를 마치는 지점에 가까워지자 시인 박인환이 등장했다. 박인환 시에 곡을 붙인 아주 익숙한 선율 ‘세월이 가면’이 박인환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마치 오래된 축음기 소리 같아 작가와 같은 시간 속에 서 있는 듯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박인환을 추모한 화환이 놓여있었다. 연보비에 모더니스트 시인이었던 그의 시 ‘목마와 숙녀’ 일부가 새겨져있다. 시 낭송도 흘러 나왔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 한다…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데…”

4계절 슬픈 아름다움

화룡점정이라고 할까. 공원사무소 뒤편에 있는 ‘이태원 공동묘지 무연분묘 합장 유관순 열사 묘’에서 마침을 했다. ‘유관순 열사 분묘합장표지비’와 합장묘 독립운동가 서병호 선생의 연보비에는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하니 나라와 나의 관계를 절실히 깨닫는 국민이 되자”라고 새겨져 있다. 무연분묘합장비에는 경성부가 1933년 경기도 구리면 망우리에 공동묘지를 개장하고 서울에 있는 공동묘지를 순차적으로 없앴다는 내력이 소개돼 있다.

이태원공동묘지는 1935년부터 미아리와 망우리로 이장이 개

시돼 1936년 4월 8일 완료됐다. 이때 무연고묘로 판정된 2만 8000여기를 화장해 망우리공동묘지에 합장 후 위령비를 세웠다. 유관순 열사는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해 일제의 삼엄한 경비하에 이태원 공동묘지에 매장돼 묘비도 없이 지내다가 이태원묘지가 없어지면서 아무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 합장비는 유관순 열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추모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1936년부터 돌아가신 독립투사는 망우리공동묘지에 묻히고 그전에 돌아가신 분은 대체로 이태원공동묘지에 묻혔다.

망우리공원이 시기적으로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운영됐기에 근현대 인물이 많다.

내가 본 망우리의 봄은 처연히 아름다웠다. 살아생전 질곡의 역사 속에서 청춘을 불사른 독립지사, 예술가들의 뜨거운 영혼 위로 벚꽃 잎이 눈발처럼 흩날렸다.

푸르른 신록이 우거진 한여름에, 단풍이 물든 가을에, 찾는 이가 뜬겨진 한겨울 눈 덮인 망우리에도 슬픈 아름다움을 간직한 영혼들이 산자와 소통하면서 근심을 잊은채 영원히 빛나리라.

참고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위키백과, 디지털구리문화대전 등

글 김종경

시인이며 언론인이다.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문학박사) 졸업했으며, 저서로는 시집 ‘기우뚱 날다와 포토에세이 ‘독수리의 꿈’ 등이 있다.

안양 비산누룽지백숙

신완섭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를 사흘, 삼복 중 첫 복날인 초복(初伏)을 일주일 앞둔 7월의 첫째 일요일 안양시 비산동 먹거리촌을 찾았다. 여러 맛집 중에서 「비산누룽지백숙」을 찾아간 것은 장마철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지쳐버린 몸을 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참에 최고의 보양식 누룽지백숙을 살펴보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기

이 말은 ‘심증(닭 잡아먹기)은 가는데, 내미는 물증(오리발) 탓에 옳지 못한 일을 당하고도 엉뚱한 수작에 넘어가는 경우’를 빗댄 우리네 속담이다. 이 속담은 물갈퀴가 없는 닭발과 물갈퀴가 있는 오리발의 모양새가 확연히 달라서 생겨난 속담이지만 닭이 민가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온 가축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원래 닭은 야생 상태였으나 BC 1,700년경 인도에서 처음으로 기르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4대 탈해왕(AD57~80 재위)이 국호를 계림(鷄林)으로 삼았을 만큼 오랜 식용의 역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송대의 『개보본초(開寶本草)』나 『도경본초(圖經本草)』는 ‘약용으로 조선 닭을 써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1809년 발간된 조선의 생활경제백과사전인 『규합총서(閩閩叢書)』에서는 ‘무릇 닭을 잡아서 거꾸로 매달기를 만나절이나 해야 피가 다 빠지고 연하여 맛이 좋으나 지네가 닭 냄새를 맡아 물려오기 쉬우니 조심하라’고 언급하여 ‘닭 잡아먹는 일’이 일상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닭백숙에 관한 기록

흰 백(白), 익힐 숙(熟) 자로 이루어진 백숙의 사전적 의미는 ‘고기나 생선 따위를 양념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힘, 또는 그렇게 만든 음식’이다. 그러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잉어, 도미 같은 재료를 총망라할 수 있다. 그러나 맑게 끓이는 육류로는 닭 맛이 으뜸이어서 굳이 닭 자를 붙여 닭백숙이라 하지 않더라도 백숙하면 으레 닭백숙을 떠올린다.

백숙에 대한 기록은 1795년 편찬된 『원행을묘정리의궤(園

幸乙卯整理儀軌)』 내용 중 즉 수라상의 식단에 처음 등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1917년 이화여전 가사와 방신영 교수가 펴낸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은 백숙을 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예로부터 삼복 무더위의 보양 음식이었던 닭백숙은 임산부나 산모에겐 금기 음식이었다. “임신했을 때 닭고기를 먹으면 신생아의 살결이 거칠어져 닭살이 된다”, “산모가 먹으면 젖이 귀해진다”는 등의 미신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고단 백 음식으로 권장할 만한 영양 음식이다.

1610년 허준이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옷이 어혈과 여인의 냉증이나 생리불순을 풀어주고 장을 동하게 하며 기생충을 죽이고 피로를 다스린다’고 밝힌 이래 옷을 넣어 만든 닭백숙이 등장한 것은 이런 미신을 없애려는 선조들의 지혜에서 싹튼 것으로 여겨진다.

닭백숙 vs 삼계탕

누구에게 물어도 닭백숙과 삼계탕의 차이를 속 시원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드물다. 삼계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린 햇닭의 내장을 빼고 인삼, 대추, 찹쌀 따위를 넣어서 고아 만드는 보양 음식’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다. 앞서 닭백숙을 ‘양념하지 않고 맹물에 푹 삶아 익힌 음식’이라는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이 둘의 차이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삼계탕은 탕이고 닭백숙은 국으로 분류한다. 흔히 탕을 국의 높임말로 여기는 것처럼 삼계탕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삼(蔘)을 주재료로 하여 어린 닭(영계)을 고아낸 보양탕이고, 닭백숙은 다 자란 닭을 양념 없이 푹 삶아 익힌 고깃국이다. 다시 말해 삼계탕은 닭백숙을 원형으로 삼아 보양식으로 특화시킨 닭백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둘째, 사용하는 닭의 크기가 다르다. 삼계닭은 특별한 보양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5호닭(500g)을 기준으로 더 어린 닭을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닭백숙 닭은 9호닭(900g)을 기준으로 8~10호닭을 사용하여 1인분용 삼계탕과는 달리 3~4인분의 식사를 커버한다.

셋째, 삼계탕은 닭백숙을 고급화시킨 음식이다. 그런 만큼 인삼은 물론 황기 밤 은행 등 몸에 좋은 다양한 식재료를 넣고 끓인다. 닭 냄새를 잡기 위해 마늘 정도를 넣고 끓이던 닭백숙이 인기 메뉴로 각광받으면서 한방성분을 가미한 고급화된 백숙이 등장하여 삼계탕 못지않게 보양 음식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복달임 음식, 닭백숙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삼복에 보양식을 먹거나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이겨냈는데 이를 가리켜 ‘복달임’ 또는 ‘복놀이’라 하였다. 음력 6월과 7월 사이, 하지 후 셋째 경일(庚日; 천간이 庚으로 된 날)이 초복(初伏), 넷째 경일이 중복(中伏), 입추 후 첫 경일이 말복(末伏)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더위 때이다. 조선 헌종 때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 ‘삼복은 속절(俗節)이요, 유두는 가일(佳日)’이라 했는데, 중국에서는 진나라 덕공 2년(679)에 처음으로 개를 잡아 사대문에 매달아 총재(蟲災)를 방지했다는 삼복 제사 내용이 전해오는 것으로 봐서 삼복은 중국에서 유래된 속절로 여겨진다.

음력 6월을 대표하는 유두(流頭)는 신라 때부터 정월 대표름, 7월 백중, 8월 한가위와 함께 이름난 보름 명절이었다.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줄임말인 유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하면 부정을 가시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고려 명종 때 학자 김극기의 문집에는 ‘경주 풍속에 액막이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유두연(流頭宴)’에 관한 기록이 있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각종 문집에는 유두의 서정을 읊은 시문들이 수도룩하지만 후대에 와서는 복날 복놀이가 더 성행해졌다. 여기서 복(伏)은 여름의 화기(火氣)를 두려워하여 ‘엎드려 감춘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 이때 즐겨 먹던 복달임 음식으로 서민들은 개고기로 만든 개장국(보신탕)을, 양반들은 쇠고기를 넣은 육개장을 주로 즐겼다. 고기가 귀했던 시절이라 그나마 흔한 닭고기로 만든 닭백숙도 널리 애용되었다.

복날이 되면 가까운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뒷산 계곡을 찾아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濯足)을 한 후 시원



한 나무 밑에 둘러앉아 커다란 솥에 삶아낸 닭백숙을 끓은 소금에 쿡쿡 찍어 닭살을 발라 먹고 불려둔 찹쌀을 넣어 죽을 끓여 한 솥을 다 비워냈다. 이같이 복날 물가에서 백숙을 끓여 먹던 풍습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서울 우이동계곡 등 전국의 이름난 계곡에는 닭백숙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 즐비하다.

비산동포 누룽지백숙

「비산누룽지백숙」 식당의 정확한 위치는 안양운동장을 지나 관악산 산림욕장 가는 도중의 수도권단사령부 삼거리 바로 앞이다. 이곳은 관악산 삼성산으로 향하는 등산로이자 하산길이기도 해서 평일에도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방문한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인지 11시 반이 갓 넘은 시간인데도 이미 여러 군데 자리가 채워져 있다. 메뉴 중 ‘누룽지한방토종닭백숙’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김명원 대표와 잠시 말을 섞어 보았다.

자 왈 “식당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대표 왈 “청계산에서 8년 정도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지 7년이 넘었으니 합쳐서 15년 이상 되었네요”

자 왈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가는 것 같은데, 음식 맛의 비결은?”, 대표 왈 “토종닭과 함께 바로 끓여내는 누룽지, 특수제작한 솥과 최적의 요리시간이지요. 나머지는 영업비밀이고요 ㅎㅎ”

자 왈 “닭백숙 집이어서인지 장식품들도 온통 닭들이네요”, 대표 왈 “네, 제가 57년 닭피이기도 해서 장식품을 몽땅 닭 인형으로 도배했어요”, 자 왈 “그리고 보니 사장님이 제일 예쁜 닭입니다”

그사이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넓은 뚝배기 그릇에 담긴 닭백숙과 별도로 닭죽 솥 그릇이 따로 놓여있고 갓김치



와 배추김치, 깍두기, 물김치, 생고추와 편마늘, 찜장, 소금장이 상 가득 올려져 있다. 살코기 대신 누룻지를 먼저 먹어 보았다. 물에 불린 찹쌀을 압력솥 밑바닥에 깔고 닭고기를 얹어 삶아낸다고 금방 설명 들은 바 있지만, 닭 국물이 배어 든 누룻지는 유독히 쫄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예사롭지 않다. 한방 맛이 묻어나는 살코기도 쫄깃하면서 씹는 느낌이 부드럽기 그지없다. 달리 소금 간을 할 필요 없이 세 종류의 김치를 번갈아 얹어 먹는 것만으로 맛이 가히 일품이다. 간간히 시원한 물김치를 곁들이니 질리지 않는 맛의 연속이다.

영양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은 비산누룻지백숙 맛의 비법은 다름 아닌 다섯 가지 한방재료에 있었다. 식당 벽에 새겨진 안내문을 토대로 그 내용을 밝혀본다.

- 1) 하수오(何首烏)_신장기능을 강화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며 혈압을 내리고 동맥경화예방에도 좋다. 원기회복과 자양강장 등에도 효능이 있으며, 탈모와 새치를 예방해 주는 레시틴, 에모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발용품의 주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 2) 상황버섯_대표 물질인 베타글루칸성 다당류의 약리 효능은 항암, 면역활성, 항산화 활성 등이다. 면역계를 자극하여 숙주의 생물학적 반응을 변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생리학적 효과를 나타내는 면역 증강제로서 중앙 치료를 위한 면역요법제로 사용되고 있다. 상황버섯은 천연 항산화제인 토코페롤보다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다. 자궁경부암 예방에 좋으며, 한방에 의하면 자궁경부암, 만성 위장병, 위암, 대장암의 혈변이 나올 때 복용하면 좋다고 한다.
- 3) 녹두(綠豆)_단백질(약 22%) 외에 탄수화물, 지질 등과 각종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칼슘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인, 철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B1, B2, 비타민 K가 풍부하

고 특히 비타민 E가 다량으로 함유되어있다. 또한 로이신, 라이신, 아이소루신, 트레오닌, 히스티딘 등의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입술이 마르고 입안이 험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 더위를 먹거나 변비가 심한 경우에도 좋고, 당뇨와 고혈압에는 녹두를 삶은 물이 효과가 있다.

- 4) 황기(黃耆)_비경(脾經)·폐경(肺經)·삼초경(三焦經)·신경(腎經)에 작용한다. 원기를 북돋우고 땀을 멎게 하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하고 고름을 없애며 새살이 돌아나게 한다. 강장작용·면역기능조절작용·강심작용·이뇨작용·혈압강하작용·소염작용 등이 있다. 허약한 데, 병이 나은 뒤 보약으로, 절로 땀이 나는 데, 식은땀, 기허증(氣虛證), 비기허증(脾氣虛證), 폐농양(pulmonary abscess), 소갈(消渴), 부종, 옹종(癰腫), 창양(瘡瘍), 혈허증(血虛證), 내장하수증 등에 쓴다.
- 5) 엄나무_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엄나무속으로 엄나무, 개두릅 나무라고도 한다. 나무껍질은 회백색이고 가지에는 억센 가시가 많으며 뿌리 또는 줄기 껍질을 사용하는데, 요통, 신경통, 거담, 강장제로 효능이 있다.

근래 K-food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삼계탕과 닭백숙의 인기도 하늘을 찌를 기세다.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 리암 니슨은 2016년 개봉작 <인천상륙작전>에 맥아더로 출연하면서 삼계탕의 마력(魔力)에 푹 빠져들었다고 한다. 나도 15년 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장관을 업무차 국내로 모신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맛본 닭백숙을 매일 찾으시는 바람에 때아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동서양을 떠나 입맛의 정석은 '정성(精誠)'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식당정보

위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74(비산3동 6-3번지)

전화 031)383-5252 (1시간 전 단체예약 가능)

영업 오전 10:30 ~ 오후 9:30 (주차장 완비)

메뉴 누룻지토종닭백숙 43,000 / 누룻지한방토종닭백숙 53,000
 누룻지오리백숙 48,000 / 누룻지한방오리백숙 58,000
 유향오리훈제구이 48,000 / 닭도리탕 45,000
 녹두해물빈대떡 15,000 / 메밀쟁반국수 13,000
 도토리묵 10,000

글 신완섭
 경기 군포 거주. K-Geofood Academy 소장. <알아야 제 맛인 우리 먹거리>, <몸에 좋은 행복식품 다이어리> 외 다수의 식품서적 발간

INFORMATION & NEWS

고고소식

경기도의 신석기인, 해양시대를 열다

사건과 성찰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길 <하>

경기학 책 소개

책과 논문으로 경기도를 읽다

- 『도시의 두 얼굴 -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경기도의 신석기인, 해양시대를 열다

- 김포 신안리 유적 -

박경신



먼 곳에서 바라본 김포 신안리 유적

김포 신안리 유적은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프로세스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었다는 점에서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는 주로 개발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후에는 유적이 사라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김포 신안리 유적은 아예 조사 이전부터 보존 및 활용방안을 염두에 둔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서울 암사동의 유적공원이 있는데, 조사 후 보존조치가 결

정된 케이스이다. 이와 같이 선 보존계획, 후 조사가 이루어진 김포 신안리 유적의 조사는 그 자체로서 후대까지 고고학계에 회자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김포 신안리 유적이 위치한 김포시는 서해안과 한강 및 임진강의 하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교역 및 생업 활동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김포 신안리는 김포시의 서쪽 중앙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서쪽의 강화섬과 마주하고 있는데,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덕포진 사적지가 있는 구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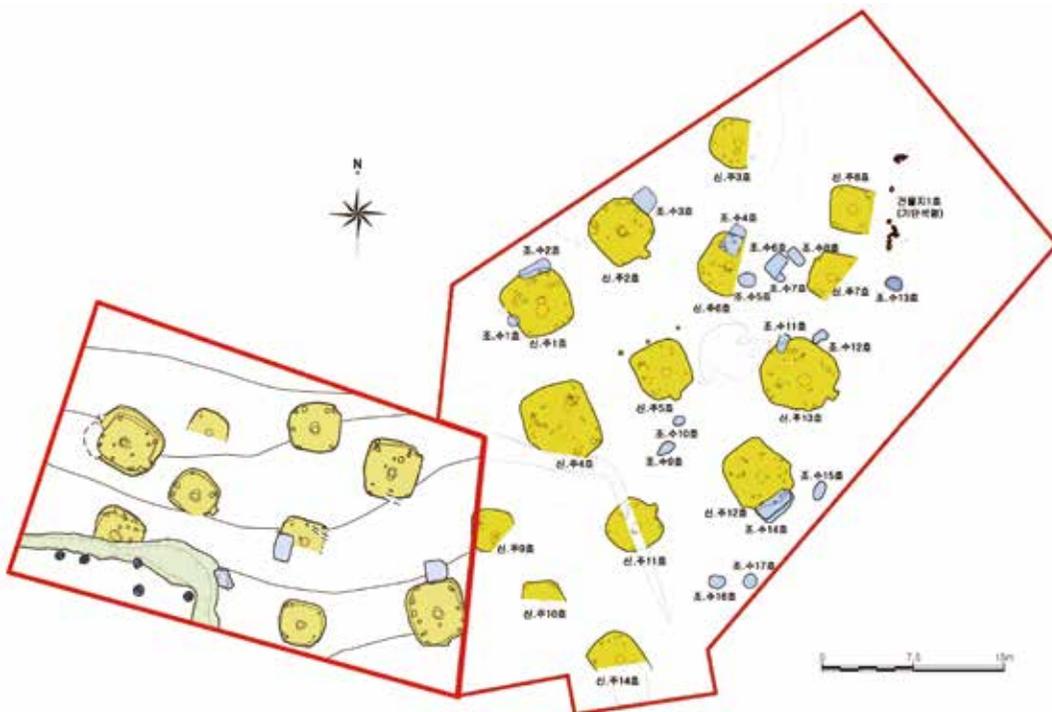
남쪽 사면 약 200m 끝에 위치한다. 김포 신안리 유적에 인접한 구릉의 남쪽과 서쪽으로는 최근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경작되고 있다. 행정 주소로는 경기도 김포시 신안리 212-2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김포 신안리 유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김포시청에서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을 타고 5개역을 지나 구래역에서 내린 후, 60-3번 버스를 타고 18개 정류장을 이동하여 대명항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 걸어서 1.4km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어가면 된다. 자가용으로는 김포시청에서 약 45분 가량이 소요되는데 동쪽과 북쪽의 외곽 큰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 차량의 주차는 덕포진 사적지 공공주차장에 하면 편리하다. 주차 후에 남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200m 가량 걸어서 내려오면 조사지역에 다다를 수 있다.

김포 신안리 유적은 원래 김진수 전 김포문화원 부원장의 “사적 제292호 덕포진이 현재의 위치가 아닌 부래도 섬을 마주한 신안1리 지역”이라는 지적을 경청하여 일대 40만㎡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알려졌다. 고고학적으로는 2017년 국비를 지원받아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시굴조사에서는 덕포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이 지역은 사적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았고, 조사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파괴의 손길을 피할 수 있었던 아이러니한 곳이다. 의도치 않은 신석기시대 마을의 발견

에 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은 물론이고 김포시 관계자 모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신속하게 기존의 조사 목표를 수정하여, 새롭게 선사시대 문화공원 조성을 기획하자는 의견에 따라, 덕포진과 상생할 수 있는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공원으로 꾸미는 수정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였다. 그리고 김포시는 향후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김포반도의 대표적인 문화 자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포시에는 가현리, 양촌, 학운리, 고촌 신곡 유적 등 많은 수의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대부분의 유적은 김포 반도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고, 조사된 마을은 10동 이내의 작은 규모로 밝혀졌다. 그런데 김포를 포함하여 인천지역에서 조사된 영종도, 김포 등의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들은 현대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부분은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모두 파괴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이제는 중부 서해안지역 신석기인의 삶은 전시관의 창백한 유물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김포 신안리 유적은 총 면적이 9,553㎡(약 2,890평)에 달한다. 유적에 대한 조사는 김포시의 의뢰로 경강문화재연구원(원장 차우근)이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2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발굴조사는 총 800㎡의 면적에 대하여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2차는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1,640㎡의 면적에 대해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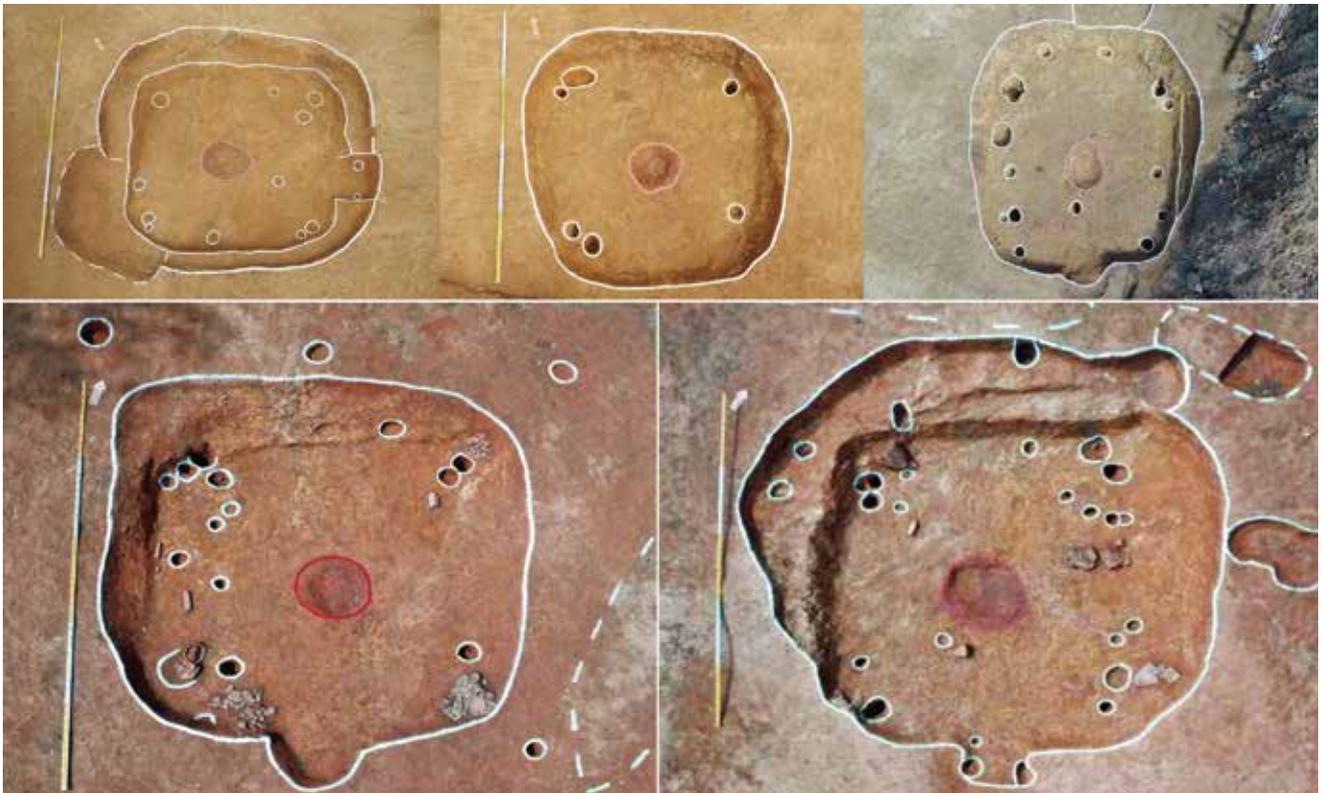
김포 신안리 마을 유적 유구배치도

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유적 면적 대비 25% 가량이 조사되었다. 두 차례의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집자리 23동이 발견되었다. 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90여 동의 집자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규모는 최근까지 중부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마을 유적 중 단연 으뜸이다. 신안리 마을 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 후반에서 중기 초반인 기원전 3,700년부터 3,400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안리 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의 인천 운서동, 오이도 안말, 대연평도 까치산 유적에서 중기의 시흥 능곡동, 신길동 유적으로 이행하는 신석기시대 마을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유적임과 동시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김포시는 강화도 사이에 염하(鹽河)가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임진강과 한강, 남쪽으로는 서해안이 넓게 펼쳐진 지역이다. 따라서 해양 교역과 생업 경제에 유리한 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서쪽의 염하 앞바다는 민물 어종과 바다 어종이 교차하여 오르내리는 지역으로 수산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염하는 한자로 소금의 강이라는 뜻이다. 김포쪽에서 바라볼 때 폭이 넓은 강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바다인 것이다. 그리고 강화도 사이의 좁은 지형적 특징에 따라 물길의 방향과 속도가 밤낮으로 바뀌는 곳

이다. 원래 염하는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신의주를 오가던 대표적인 뱃길이었다. 이러한 생업 환경은 신석기인이 정착하여 마을을 만들기에도 아주 좋은 환경을 선사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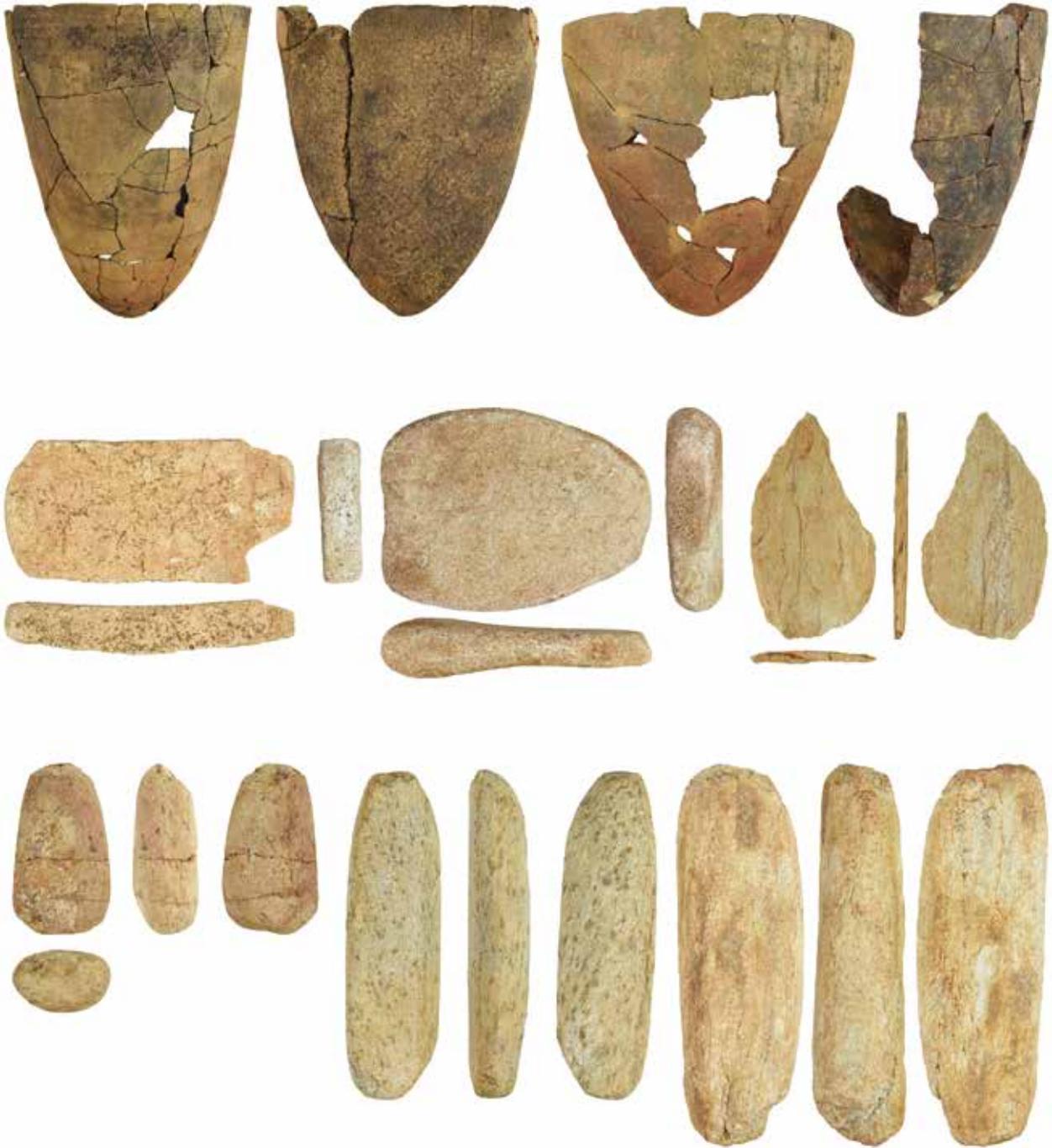
신석기시대 집자리는 출입구가 바닷쪽을 향하여 열려 있는 철(凹)자 모양의 독특한 구조이다. 하천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서울 암사동 신석기시대 집자리들이 대부분 원형 구조인 점과 크게 대비된다. 서해안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영종도, 김포 등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들은 대부분이 철자 모양이다. 이렇게 집자리의 형태와 입지조건이 다른 것은 당시 생업경제의 운영 방식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포 신안리 마을에는 3.5m×3.8m의 소형과 6.5m×5.4m의 대형 주거지가 섞여 있다. 집자리의 내부 시설로는 출입을 위한 출입구와 선반과 같은 단시설이 발견되었다. 출입구는 방에서 살짝 튀어나온 짧은 돌출부 형태였다. 집자리의 중앙에는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서 만든 화덕이 위치한다. 서울 암사동을 비롯한 강가에 있는 신석기시대 집자리가 중앙에 돌을 둘러싼 화덕을 사용하는 점과 대비된다. 그리고 집의 외곽을 따라서는 불탄 기둥과 빈 기둥구멍 등이 많이 확인된다. 또한 집 내부의 모퉁이에 크고 깊은 기둥 4개를 배치한 4주식 가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김포 신안리 마을 유적 집자리 (1차 1호, 1차 7호, 1차 8호, 2차 5호, 2차 13호)

집자리 내부에서는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갈돌, 갈판, 숯
 돌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유물들이 주로 출토되었다. 빗살무
 늬토기는 모두 역삼각형 모양에 밑바닥이 뾰족한 형태이다.
 강변의 충적대지에서는 빗살무늬토기의 뾰족한 밑바닥을 모
 래톱에 꽂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릉에서는 뾰

족한 밑바닥을 세울만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신안리 집
 자리에는 기둥구멍과는 다른 중소형의 구멍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아마도 뾰족한 밑바닥을 여기에 꽂아서 사용한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안리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아가리부터 밑바닥까지 모두 빗살무늬가 베풀어진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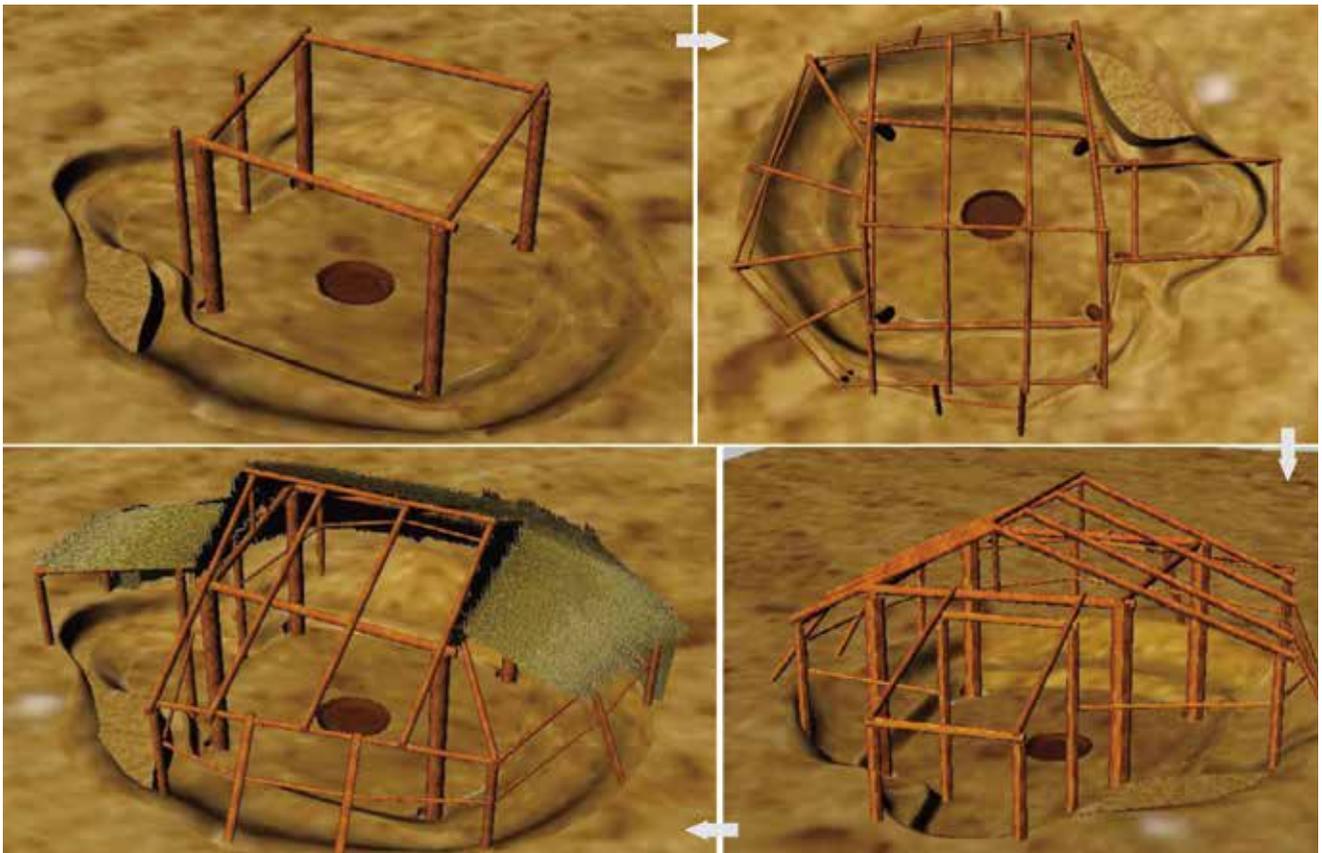
김포 신안리 마을 유적 출토유물

빗살무늬토기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몸통의 문양이 사라지다가 종말기가 되면 문양이 없는 형태로 변화한다. 문양의 종류도 아가리의 짧은 빗금무늬, 몸통의 생선뼈무늬로 나누어 시문하는 것이 빠른 형식인데 후기로 가면서 아가리와 몸통 전면에 생선뼈무늬로 문양이 통일된다. 신안리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도 대체로 전면에 문양이 남아 있고, 아가리와 몸통이 서로 다른 문양을 시문하고 있어, 신석기시대 전기 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갈돌과 갈판은 중대형으로 대량의 곡식을 2차 가공하기에 안성맞춤인 크기를 보인다. 한편, 출토유물의 특징은 낚싯바늘, 작살 등의 어로 도구와 무기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신석기시대 어로를 위해 짧은 시간 사용했던 계절적 캠프 유적들과는 달리, 오랜 시간 정주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마을이었음을 방증해 준다.

신석기시대 전기 후반과 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서해안 사람들은 3~4동(10~20명 내외 거주)의 집자리로 마을을 만들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신안리 마을은 당시로서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신안리 사람들은 수렵, 어로, 채집과 더불어 초보적인 경작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으로는 굴류, 피뿔고둥, 두드럭고둥, 백합, 맛조개, 꼬막 등의 해산물과 조

및 기장 등의 원시작물을 섭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안리 마을은 서해안의 연근해 어업을 통해 획득된 어류들을 내륙의 다른 마을에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내륙으로부터는 곡식을 제공받았을 것이다.

조사가 모두 끝난 신안리 유적은 모래와 안전시설 등을 이용해 보존조치를 완료한 후, 흙을 두껍게 덮어 현지에 보존해 놓았다. 향후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집자리 가운데 양호한 것을 서울 암사동 유적과 같이 복원하여 일반인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 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건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선 중앙 화덕을 중심으로 외곽에 4개의 중심 기둥을 설치한다. 중심기둥은 집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깊고 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집자리의 외곽 독시설에 보조 기둥을 여러 개 세운다. 이러한 뼈대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나무를 이어 벽과 천정의 가구 구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풀과 나뭇가지를 덮어서 지붕을 완성하게 된다. 만들어진 집자리 모양은 밖에서 보면 반수혈식에 가깝다. 움집을 지상식이 아니라 반수혈식으로 만드는 것은 외부 통기와, 일정한 온습도 유지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신석기시대 집자리 건축 과정 (구자진, 2011, 「신석기시대 움집의 복원과 의미」 23쪽 부분 편집)

김포 신안리 유적은 총 길이 6.5km에 달하는 김포시의 평화누리길 1코스(염하강 철책길) 덕포진 방향 초입 길목에 해당한다. 이 길은 평화의 염원과 선사인의 생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평화누리길은 철책길이 인상적이다. 누리길에는 곳곳에 스탬프를 준비해 두어 서로의 추억을 찍을 수 있게 해 놓았다. 염하강 철책길은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진 전쟁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아픔과 치유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평화누리길 1코스는 덕포진을 포함하여 운봉함을 체험할 수 있는 김포 함상공원, 문수산성, 대명항 등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운봉함은 1944년 미국(메사추세츠)에서 만들어진 상륙함으로 길이 99.6m, 높이 23m이며, 월남전에서 태평양함대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등 50년 동안 바다를 누비다가 2006년 퇴역하였다. 문수산성은 조선시대(숙종 20년, 1694년)에 축조된 포곡식산성으로 내부면적이 211.570m²에 달한다. 김포의 대명항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명소이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금어기로 어종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의 주꾸미, 병어, 밴댕이, 꽃게 등을 맛볼 수 있다. 여름철인 7월부터 8월

까지도 잠시 휴어기에 들어간다. 다시 바닷길이 열리는 9월부터 10월까지의 병어, 밴댕이, 새우젓, 꽃게, 우럭 등을 맛볼 수 있고, 11월과 12월에는 우럭과 주꾸미가 손님을 기다린다.

김포시에서는 매년 9월에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그러나 2020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행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마스크 대신 가족의 손을 잡고 신석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꾸며진 평화누리길을 함께 걷는 순간이 올 것이다. 염하는 북한과 마주한 지역으로 최근까지 배가 오고 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지역이다. 염하의 뱃길이 다시 열린 것은 최근인 2007년이다. 신석기시대부터 활성화되었던 뱃길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겼던 것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신안리에서 염하에 배를 띄워 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대련시를 지나 묘도군도를 넘어 산동으로 이어진 멋진 서해 바닷길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염하를 따라 평화누리길을 걸어보는 호사를 미리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평화누리길 1코스 염하강철책길 대명항-문수산성 14km 4시간 소요
Pyeonghwa-Nuri Trail Course 1 Yeomhagang River Barded-wire Fence Trail
 From Daemyeonghang Port to Munsusanseong Fortress 14 km 4 hrs

평화누리길의 시작점으로 철책길을 따라 수려한 자연풍경이 장관을 연출한다. 코스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역사적 흔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Yeomhagang River Barded-wire Fence Trail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yeonghwa-Nuri Trail, with beautiful scenery, great tourist spots, and remnants of history along the barbed path.

구분	거리 (km)	소요 시간 (mins)
대명항 (Daemyeonghang Port) - 덕포진 (Deokpojin Fort)	1.4	30
덕포진 (Deokpojin Fort) - 원머루나루 (Wonmeoru Quay)	7.2	120
원머루나루 (Wonmeoru Quay) - 김포씨사이드C.C (Gimpo Seaside C.C)	1.6	30
김포씨사이드C.C (Gimpo Seaside C.C) - 문수산성 (Munsusanseong Fortress)	3.8	60
총 거리	14.0	240

평화누리길 제1코스 (김포시청 누리집 내용 부분 수정)

글 박경신

송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길 <하>

이동화

7년 전, 왜 세월호는 침몰했는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사고로 어이없는 때죽음을 당했다. 이른바 ‘세월호 참사’.

왜 침몰했는지, 왜 못 구했는지, 아직 모른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내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라는 숙제를 남긴 ‘세월호 참사’를 <상>, <하>로 나눠서 연재한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

아직 모른다. 7년이 지났는데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미궁 속에 있다. 세월호가 왜 급격히 우선회를 했는지, 조타 과실 때문인지, 기계 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외력 때문인지, 왜 왼쪽으로 넘어갔는지, 왜 그렇게 빨리 침몰했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

다음은 2014년 10월 6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이다. 복원성 저하, 조타 과실과 황경사, 고박 불량으로 생긴 화물 쏠림, 침수와 전복 등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것이다.

세월호는 ①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사고 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관계 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에서, ⑤사고 해역 통과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 과실이 더하여 침몰에 이르게 됨.

이어 민간 전문가 자문단, 해양안전심판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감사원 등이 발표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다.

즉, 증개축 과정에서 세월호의 복원성이 저하되었고, 그 상태에서 선원이 대각도 조타를 했으며, 대각도 조타로 세월호가 급격히 우선회 했고, 급격히 우선회 한 결과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었고, 그때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화물이 왼쪽으로 쏠려 세월호는 더 기울었으며, 그렇게 기우는 과정에서 침수가 발생해 최종 전복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원 재판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증개축 과정에서 복원성 저하, 과적, 고박불량, 대각도 조타는 인정했지만, ‘차량 고박에 관한 과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이어진 선원 재판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예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확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병희(2015)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성장지상주의에 가려져 있던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①선령 21년의 세월호는 어떻게 운항될 수 있었나 ②과적 과 정비 부실 등 운용상의 문제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나 ③ 학생들은 왜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나 ④유병언 일가는 어떻게 비정상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었나 ⑤선원들은 왜 비양심적으로 행동했나 ⑥승객은 왜 정상적인 안전교육을 요구하지 않았나 ⑦해경은 왜 정상적인 모니터링과 구조활동을 할 수 없었나 ⑧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가 ⑨보고지휘체계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했나 ⑩‘관피아’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⑪진상규명은 왜 더디기만 한가 ⑫왜 그렇게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나 ⑬유족들은 왜 전면에 나서는가

대형사고와 재난은 왜 반복하고 있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재난, 그 배후에 있는 시스템을 개혁했는가.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불완전함인가. 재난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가. 사회적 취약성은 무엇인가. 위협의 불평등 문제는 없는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안녕한가. 꼼꼼히 되짚어야겠다. 여전히 꼼꼼한 참사가 일어나는 위험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2 세월호’ 참사를 멈춰 세워야 한다.

단원고 학생들의 구조 메시지

세월호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상황을 알리며 구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응답은 더뎠다. 사고 순간부터 침몰할 때까지 101분 동안 아무도 배에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구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10시 17분 ‘지금 더 기울어’라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물에서 지켜본 국민은 그저 탄식했다.

“아이고, 사람들 더 있는데 어짜까?”

다음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친구, 지인 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임의로 정리, 재구성한 내용이다.

08:58~10:17

- 여기 배가 기울어져가지고 다 한쪽으로 기울어졌어
- 계속 가만히 있으래
- 우리는 지금 배 30도 기울어 물건 다 떨어지고
- 우리 가만히 대기 중 바다에 잠길 뻔
- 존나 방송으로 말하는데 배 졸라 위험한데
- 애들아, 우리 배가 전복하기 직전이야, 잘 지내

*9시 6분 33초 안내방송

“선내 단원고 학생 여러분 및 승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구명동의를 착용가능한 승객분들께서는 구명동의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빠 배가 갑자기 너무 많이 기울어서 우리 위험한 거 같아
- 애들아 나 죽을지도 몰라
- π
- 아 존나 무섭다
- 배에 있던 화물들 바다로 다 떨어지고 난리 남
- 미친 지금 전기도 나감
- 저 지금 방안에 살아 있어요
- 움직이지 말래
- 네, 빨리 구조되서 갈게요
- 저희 배에 있어요. 몰라요. 구조해준다는데
- 아직 객실이요
- 아빠 걱정하지 마 구명조끼 입고 난간 잡고 애들 다 뭉쳐 있으니 배 안이야 아직 복도
- 저 지금 방안에 살아 있어요
- 몰라요, 구조해준다는데.
- 엄마, 나 지금 배 안인데 배가 90% 정도 기울어졌어. 지금



구조하려고 헬기 왔는데 너무 무서워
- 엄마 아빠...배가 많이 기울어졌어요ㅠㅠ

이때라도, 누군가, ‘퇴선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당시 바다 수온은 12.6도였다. 해경의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10도에서 15도 사이의 수온인 경우, 물에 빠진 사람이 생존 가능한 시간은 6시간이다.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 바다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용구 변호사는 ‘2017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및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자고 세월호 승객을 버렸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1차적으로 이들에게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승객들 바다로 뛰어내려’, ‘전원구조’, ‘지금 전원이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거짓이고, 오보였다. 언론은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었다.

언론은 참사 당일 뉴스 특보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12분경 KBS는 ‘선내 방송 “침몰 임박…탑승객 바다로 뛰어내려야”, 오전 10시 13분 MBC는 ‘선내 방송 “승객들 바다로 뛰어내려”’ 등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보도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넘었을 때는 세월호가 침수되어 가라앉는 시간이다. 그리고 선내 방송에서도 탈출 지시는 없었다. ‘거짓 보도’였다.

여기다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당일 오전 11시 1~3분 사이에 경쟁하듯 내보냈다. MBN, MBC, SBS, YTN 순이었다. 이는 현장 취재도 하지 않고 전언에 의지해서 보도한 엉터리 속도경쟁 때문이었다. 여기에 구조 인원을 부풀리고, 선내 진입이라는 사실이 아닌 자극적 보도를 내보냈다.

사고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찾았는데, 유가족과 시민들이 더딘 구조작업 등을 강력 항의했다. 그런데 유가족이 외치는 항의 소리는 사라지고 환영 박수 소리만 들리는 현장 상황을 보도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행태에 유가족은 물론 국민 전체가 분통을 터트렸다. 가족과 국민을 희망 고문한 것이다. 다음은 유가족

이 남긴 이야기다.

“아휴, 전원구조 보도죠. 그때 학교 조금 있으니까 강당에 전원구조 자막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하고 다시 회사에 갔죠. 지금도 너무 한이 되고, 전원구조 보도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보와 편파 보도를 한 언론사에 ‘권고’,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 오보 이후, 언론 전문가와 언론 단체들은 보고서, 논문을 통해서 속보경쟁으로 혼탁해진 언론 시장, 부실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본의 한 축이 된 언론의 민낯이 드러난 현장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고 진단했다.

세월호 오보는 사실 보도와 진실 보도라는 언론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는 계기였다. 이후, 언론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대통령(세월호)의 7시간

구조 골든타임 놓친 ‘승, 객, 을, 구, 하, 라’는 지시

‘청와대는 뭘 했다.’ 언제 어떻게 세월호 침몰 사실을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가.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국민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직무수행을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7시간’은 국민적 관심사다.

‘대통령의 7시간’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고, 첫 지시를 내린 오전 10시 15분부터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 15분 사이를 말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되어 대규모 피해가 생기거나 예견되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상황의 중대성 및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대응이 현저히 불성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즉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과정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 의무를 규정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다. 대통령은 304명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법률을 위

반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는 일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7시간'을 되짚어본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119 상황실로 최초 신고가 들어왔다. 승객 476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다. 119는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해경에게 다시 연락해 3차 통화를 시도했다. 해경은 8시 54분 최초로 사고를 인지했다. 9시 34분 해경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다. 10시 17분 배의 갑판이 완전히 물속에 가라앉았다(180도 전복). 그리고 10시 21분 마지막 생존자가 발견되고 나서, 11시 18분 세월호는 승객 304명을 삼킨 채 선수만 남기고 완전히 침몰했다.

청와대는 9시 19분부터 해경과의 핫라인을 통해 비상상황이 벌어지고 현장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10시 17분 이전, 이미 구조의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중 아무도 '승, 객, 을, 구, 하, 라', '퇴, 선, 을, 지, 시, 하, 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은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나타나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에서 전화로 총 여섯 번 지시를 내렸다. 오전 10시 반까지 10시 15분, 22분, 30분 그렇게 세 차례 지시했다. 두 번은 국가안보실장에게, 나머지 한 번은 해경청장에게 내린 지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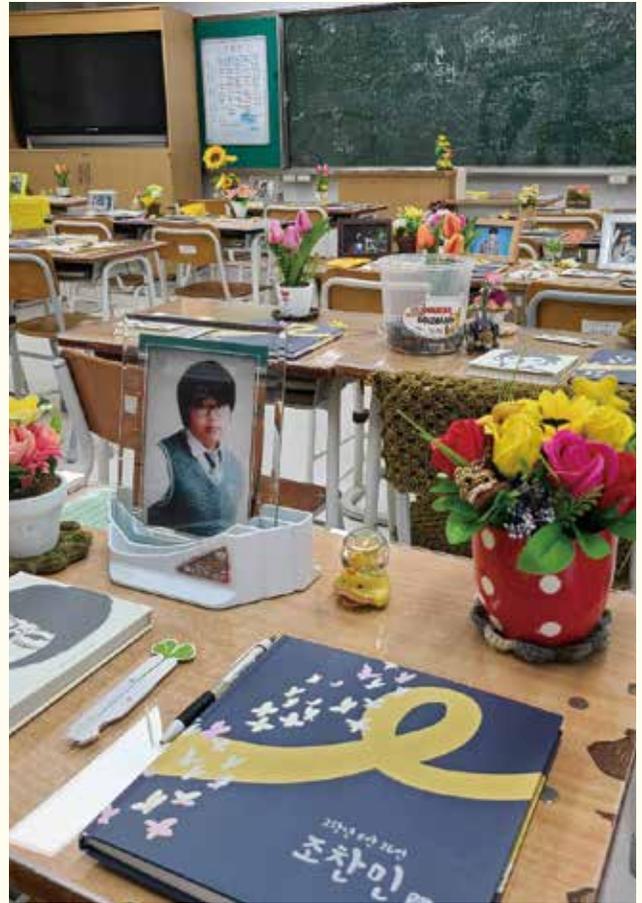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10시 30분쯤 해경청장에게는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판단했기에 가능한 지시였지만, 이후 오후 2시 11분까지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경이 사고를 인지한 시간은 8시 54분이고, 10시 경은 이미 사태가 악화되어 손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다. 본관 집무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에야, 당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났다. 관저에서 차로 5분 거리다. 그러니까, 전화 지시 이후 7시간이 지나야 사고 지휘 현장을 찾은 것이다.

중대본을 찾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는 말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습니까?”(박근혜 대통령)



“간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간혀 있으니까…”(박근혜 대통령)

검찰발표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의 골든타임 동안 청와대 관저의 침실에 있었다. 전화도 계속 안 받아서 안봉근 비서관이 침실 앞에서 “대통령님!”하고 여러 번 부른 뒤에야 얼굴을 내밀었다고 한다. 바로 그 시각(10시 20분) 세월호에서는 마지막 생존자가 민간 어선에 의해 건져 올려지는 중이었다. 보트 위에 올라온 그 생존자는 울부짖었다.

“아직 친구들이 배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글 이동화

1960년 전라남도 작은 섬 소안도에서 태어났다. 대학을 졸업 후 기자 생활을 시작하여, 평생 언론계에 종사하다 최근 퇴직하였다. 인천일보 문화부 기자 때 '경기도 600년, 천년을 내다본다'라는 제목의 긴 기획·연재를 했고, 이를 엮어 <이야기 京畿 600년, 경기는 명당(明堂)이다>를 발간한 것을 인연으로, 경기도와 인천의 역사·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집필을 해 나가고 있다.

책과 논문으로 경기도를 읽다

『도시의 두 얼굴 -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채미하



- 7장 1971년 8월 10일,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가?
- '8.10 성남 민권운동'의 실상
- 8장 이주정착지에서 성남시로 - 광주대단지의 향방
- 9장 누가 왜 수도권 신도시를 조성했나? - 분당 신도시의 탄생
- 10장 중산층 신도시 만들기
- 11장 다시 중산층 신도시를 조성하라 - 판교 신도시의 탄생
- 12장 그들만의 개발이익 - 토건개발족과 개발주의
- 13장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 - 토건개발족과 저항자
- 14장 떠난 자와 남은 자 - 신도시 원주민 생존기
- 15장 신도시 이주원주민의 탄생과 진화
- 수도권 신도시에 남겨진 과제

들어가며

『도시의 두 얼굴-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은 경기도 신도시를 종합적으로 다룬 경기문화재단의 ‘경기그레이트북스’ 27번째 책이다. 경기도만의 공간 특성과 특유의 장소성에 착안하면서 경기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꾸준히 탐색해 온 경기문화재단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도 불린 ‘8.10 성남 민권운동’ 50주년을 맞아 이 책을 기획하고 발간하였다. 총 544쪽으로, 2021년 7월 23일에 발행된 본서는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1장 한국 신도시의 한 원형을 찾아서 - 성남지역 신도시의 유산
- 2장 누가 왜 광주대단지를 조성했나?
- 3장 광주대단지가 성남으로 간 까닭은?
- 4장 산과 골에 짓는 도시 - 서울시의 무리한 이주정책
- 5장 성남시민 1세대, 그들은 광주대단지에서 어떻게 살았나?
- 6장 부동산투기장이 된 광주대단지

경기도 신도시와 성남

본서는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진화를 탐색하면서 한국 신도시 건설과 도시화의 명암이 집약된 경기도 신도시로 성남을 꼽았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한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신도시의 이후의 안산시와 과천시, 1990년대 전반기에 지은 분당을 비롯해 고양시의 일산, 안양시의 평촌, 군포시의 산본, 부천시의 중동 수도권 1기 신도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건설한 판교를 비롯해 화성시의 동탄, 수원시의 광교, 김포시의 한강, 파주시의 운정, 성남시·하남시·서울시의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위례 등 수도권 9개 지역에 들어선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다.

현대의 신都市는 특정한 집단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비교적 단시일 내에 조성한 계획도시이다. 한국의 신都市는 수만 세대 수십만 인구가 살아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구상에 서부터 공사와 입주까지 신도시 건설 전체가 불과 수년 만에 이루어져 그 졸속성이 비판받고 있다.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역시 그러하다고 필자는 말한다. 그리고 경기도 신도시 대부분은

수도 서울의 인구 과밀과 주택 문제, 부동산가격 급등과 투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입안되고 추진된 측면이 강해 서울지역과의 관계성이 그 어느 도시보다 긴밀하며 영향력이 크다. 게다가 반월 신공업도시라 불린 안산시와 같은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대부분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아니라 베드타운(bed town) 성격이 강한 도시로 설계되고 개발되었다. 때문에 신도시 조성 초창기에는 서울지역이나 모도시(母都市)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입주민의 대다수였고, 침상(沈床) 도시의 성격이 강했으므로 신도시 자체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었다.

서울 철거민의 강제이주로 시작된 성남시는 광주대단지가 조성된 약 20년 뒤에 큰 전환을 맞는다. 성남 원도시 남쪽 지역에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선두주자격인 분당 신도시가 1989년에서 1990년대 전반기에 걸쳐 건설되면서 도심이 이원화하고 인구가 급증한다. 특히 분당은 성남 원도시와 달리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중산층의 도시로 출발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의 강남”,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으며 분당만의 신도시 정체성을 만들고 위상을 높여나갔다.

2000년대에 들어와 성남 원도시와 분당 신도시 사이에는 또 하나의 중산층 거주지이자 수도권 2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판교 신도시가 들어섰다. 판교 신도시는 분당과 접해 있고 서울 강남과의 접근이 용이했으며 저밀도의 주택단지이자 공원과 녹지의 비중이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환경 친화적 시가지로 개발됐다.

성남은 2009년 판교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정구와 중원구의 원도시 지역과 분당구에 속한 분당과 판교 두 신도시를 거느린 경기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했다. 서울이라는 중앙으로부터 배제돼 소외의 시선을 받았던 위성도시 성남은 인구 94만에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3조 원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광주대단지와 ‘8.10 성남 민권운동’

성남의 뿌리인 광주대단지 조성은 196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구집중과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1968년 서울시는 지금의 성남 원도시 지역인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원 300만 평(991만 7355㎡)의 땅에 주거단지를 조성해 서울의 철거민을 이주시키자는 계획을 추진했고 1968년에서 1970년까지 3년에 걸친 이주 대상 계획인구는 10만 가구 55만 명 선이었다. 이른바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은 1960년대 들어 서울 시내에 급격하게 증가한 무허가관자촌을 헐어내고 철거민을 서울 외부로 이주시키

는 도시정비사업의 하나였다. 사업 주체는 서울시였지만, 최고 권력자의 관심을 받는 사실상의 정부정책이었다.

하지만 당시 광주대단지에는 주거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당수의 주민이 천막이나 임시판잣집에 살며 빈곤에 시달렸다. 서울의 무허가판잣집 철거에만 급급했지 대단지 이주 뒤의 주민 생계와 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광주대단지 주민은 서울이라는 중앙에서 배제돼 주거지로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땅으로 내몰린 버려진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이주민 5만여명은 1971년 8월 10일 무분별한 졸속행정에 항의하며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촉구한 대규모 집단 시위를 하였다.

5만여 명에 이르는 주민이 거리로 뛰어나와 시가지를 점령하며 과도한 분양지 대금과 무리한 세금 징수 등 부당한 행정조치를 시정하고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당시 시민들은 “배가 고파 못 살겠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과 충돌을 벌이면서 출장소와 관용차·경찰차를 불태우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광주대단지 전역을 장악했다. 서울시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8.10 성남 민권운동’은 생존권 차원의 절박한 외침이자 시위였는데도, 정부와 언론은 이를 불순한 폭동이자 한 지역을 불법 점거한 소요 내지 난동으로 몰아갔다. 이날 시위에서 폭력행위라 부를 수 있는 건 차량 탈취와 훼손, 관공서 서류 소실과 비품 손괴, 10명 정도의 경상자가 전부였다. 5만여 명이 참가한 시위 규모에 비하면 실제 폭력행위는 미미했으며, 시위의 양상이 폭동이나 난동으로 불릴만하지 않았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초창기 성남은 한국 초기 산업화와 근대화의 급격한 변동 양상과 그에 따른 폐해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한 주거권 무시와 폭압적 도시행정, 인권유린과 생존권 박탈에 대해 주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8.10 성남 민권운동’이라는 생존권 투쟁을 벌였으며, 이후 척박한 환경을 딛고 주거지와 시가지를 하나하나 쌓아나갔다.

신도시의 명(明)과 암(暗), 원주민과 이주민

본서는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신도시는 한국 현대사회 도시화의 명암이 집약된 곳이라고 하였다. 경기도 내 신도시는 1970년대를 전후한 초기 산업화에서 1990년대 후기 산업화를 거쳐 2000년대 지식정보 산업화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회의

산업화 추세와 근대화의 양상이 반영된 곳이다. 1990년대의 분당 신도시 건설은 후기 산업화시대를 대표하는 수도권 1기 도시의 핵심 사업이었다. 세계무대로 도약한 한국 산업화의 결실이 토목학과 건축기술을 앞세운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동력으로 집약돼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이른 판교 신도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지식정보 산업화 시대를 여는 포문이었다. 도시 시설과 주거환경 조성에 최첨단 지식정보기술이 동원됐으며, 신시가지 구역에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콘텐츠기술·나노기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신도시의 자축성 강화를 꾀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와 벤처타운은 수도권권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맞물려 있어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신도시 조성사업은 대규모 주택단지와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건설로 주거생활 수준을 높였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개발 광풍 아래 행해진 정치권력과 개발자본의 결탁이라는 밀실야합과 부패의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실제로 삶을 영위할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과 정치권력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도시조성계획이 이뤄졌으며,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서둘러 개발을 추진했다. 개발비용을 지대차익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건설은 줄속으로 시행됐으며 잦은 부실공사를 동반했다. 일방적인 도시행정에 따른 주거권 무시는 물론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도시건설 추진에 따른 생존권 훼손도 다반사였다. 그리고 갖가지 문제가 일어났다. 단기간의 신도시 건설과 전면적인 개발로 인한 파행적 도시공간 출현, 시가지 공간구조의 왜곡된 팽창과 비합리적인 사회간접시설 조성, 교통난과 환경생태 문제, 지가(地價)와 주택가격의 심각한 불균형, 도시 내부의 신규 도심간 불균등발전, 공간적 경계이면서 문화적 경계로 이분화 된 분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장벽, 개발 지상주의에 놀려 ‘마을 공동체’와 ‘나누는 삶의 양식’이라는 오래된 가치의 소멸, 원주민 축출 등등.

한편 본서는 신도시가 들어선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원주민은 개발에 어떻게 대처했으며 신도시에 살게 된 주민은 어떻게 낯선 이주지를 정착지로 만들어나가고자 했는지를 돌아보았다. 14장 ‘떠난 자와 남은 자 - 신도시 원주민 생존기’와 15장 ‘신도시 이주원주민의 탄생과 진화 - 수도권 신도시에 남겨진 과제’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네

번의 신도시 건설을 통해 확장하고 성장한 성남은 성남시 내부에서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의 벽을 만들어 냈다. 서울 강남의 확장이라는 성격이 강해 “강남 5구”, “준강남”으로 회자되는 분당 지역의 주민 다수는 철거민의 이주지인 광주대단지 유산이 남아 있는 성남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고 중산층이 사는 쾌적한 도시라는 자기들만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갖고자 했다. 이들은 “성남에 거주한다”고 하지 않고 “분당 신도시에 거주한다”고 했으며, 성남시민이 아니라 분당시민으로 불리길 원했다. 도시 내 지역 이질화와 차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판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판교주민과 분당주민 사이에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나가며

경기도는 신도시 탄생과 그 성장이라는 국가 단위의 도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본서에서 살핀 경기도의 도시 성장과 공간 개발에 대한 재조명과 분석은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요체와 함께 한국 현대도시사(現代都市史)의 명암을 바라볼 수 있는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인식 틀을 제공한다. 필자 조운민은 20년 동안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하다가 2013년 『성(城)과 왕국』을 출간하였고, 이후 지배와 저항이라는 인식틀로 『두 얼굴의 조선사』, 『모멸의 조선사』, 『조선에 반反하다』, 『문화유산의 두 얼굴』을 펴냈다. 이들 저서는 빼앗긴 자·밀려난 이·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다. 필자는 본서의 책머리에서 경기지역 신도시 건설이 가져온 공과(功過)·명암(明暗)·희비(喜悲)에서 과(過)·암(暗)·비(悲)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본서는 앞서 펴낸 필자의 저서와 맥을 같이 한다. 필자는 본서를 통해 지난 시기의 신도시 건설에서 드러난 오관과 실책을 되짚어, 더 나은 미래의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 재미하

경희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고대 국가제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례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고려·조선과 비교 연구하고 있다.

RESEARCH & STUDY

공간과 역사

포천 '남북교역 시장'의 추억과 '새 희망 마을'

문화유적

여주 신륵사와 해인사 고려대장경 -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기전의 고문서

이천시 고백리 풍천임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

조선의 신이 된 관우, 경기도 분원리에서도 좌정했었다

학예연구사 코너

풍악산에 견주던 경승, 한탄강(漢灘江)
의왕시, 의왕향토사료관 그리고 소장 문화재

논고

경기도 지역 석탑의 전개과정과 조영 특징

포천 ‘남북교역 시장’의 추억과 ‘새 희망 마을’

양훈도

38선도 막지 못한 유무상통이라는 순리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1948년 축조되었다고 알려진 방어용 병커가 있다. 도로명 주소로는 포천시 청신로 1815-15(신북면)이다. 기지리 방어 병커는 도로변 낮은 구릉에 마치 분묘처럼 솟아 있다. 당시 포천 일대에 조성된 방어 진지 4곳 가운데 이곳만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외형을 보면 이 병커가 파괴되지 않은 이유가 단박 이해된다. 90c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원형 철근이 드러나 있다. 1분대 병력은 넉넉히 들어가, 탁 트인 포천평야를 감시하며 치열한 전투를 벌여도 끄떡없게 생겼다.

왜 이 병커는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을까? 포연 속에 사라진 세 곳도 같은 양식이었을까? 그럴 리 없다. 그랬다면 그 병커들도 남아 있어야 상식에 맞는다. 기록을 종합해 보면, 1948년 갓 창설된 한국군은 철근콘크리트 방어진지를 여러 개 만들 여력이 없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점 한국 정도만이라도 철옹성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

남북은 전쟁 이전인 1948년 하반기부터 격렬하게 충돌한다. 연 500회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인민군이 의정부까지 밀고 내려온 적도 있고, 국군이 황해도 웅진반도로 진격한 일도 있다. 이 와중에 포천 쪽은 방어에 불리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쪽인 파주나 김포 쪽은 바다와 임진강 등 자연적 방어선이 존재했다. 하지만 연천·포천 방면은 그런 지형지물이 없다. 따라서 방어하려면 기지리 병커 같은 요새가 절실했다.

막상 개전이 되자 포천-양주-의정부 방어선은 쉽게 뚫렸다. 1950년 6월 25일 기지리 방어 병커와 같은 진지가 인민군 예상 진격로를 따라 여러 개 있었다면 전황이 달라졌을까? 인민군의 화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사실은 훗날에 가서야 밝혀졌다. 정전협정이 발효되고 38선을 대체한 군사분계선이 38선보다 훨씬 북쪽으로 설정되자, 기지리 병커의 군사적 용도는 점차 사라졌다. 무속인들이 가끔 곳을 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인근 동리 어린이들의 전쟁 놀이터 구실도 하다가, 2013년에야 겨우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쟁유적으로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 578호로 지정되었다.

신북면 기지리는 남과 북을 나눈 38선이 지나가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서 남쪽으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얼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흥미롭게도 한쪽에서는 방어진지 구축에 힘쓰는 동안 영중면 양문리 일대에서는 남북교역시장이 열렸다. 미군과 소련군의 합의로 열린 양문리 시장은 1947년 5월 22일부터 1949년 3월 31일까지 2년 가까이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

<연천군지> 기록에 따르면 양문리 시장에서 북쪽 상인들(주로 연천 상인)은 카바이트와 북어 오징어 등 원산과 안면 등지에서 오는 해산물을 가져와 남쪽의 의약품 비누 고무신 라이터 전기용품 광목 등과 물물교환 형식으로 바꾸었다. 교역 목록이 말해주듯이, 타의에 의해 38선은 그어졌어도,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은 여전히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물건들을 시장에서 손에 넣어야 했다. 남과 북의 점령군들도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자연스러운 유무상통(有無相通)이다. 무릇 접경(接境)이란 그런 곳이고,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기지리 방어 병커

시장 폐쇄되고 1년여 만에 전쟁 발발



포천군 기지리 양문리 수입리 일대

양문리에서 남북교역시장이 서던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탄강의 지류 영평천을 넘어가는 영중교 근처가 아니었을까 추정할 따름이다. 현재 영중교 남단엔 ‘38선휴게소’가 있고, 다리 건너엔 ‘광명휴게소’가 있다. 이렇게 추측한 이유는 영중면과 경계를 맞댄 동쪽 일동면과 이동면의 남북교역도 삼팔교라는 다리가 물물교환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38선은 하나의 생활권이던 당시 일동면과 이동면을 갈라놓았다. 영중면 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창수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엔 영평군에 속해 있었다. 어쨌거나, 포천 땅이 된 뒤에도 일동면과 이동면은 영평천을 사이에 두고 왕래하는 이웃 면이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38선이 그어지자 일동면 수입리는 남쪽 땅, 이동면 노곡리는 북쪽 땅이 되었다. 두 동네를 연결하는 다리가 영평천의 평촌교(삼팔교의 당시 명칭)다.

초기 38선은 국경이 아니라 미소 양국군의 점령 편의를 위한 경계에 불과했다. 38선 이쪽저쪽에 사는 주민들은 친척 만나러 가고, 제사 지내러 오며 살았다. 하지만 점차 왕래는 힘들어졌다. 북한에서 1947년 화폐개혁을 단행한 탓에, 남북의 화폐가 달라지면서, 어찌어찌 이어지던 경제적 교류도 끊길 위기가 닥쳤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동과 이동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해법을 찾았다. 평촌교에서 물물교환 시장을 정기적으로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덕에 평촌교라는 다리 이름은 남촌과 북촌으로 강제 분단된 현실을 상징하는 삼팔교로 바뀌었다 한다.

삼팔교 교역이 언제까지 성행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영중면 양문리 남북시장이 1949년 3월까지도 운영되었고,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이후에도 전쟁 전까지 거래가 이어졌다는 기록으

로 미루어, 삼팔교 시장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정할 따름이다. 38선이 베어버린, 사람 사는 곳 곳곳에서 이처럼 공식·비공식 교역의 공간이 열렸을 터이나, 곧이어 터진 전쟁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양문리 시장이든 삼팔교 시장이든 치열한 남북 첩보전의 현장이기도 했다. 양문리 시장에서 미군 45구경 권총이나 칼빈 소총을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해진다. 하지만 이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 대립이 격화되더라도 시장은 열어 생활을 이어가야 하듯이, 치열한 대결 시점에서도 상대와 접촉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어야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공식적인 남북교역시장이 폐쇄되고 1년여 뒤에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아닐까.

벌집처럼 총탄 세례를 받았어도 희망촌은 생겨나고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5월 미군 제7사단은 연천군 연천읍 상리 경원선 서쪽 별판에 주택단지 건설에 들어갔다. 가구당 330㎡ 부지에 건축면적 59.4㎡인 목조 가옥 1백 동을 건립해 피란민을 수용하기 위해서였다. 미군은 주택단지를 신망리(新望里)라 불렀다. 영어로는 ‘New Hope County’다. (종래에는 ‘New Hope Town’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일부 마을 원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New Hope County’라는 아치가 마을 입구에서 있었다는 구술 연구가 있다.)

하여튼 연천읍 상리라는 공식 행정구역명보다 신망리가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마을에서 멀지 않은 경원선 역명도 훗날 ‘신망리역’이라 명명되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1954년 시점에서 연천군이라는 지명은 아직 공식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1945년 38선 획정으로 과거의 연천군은 군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 적성면·전곡면과 백학면 일부 등 38선 남쪽에 남은 연천 땅은 파주군 관할로 넘어갔다. (그 영향으로 적성면은 오늘날에도 파주군 적성면이다.) 그로부터 연천군이라는 이름을 되찾기까지 무려 9년 넘게 걸렸다.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연천 일대 땅을 다시 찾긴 했으나, 연천군이라는 이름을 회복한 것은 1954년 11월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직법’이 시행되고 나서였다. 휴전부터 1954년 11월까지의 UN군(미 7사단)이 군정을 실시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연천 말고도 38선 때문에 사라진 경기도의 군은 또 있다. 장단군이다. 38선으로 인해 장단군은 10개 면 가운데 5개면은 남, 5개면은 북에 속하게 되었다. 남에서는 장단군의 38 이남 지역을 파주 등으로 편입시켜 버렸고, 북에서는 38 이북 장단 지역과 개풍군 일부를 합해 장풍군이라는 새로운 군을 설정했다. 예로부터 ‘장연대두(長漣大豆)’라는 말이 있을



장단면사무소 (사진출처 | 문화재청)

정도로 질 좋은 콩과 곡식이 풍성하던 장단과 연천은 나란히 분단의 직격탄을 맞았다.

장단군의 중심지는 장단면이다. 끊어진 경의선의 남한 쪽 최북방 역인 도라산역과 동장리 장단면사무소 건물(국가등록문화재 제 76호)로 유명한 지역이다. 도라산역이 위치한 도라산리는 옛 장단군의 중심지였다. 장단군 장단면은 남쪽을 돌아나가는 임진강 덕분에 비옥한 평야를 끼고 있었다. 물산이 풍부한 교통요지였기에 1934년 일개 면사무소를 전국적으로 소문난 건물로 지어 올릴 수 있었을 터이다.



장단역증기기관차 (사진출처 | 문화재청)

전쟁 중에 장단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임진각 장단역증기기관차(국가등록문화재 제77호)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증기기관차는 1950년 12월 북쪽 전방으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개성역을 출발해 올라가다가 중공군에 밀려 장단역까지 남하해야 했다. 그런데 장단역 근처에서 후퇴하는 미군의 공격으로 기관차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미군은 아군 물자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기관차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장단역에서 녹슬고 있던 증기기관차는 2009년 임진각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앞으로 옮겨와 전시되고 있다. 오늘날 장단면은 민간이 살 수 없는 군사구역이다.

미군이 세운 신망리 이야기로 되돌아 가보자. 미군이 새 희망 마을 건설을 서두른 이유는 피란민들 때문이다. 연천읍은 북한 땅이었다가 남한 땅이 된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은데다, 군사분계선이 지척인 최전방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피란 갔던 사람들이 고향 근처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와 있었다. 피란민들은 경원선 철로 변을 따라 천막을 치거나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다. 미군 입장에서는 일단 전혀 다른 체제에 살던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고, 학교(상리초등학교) 세우는 일을 서둘러 ‘수복지구’가 더 살기 좋은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터이다.

세월이 70년 가까이 흐르면서, 신망리 주택 1백동 가운데 원래 모습을 간직한 집은 단 한 채도 없다. 그래도 고향 애착이 강하

기로 소문난 연천 사람들답게 신망리 사람들 상당수가 대를 이어 연천을 지키고 있다. 2021년 2월 문을 연 마을박물관은 낙후와 소외라는 굴레 속에서도 삶을 이어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전하려는 공간이다.



신망리 마을박물관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던데...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과 북 각각 2km는 비무장지대다. 남쪽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약 5~20km 남방에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이 설정되었다. 민통선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출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통선 남방으로 약 20km 지점에는 접경지역 남방한계선이 설정되어 있다. 이 한계선은 2000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이 한계선 내에 있는 지역 가운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 분단과 전쟁 이후 적과 마주한 최전방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접경지역지원법이다.

이 법에 따른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현재 7개 시·군 46개 읍·면·동에 이른다. 연천군의 경우 2읍8면 전역이 접경지역이고, 파주시는 도시화된 동지역을 제외한 3읍10면, 포천시는 6개면, 양주시는 5개면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지명을 보면, 연천군의 연천읍 전곡읍 장남면 백학면, 포천시의 영북면 영중면 이

동면, 파주시의 적성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양주군 남면 등 위에서 언급했던 지역 상당수가 접경지역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개군 1읍16면, 강원도는 6개시·군 9읍26면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접경지역지원법은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 되어 법률명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2021년 4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2000년보다 단순해졌다. 종전 법에서는 읍·면·동으로 세분하여 접경지역으로 규정하던 방식에서 시·군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46개 읍·면·동이 아니라 이들 읍·면·동을 포함한 7개 시·군(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이다.

북한에도 우리의 접경지역에 준하는 지역이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2km 북방까지 비무장지대인 것은 마찬가지고, 그 북쪽으로 18km가 당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외지인 출입이 불가한 여행금지구역이다. 경기도와 접한 북한의 여행금지구역은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와 장풍군·개풍군이다. 개성의 경우 1955년 개성시에 판문군·개풍군·장풍군을 포함시켜 직할시로 설정했다가, 2002년 판문군을 폐지하는 한편 장풍군과 개풍군을 별도의 군으로 황해북도에 이관했고, 개성시 역시 황해북도 산하의 특급시로 개편했다.

북한의 조치에서 2002년이라는 시점이 주목된다. 남북이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합의(2000년)했고, 2003년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가기로 했던 해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개성을 경공업도시로 공들여 발전시키려고 애썼다. 그러하기에 공업지구 시범단지 착공을 앞두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까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고 싶었던 듯하다. 어쨌거나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서 잘 돌아가던 개성공업지구는 2010년대 들어 뼈격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16년 완전히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접경은 경계 이쪽과 저쪽이 만나 유무상통하고, 문화접변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유독 한국의 접경은 일촉즉발의 위기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를 1940년대 후반 포천 양문리 시장처럼 계속 열어두었으면 어땠을까? 남쪽의 접경지역도, 북쪽의 여행금지구역도 서서히 꽃이 피는 경계로 변해가지 않았을까? 혹시 이제라도 늦지 않은 건 아닐까?

글 양훈도

경인일보에 24년 간 재직했다. 기자 생활 그만두고 늦깎이로 북한학을 전공했으나, 기자 시절 경기도를 돌아다니며 지역 르포를 쓴 경험 덕분에 경기도 생활사에 관심이 많다. 근대문화 흔적들이 품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 신륵사와 해인사 고려대장경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

조경철

여주 봉미산 자락의 신륵사는 강 옆에 자리 잡은 절이다. 절이 바로 여강과 닿아있다. 여강은 여주 지방을 흐르는 남한강을 말한다. 강과 바로 맞닿은 절로 옛날 백제 때 백마강 옆 왕흥사가 있었다. 강 건너편에 위치한 절은 마치 뗏목을 타고 건너 온 피안(彼岸)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속세를 떠나 부처님 나라에 들어온 듯한 위안을 준다.

신륵사가 언제 세워진 절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원효가 창건했다고 전하기도 하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신륵사에 남아있는 유물로 추정할 때 고려시대 창건된 절로 추정된다.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신륵사 다층전탑이다. 벽돌로 만든 이 탑이 너무 유명해서 흔히 벽돌 벽자를 써서 벽사(壁寺) 또는 벽절이라고도 불린다. 신륵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376년 나옹선사가 이 절에서 입적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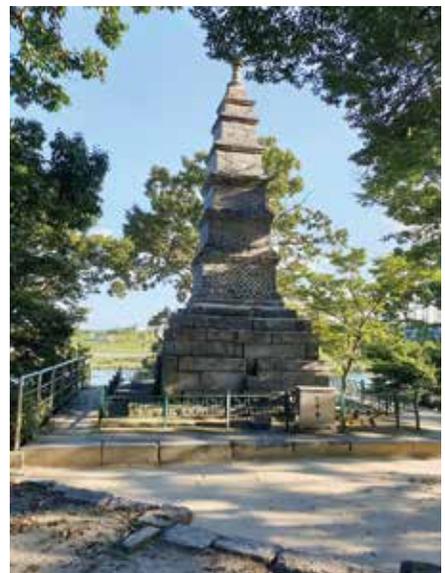
신륵사(神勒寺)란 절 이름은 특이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절 이름이 아니다. 신(神)은 절이름에 흔히 쓰이고 륵(勒)은 ‘미륵사’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신+륵’의 ‘신륵사’란 절 이름은 그 유래를 알기 어렵다. 륵을 미륵의 줄임말로 보고 ‘신령한 미륵의 절’로 풀 수도 있는데 신륵사와 미륵이 연결된 유물이나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륵(勒)에는 ‘굴레, 재갈, 재갈을 물리다, 통제하다’라는 뜻도 있다. 굴레를 씌어 통제하는 대상은 여강의 용이나 말이다. 둘을 합쳐서 용마라고 한다. 여강은 비가 한번 오면 쉽게 넘치기도 한다. 사람들은 여강에 사는 검은 여룡(驪龍)이 날뛰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여주(驪州)나 옛 이름 여흥(驪興)도 검은 용[말]이란 의미의 여(驪)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여룡을 억누르고 달랜다는 뜻에서 륵(勒)을 썼고 신령스럽다는 신(神)을 덧붙여 신륵이란 절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나옹선사가 여룡을 달랬다고 한다. 나옹은 고려 말 불교계를 이끌었던 승려였다. 양주 회암사에서 큰 법회를 열자 유학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를 모함했다. 나옹은 경상도 밀양 영원사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여주 신륵사에서 도중에 입적하였다.

신륵'이란 절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절 이름이 보은사(報恩寺)로 바뀌었다. 은혜에 보답한다는 절이다. 세종대왕의 은혜를 말한다. 여주에는 명성황후 생가 등 여러 역사유적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영릉 곧 세종



여강을 배경으로 신륵사 삼층석탑과 강월헌. 삼층석탑은 나옹이 다비한 곳에 세운 탑이고 강월헌은 나옹의 당호.



여강을 배경으로 신륵사 다층 전탑[벽돌탑]



나옹 혜근의 사리석종탑과 석등 그리고 사리석종비. 글은 목은 이색이 썼다.



신록사 극락보전 앞 대리석 다층석탑

대왕릉이다. 세종의 능은 원래 광주 대모산[현재 서울 서초구]에 있었는데 나중에 여주로 이장하였다. 이때 세종의 명복을 빌고 능에 소요될 물자를 제공했던 절이 신록사였다. 신록사 중심 전각인 극락보전 앞 조각이 화려한 대리석 다층석탑도 이 때를 전후하여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록사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도 많은데 앞서 소개했던 고려 시대의 나옹과 조선시대의 세종과 더불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함께 맞이한 유학자 목은 이색과 불교 승려 무학 자초도 있다. 목은 이색은 고려 말의 대유학자로 정몽주와 정도전 같은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정도전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운 일등공신이다. 이색은 고려를 지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조선 건국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나중에 지방을 떠돌던 이색을 태조 이성계가 불러들여 을해년(1395) ‘한산백’이란 작호를 내린 적이 있다. 그때의 정황을 <<태조실록>>에 나오는 이색의 졸기(卒記)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색이 말하였다.

“개국하던 날 어찌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만일 알렸다면 읍양(摺讓)하는 예를 베풀어서 그자리가 더욱 빛났을 것인데, 어찌 말장수[배극렴]로 하여금 추대의 앞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이를 듣고 있던 남은이 말하였다.

“어찌 그대 같은 썩은 선비에게 알리겠는가?”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성계는 남은을 꾸짖고 이색을 옛 친구의 예로 대접하여 중문까지 배웅하였다고 한다. <<태조실록>>에 이색을 썩은 선비, 곧 부유(腐儒)라는 글자를 남겼다는 것은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면서 이런 썩은 선비를 옛 친구의 정으로 따

뜻하게 맞이하고 배웅한 이성계의 인품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이듬해 병자년(1396) 5월 이색은 여주의 신록사로 피서를 떠났다가 도중에 병이 났고 신록사에 도착했을 때는 위중하여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록과 다른 내용을 전하는 기록도 있다. 이색의 먼 후손인 이기(1522~1600)의 <<송와잡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여흥 청심루 하루 연자탄에 도착하여 배안에서 공이 죽었는데, 공의 죽음을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였다. 대개 고려 왕씨의 자손이 배안에서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이 모두 정도전과 조준 등의 술책이었으므로 공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여러 사람의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애통하도다.”



목은 이색이 죽었다고 전하는 여주 연자탄의 청심루터(여주초등학교 뒤)

이색이 신륵사로 가는 도중 청심루 부근 연자탄에 도착하여 배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태조실록>>은 이색을 '부유'라고하여 깎아 내렸고 <<송와잡록>>에서는 이색의 죽음을 정도전과 조준 일파의 술책과 연결시키고 있다.

신륵사에서 죽음을 맞은 대표적인 인물 나옹과 이색은 모두 당시 불교계와 유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 모두 고려왕조를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둘은 공교롭게도 신륵사에서 모두 죽임을 맞이했고 그들의 죽음은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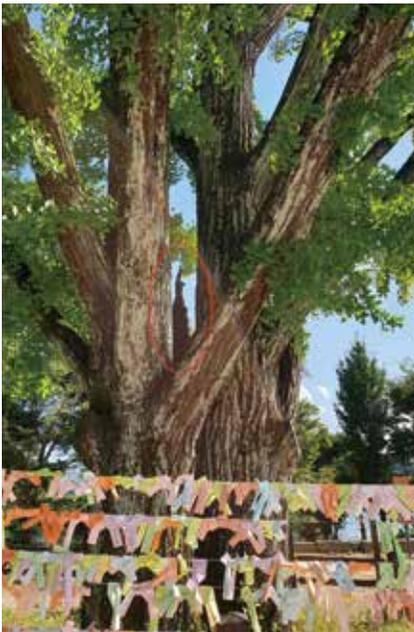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도우면서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지켜본 인물이다. 이성계가 불난 집에서 서까래 세 개를 지고 나왔다는 꿈을 장차 왕(王)이 될 꿈이라고 해몽을 했다고도 한다. 무학은 나옹의 제자이기도 했다. 신륵사에는 무학의 초상화를 모신 조사당(祖師堂)이란 전각이 있다. 조사당에는 무학과 나옹, 그리고 나옹의 스승인 인도 승려 지공 세 분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다.

신륵사에는 나옹 혜근과 관련된 유적도 많다. 조사당 위쪽에는 신륵사에서 입적한 나옹의 사리를 모신 석종 사리탑과 사리탑 앞 석등이 있다. 그리고 강가에 세워진 정자의 이름은 나옹의 당호를 따서 '강월헌(江月軒)'이라고 하였다. 강월헌 옆에는 불안정한 3층 석탑이 서 있는데 나옹스님을 화장한 곳에 세웠다고 한다. 신륵사의 아름답리 은행나무는 나옹이 심은 것이라고 전한다.

나옹과 이색의 인연은 이곳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 부터였다. 나옹은 1376년 이색은 1396년 죽었다. 이색은 나옹의 사리탑 옆에 세운 나옹존자사리탑비를 짓기도 하였다. 또한 이색은 아버지 이곡의 뜻을 이어받아 1381년 해인사의 대장경을 인출하여 신륵사에 보관하기도 했는데, 인출에서부터 보관까지 나옹 문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색이 대장경을 인쇄한 것은 공민왕과 부모님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지만 신륵사에 보관한 이유는 이곳에서 입적한 나옹을 기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신륵사에는 대장경을 보관했던 '대장각'이란 건물이 있었다. 지금은 그때 세웠던 '대장각비'만 남아있다. 대장각비의 글은 이색의 제자인 이승인이 지었다. 이색은 염홍방과 함께 각각 1부씩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했었다. 현재 둘 다 모두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선 태종이 1414년 일본에 신륵사 대장경을 준 적이 있고 현재 일본 대국대학에는 이색의 발문이 들어간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다. 아마도 대국대학의 대장경이 태종이 일본에 준 신륵사 대장경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색과 함께 1부를 더 인출한 염홍방의 대장경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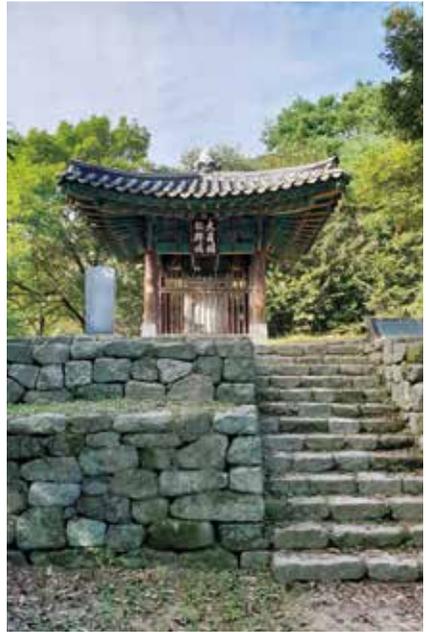
해인사의 대장경관은 일반적으로 조선 태조 때 강화도의 대장경관을 옮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 1398년 강화 선원사에서 대장경관을 실어 와서 지천사에 두었다고 했다. 이후 대장경관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듬해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있어 아마도 언젠가 지천사에서 해인사로 대장



신륵사 은행나무.
가운데 나무모양이 관세음보살처럼 보인다.



신륵사 조사당(위),
신륵사 조사당 삼화상 진영. 가운데 지공을 중심으로
지공의 왼쪽이 나옹 오른쪽이 무학.(아래)



신륵사 대장각비 전경과 대장각비.
글은 이색의 제자 이승인이 썼다.

경관이 이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색이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한 때가 조선이 건국되기 전인 1381년이라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이색이 인출한 대장경은 강화경관이 아니고 해인사에 보관된 일부의 대장경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색이 인출한 대장경은 일부가 아니고 전체였다. 기록에 인전장(印全藏) 곧 전체 대장경을 인출했다 하고 경륜론(經律論)을 인출했다고 나온다. 경륜론은 삼장을 말하며 대장경과 같은 말이다.

또 대곡대학의 대장경 인쇄본과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을 인쇄 영인한 것과 돌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1381년 인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대 인쇄한 것이라 두 인쇄본의 글자에 차이가 보이지만 이는 인쇄하는 방법과 인쇄연대가 60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글자들을 비교해보면 둘은 같은 대장경판에서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건 대곡대장경의 각수와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각수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대곡대장 대장경 인쇄본과 해인사 대장경이 서로 같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색은 1381년 해인사에서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을 인쇄한 것이고 이미 강화경판은 고려시대 해인사로 옮겨진 것이 된다.

그럼 다시 조선 태조 때 대장경판을 강화 선원사에서 실어왔다고 하는 실록의 명확한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다. 지금까지는 강화 선원사에서 온 대장경판이 몽골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고려 고종 때 만든 대장경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록에 쓰여진 말 그대로 강화 판당의 대장경판이 아니고 선원사의 대장경판일 가능성도 있다. 선원사 대장경판을 1398년 5월 12일 한양 지천사에 모셔놓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 7개월 뒤 1399년 1월 9일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쇄했다고 하는데 이때의 인쇄가 선원사 대장경판으로 보기에 는 해인사로 옮기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고려는 1251년 고려대장경을 완성한 후 경판은 강화성 서문 밖 판당에 보관하였다. 지금의 선원사는 강화 해협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성 남문을 통해 가게 되어있다. 무외국사 정오는 1318년 진주 용암사에 안치한 대장경을 강화 판당에서 인쇄했다고 한다. 굳이 서문 밖 판당에 안치했던 경판을 바다 바람을 맞는 선원사로 옮길 필요도 없었다. 1360년 왜구가 강화의 선원사와 용장사를 습격하여 쌀 300석을 약탈해 갔다는 기록이 있다. 왜구의 약탈이 심해지자 이후 언젠가 고려실록이 보관된 적이 있었던 내륙의 해인사로 고려대장경판을 옮겼고 그



강화 서문 밖 판당과 남문 밖 선원사터

것을 1381년 이색이 인출했다고 여겨진다.

강화 선원사는 최우의 원찰로 지어졌다. 고려대경판은 최씨 무인정권시기 만들어졌다. 선원사도 대장경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판 전질이 만들어져 서문 밖 판당에 보관되었지만 선원사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곳에도 많은 경판이 보관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조선 태조 때 강화에서 온 대장경판은 바로 선원사에서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경판이라 생각된다.

이색은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여 신륵사에 보관함으로써 공민왕과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기울어가는 고려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다. 그러나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고 이색도 신륵사에서 생을 마감했다. 대장각기를 쓴 이색의 제자 이승인도 죽임을 당했다. 이색의 신륵사 대장경 인쇄본은 유교국가 조선에서 사라져 일본으로 보내졌다. 고려시대 신륵사는 조선시대 보은사로 이름을 바꾸어 세종의 명복을 비는 원찰이 되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륵사 강가에 우뚝 서있는 벽돌 탑은 오늘도 강 건너편 우리에게 손짓한다. 어서 오시게나.

글 조경철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연세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3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한 인용지수 한국사 분야에서 2위를 했다. 어린이를 좋아해 2015년부터 군포문화나눔학교에서 박물관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라이름역사연구소를 운영하며 통일한국의 나라이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저서로 <나만의 한국사> 등이 있고 '나만의 한국사 편지'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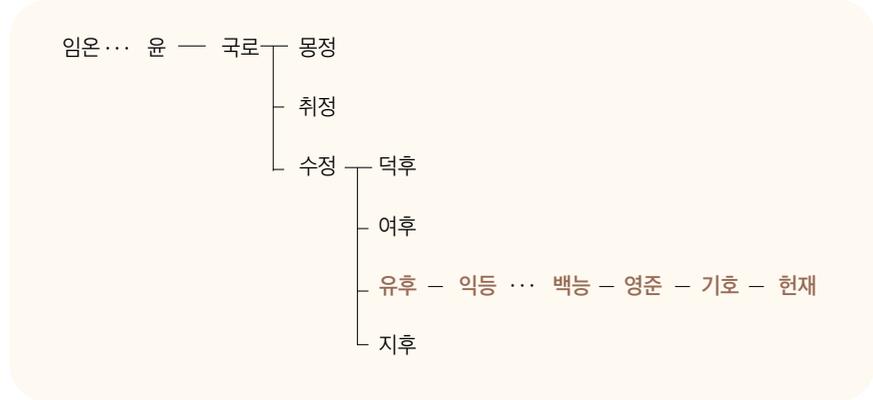
이천시 고백리 풍천임씨 고문서

박성호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풍천임씨는 조선시대 문신 임유후 이래 현재에 이르렀다. 고백리는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어지는 주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고, 임진왜란 시기에는 명나라에서 출병한 무리 가운데 풍수에 능한 두사충이라는 사람이 고백리 인근의 두무재에 올라 말로만 듣던 명당을 발견하고 선 춤을 덩실덩실 쳤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곳을 터전으로 삼은 풍천임씨 집안에 전래된 200여 점의 고문서에 담긴 옛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풍천임씨

풍천임씨는 고려 때 원나라 제국대장공주를 수행해 들어온 임운(任濶)을 시조로 삼아 계보를 이어왔다. 고려 말로부터 조선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 풍천임씨 자손 가운데 많은 이들이 명성을 떨쳤는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의 풍천임씨는 조선중기 문신 임유후(任有後, 1601~1673)로부터 지금에 이르렀다. 이 집안에 전래된 고문서는 1999년 『이천시사(利川市史)』 편찬 과정에서 그 존재가 알려졌고, 이후 2004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문서집성』기를 발간함으로써 200여 점 규모의 고문서가 상세히 공개되었다.



풍천임씨 임유후 후손가 계보도

임유후는 증조부 임운, 조부 임국로, 아버지 임수정, 그리고 본인에 이르기까지 4대 연속으로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집안의 최고 전성기에 태어났다. 그는 24세인 1624년(인조 2) 한 해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한꺼번에 합격했고, 2년 후 바로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수재였다. 그러나 훌륭한 집안 배경과 문과 급제자라는 영예에도 불구하고 출사 초기에 발생한 아우 임지후와 작은 아버지 임취정이 연루된 역모 사건 때문에 벼슬에서 물러나 동해안 울진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결단을 해야만 했다.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 연루된 역모라는 엄중한 위기에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택한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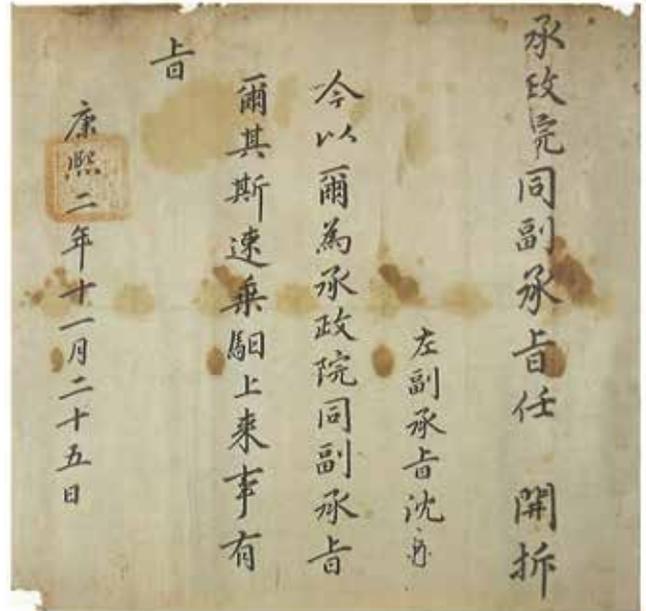
경기도관찰사 만휴당 임유후

지리적으로 외떨어진 울진에서 임유후는 자신이 쌓은 학문과 지적 소양을 현지의 젊은이들에게 전수해 주었고, 대대로 지역에서 뿌리 내려 살던 사족들과도 두터운 교분을 쌓았다. 그러한 세월이 무려 20여 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결과 울진에는 만휴당 임유후를 배향한 고산서원(孤山書院)이 설립되고, 학술 강론과 풍류의 장소였던 주천대(酒泉臺)에는 임유후를 기리는 유허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효종대가 되어 조정에서는 임유후의 학문과 효행을 근거로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효종실록》 효종 4년 7월 2일 기사에서 영중추부사 이경여(李敬興)가 왕에게 임유후의 발탁을 건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삼가 살피건대 전 부사 임유후는 어미를 모시고 병란을 피하여 영외(嶺外)의 해변에서 객지에 오래 있는 중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였고, 어미가 죽게 되어서는 관(棺)을 가지고 서쪽으로 돌아와 여묘살이 하며 죽을 먹고 조석으로 무덤에 가되 3년 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제는 복을 벗었으나 곡읍(哭泣)하는 슬픔과 호모(號慕)하는 정성이 이웃을 감동시키니, 이것은 근일 조신(朝紳) 사이에서 드물게 들리는 행실입니다. 또 그 사람은 평소에 엄정(廉靖)을 실천하고 진취할 뜻이 없으나 문사(文辭)가 넉넉하여 무리에서 뛰어난니, 재행(才行)을 찾으려면 남보다 앞설 것인데 조정에 그 무리의 후원이 적어서 아직도 묻혀 있으므로 신은 아깝게 여깁니다. 장려하여 발탁하는 은전을 베풀어 격려하고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역 기사 인용)

이를 계기로 임유후는 다시 왕의 부름을 받아 1653년(효종 4년) 9월 21일 사헌부 장령에 제수되었다. 이후 종성부사, 동부승지, 청풍부사, 병조참판, 도승지 등의 벼슬을 역임했고, 1672년(현종 13) 3월 9일에는 경기도관찰사에 제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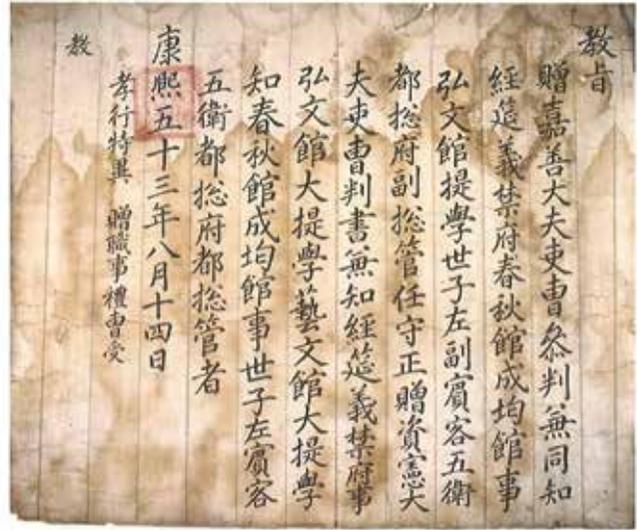


1663년 동부승지에 나아오라고 통보한 승정원 문서(有旨)



1672년 경기도관찰사 임유후에게 내린 왕의 교서

왕은 국가적 중대사에 교서(敎書)라는 문서를 발급했다. 한 도의 행정과 병권을 맡기는 관찰사를 임명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관찰사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임명 문서와 더불어 왕의 당부를 담은 교서를 발급했다. 교서는 한문 문체로서도 매우 엄격한 격식을 갖추어야 했고, 내용도 정교해야 했기 때문에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 짓는 소양이 뛰어난 관료가 공을 들여 지었다. 특히 새로 임명한 관찰사에게 내리는 교서에는 당사자의 집안 배경, 과거 이력, 품성 등 반드시 그의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관찰사 임유후에게 내려진 위 교서에서도 임유후의 집안 배경, 뛰어난 자질, 지난날의 어려웠던 상황 등을 일일이 적어 위로하면서 최근 큰 흉년으로 어려워진 경기도정을 잘 살피기를 당부하였다.



1714년 고(故) 이조참판 임수정의 효행을 높이 사 이조판서에 추증한 왕의 교서

효열의 가풍

고백리 풍천임씨는 조선 왕조가 중시하던 ‘효(孝)’와 ‘열(烈)’을 보여준 대표적인 집안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 전기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 간행 이후 전국적으로 대표할 만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의 사례를 모아 1617년(광해군 9)에 이르러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가 다시 간행되었다. 이 책에 임유후의 조모 정부인 한씨의 절행(節行)이 한문과 한글로 수록되었다.

한씨절행(韓氏節行)

정부인(貞夫人) 한씨는 서울 사람이니, 판서 임국로(任國老)의 아내다. 지아비 죽은 지 십 년이되, 흰 옷과 소식(소밥)하고, 곡음을 처음과 같이 하여, 나이 일흔 셋이지만 시작과 끝을 한결같이 하더니, 아들 취정(就正)이 광주 목사를 하되 마침내 즐겨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죄인이다 일컫고 어찌 하늘을 보리오 하고, 집 기슭(주위) 밖에 한 번 나 걸기를 아니하여 오래도록 변치 아니하여, 죽음으로써 기약하였다. 지금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현대어 번역 인용)

정부인 한씨의 아들이자 임유후의 아버지 임수정(1570~1606)은 문과 급제 이후 이른바 청요직으로 선망 받던 예문관과 홍문관의 관직을 거치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큰 뜻을 다 펼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숙종 대에 이르러 임수정의 살아생전 효행이 조명되어 왕으로부터 품계와 관직을 올려 받는 영예를 얻었다. 오늘날에도 국가를 위해 순직한 공직자에게 사후 직급을 올려주는 추서 제도가 있듯이 조선

시대에는 추증(追贈)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사후 추증에 대한 요건과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조선 후기가면서 효행, 학행 등 추증 사유가 확대되었다. 이는 조선 왕조가 추구한 가치를 사회 전반에 장려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울진에 은거한 임유후가 다시 벼슬에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갖고 있었던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행 때문이었다. 그의 효행은 사후에까지 칭송되어 숙종 대에 이르러 임유후의 효행을 기리는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당시 임유후의 정려를 건의한 조태억은 임유후의 효행과 청백이 근간에 찾아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집안에 몰아닥친 화를 피해 울진에 은거하며 어머니 봉양에 극진한 정성을 쏟았고, 모친상을 당해서는 통상의 삼년상을 보내고도 심상(心喪) 삼년을 더 지킴으로써 인근 고을 사람들과 친척들이 크게 감동했다고 하였다. 풍천임씨 집안의 삼대에 이어진 효열의 가풍이 당대에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순찰사께 아뢰는 음죽헌 산소 분장

고백리 풍천임씨의 선조인 임국로, 임수정, 임유후의 묘소는 집안에서 ‘신릉리(新陵里) 선영’으로 일컬었다. 조선시대에는 광주부 암사동 신릉리로 지칭한 곳으로서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해당한다. 지금 암사동에서 풍천임씨 선영

이나 신릉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역의 유래를 고찰하다보면 여전히 풍천임씨 집안의 선영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유후 이후 자손들의 묘소도 신릉리 선영에 계속 쓰기도 했지만, 여주와 음죽 등으로 묘소가 분산되었다.

이 집안에 남아있는 조선 후기 문서 가운데 1875년(고종 12) 올해년 10월에 임성호(任成鎬)가 ‘순상 합하(巡相閣下, 경기도관찰사겸순찰사를 지칭) 앞으로 제출한 민원문서가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임성호의 6대조 묘소가 음죽현 서면 세필리에 모셔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당 면에 사는 한모 양반이 자신의 아들 묘를 쓰고는 모른 채 하면서 이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미 몇 차례 음죽현 사또께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타지 사람의 요구라서 그런지 지지부진한 채 잘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순찰사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요청이었다. 풍천임씨족보에 따르면, 임성호의 6대조는 바로 임치원(任致遠, 1695-1770)이고 ‘음죽 서면 세필리’에 묘가 있다고 적혀 있다. 이 민원에 대해 순찰사는 10월 15일자로 음죽현 감에게 당장 한모를 잡아들여 엄히 다스려서 묘를 옮기게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는 과거에도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을 오가는 주요한 길목이었고, 최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서여주 인터체인지가 가까이 설치되면서 많은 차량이 알게 모르게 지나치는 도로변에 연하게 되었다. 무심코 지나치다 고백리라는 지명이 보이면, 이곳에 뿌리내린 풍천임씨 집안과 집안에 전해진 고문서 속의 몇몇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875년 이천에 사는 임성호가 경기감사에게 올린 민원문서

글 박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문서의 양식,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왔고, 최근에는 문서에 담긴 여러 정보를 토대로 과거 사람들의 생활과 인식 변화 등을 탐구하고 있다.

조선의 신이 된 관우, 경기도 분원리에서도 좌정했었다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내곡의 관성묘 -

장장식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기억되는 인물은 누구일까? 유비, 관우, 장비를 거론할 터이나 한 사람을 지적하라 치면 필자는 물론 많은 사람이 ‘관우 장군’이라 할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파란만장한 역사의 장(場)에서도, 흥미진진한 허구의 무대 위에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연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神)’으로 좌정하고 있는 탓이다. 중국과 한국은 물론 화교가 사는 지역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신격으로 숭신되고 있다. 특히 재물과 복덕(福德)의 신에서 행업신(行業神, 직종마다의 수호신)으로 여러 직종의 상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도교사원이나 무속신앙에서는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한편 영험한 장군신으로 좌정해 있다.

조선의 신이 된 관우의 시말

이런 그가 조선에 들어와 신이 된 것은 정유재란 때이다. 조선에 파병한 명군은 관우를 무신(武神) 또는 군신(軍神)으로 숭앙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우를 모시고’ 온 것이다. 그리고 명나라의 장수 진인이 울산의 도산성 전투(1597.12.22.~1598.1.4.)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하던 중에 ‘관우의 신병이 도왔다’는 생각에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관우를 모시는 사묘를 짓게 한 것이 공식적인 시작이다. 이때가 1598년이고, 사묘를 승례문 밖에 지었다 해서 ‘남관왕묘’라 불렀다. 지방에서는 중국의 장수들이 주둔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에 자신들만의 신앙으로 관왕묘를 세웠다. 안동, 성주, 남원, 강진 등의 관왕묘들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명국의 강권으로 1601년에 흥인문



서울 동관왕묘 ©최호식



안동 무안왕묘, 1598년 안동에 주둔한 명나라의 진정영도사(眞定營都司) 설호신이 세웠고, 유림의 반대로 1606년 서악의 동대로 옮겼다. ©문덕관(이하 같음)



성주 관성사, 명나라의 장수 모국기(茅國器)가 건립하였다.

밖에 동관왕묘가 세워졌다. 조선의 의사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망국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준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나라, 대명(大明)의 요청이니 감히 어길 수 없는 노릇이었으리라.

이후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국가 제사의 ‘소사’로 편입되고, 악장을 짓는 등 국가제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자 백성들의 신앙으로도 그 몫을 톡톡히 했다. 열강의 개입과 외세의 침입이 몰아치던 고종 때에는 북관왕묘와 서관왕묘가 적극적으로 세워졌고, 개성, 동래, 전주, 강화 등 여러 지방에서도 관왕묘가 건립되었다. 관우를 숭신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관우를 숭신하는 교도들의 자발적인 신앙행위가 작동되어 「관제영첩」, 「관성제군성적도지(關聖帝君聖蹟圖誌)」, 「과화존신(過化存神)」, 「관성제군명성경(關聖帝君明聖經)」과 같은 수종의 경전을 간행하여 보급한 것도 한몫을 했다. 하지만 1908년 국가제사철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국가제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관성교로 남겨나 더러는 민간 신앙의 신으로 자리를 바꾸게 된다. 짧지 않은 역사지만 이렇듯 관우신앙은 우리의 민속문화와 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하나로 작동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관왕묘가 한 개인의 일기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19세기 말, 열강의 힘이 연약한 조선에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경기도 한 마을에 살던 하재(荷齋) 지규식(池圭植)의 일기이다. 지규식은 정통 교육을 받은 유학자는 아니다. 그런데도 고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있었으며, 유교적 선비의 삶을 지향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그가 광주 분원에서 공인(貢人)으로 근무하면서 1891-1911년까지 20년간에 쓴 일기가 바로 「하재일기(荷齋日記)」이다. 물론 일기의 주요 내용은 당대의 개인적 일상을 담담

하게 쓴 것인데,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대의 생활사를 재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료가 되었다. 이 가운데 관제묘 참배를 여러 차례 기록함으로써 지방 관왕묘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어 민속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자료적 가치를 발현하고 있다.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신앙을 일컬어 ‘관우신앙’이라 한다.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장수’인데, 사후 왕(王)으로 봉해지고, 마침내 제(帝)로 승격되는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이름도 관왕, 관제라 높여 부르고, 그를 기리는 묘우를 관왕묘(關王廟), 관제묘(關帝廟), 관성묘(關聖廟)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인물을 모신 관왕묘가 현재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 알려진 일이 아니다. 아쉬운 것은 「하재일기」 외에는 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고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130년 전의 일이건만 건치 내력과 역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새삼 ‘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한다.

하재 지규식이 기록한 관우신앙

지규식이 살았던 광주 분원리는 역사적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본래 광주에는 사용원 산하 자기소가 여럿 있었는데, 18세기에 양근군 남종면 분원3리(소니강변)로 분원(分院)을 옮겼다. 광주 지역이 지닌 자기 생산의 조건이 좋은 탓이다. 흔히 분원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는데, 도토(陶土)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땔나무(柴木)를 풍부하게 공급받으며, 생산한 자기를 운반할 수 있는 수운이 편한 곳이어야 한다. 이



남원 탄보묘, 1599년 명나라의 도독 유정(劉挺)이 건립하였다.



강화도 동관왕묘 정전

가운데 인접한 우천나무를 통한 운송의 편리함도 컸고, 번목(燔木)으로 쓸 나무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분원의 입지로서는 조건이 좋았다. 그러나 시장자본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광주 분원은 고종 21년(1884)에 폐지되고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인을 위한 시장 판매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기가 바로 「하재일기」이다.

하재 지규식은 당시의 지명으로 경기도 양근군 남종면 분원 3리에 살았다. 1908년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양평군 분원2리로 조정된 곳이다. 양평군은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이 통합되면서 붙여진 이름이고, 분원리의 호구를 균배하는 과정에서 분원2리로 조정되었다. 그 후 오늘날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로 바뀌었다. 일기에 따르면, 지규식은 집 근처의 소늬들(牛川坪)과 퇴촌면 등지에 상당한 규모의 논과 밭을 소유하기도 했으니, 분원리가 고향이고 활동 지역임이 분명하다.

이런 그가 1892년 1월 1일자(음력)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차례 후 내곡 관성제군을 배알하고 영첩(79첩)을 얻은 후 이웃 마을의 어른을 찾아뵙고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었다.

일기의 내용은 두 가지의 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내곡(內谷)’에 관성묘가 있다는 점과 “차례-관성묘 배알과 영첩 치기-마을 어른 문안[세배]-귀가 후 아침식사”를 수행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관성묘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내곡’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마을이다. 내곡은 1900년 1월 1일자 일기에는 ‘내동(內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동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물론 내곡이나 내동은 같은 뜻을 지닌 지명이고, 다른 지역의 용례로 보듯 아마도 ‘안골’을

표기한 것이리라. 분원리에 속한 마을이라는 사실은 추정이 가능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어쩌면 1925년 을축년 대홍수의 재해에 타격을 받고, 1974년 팔당호로 마을의 대부분이 수몰되었기에 기억의 소멸이 더욱 빨랐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당시의 분원리는 8개리였고, 각 리마다 이회(里會)와 이임(里任; 所任과 座上)을 두었던 큰 마을이었다. 분원리 8개리를 관할하는 대동회를 두고 매년 12월에 동임(洞任, 洞長)을 선출했다는 기록을 작은 단서로 삼을 성싶다. ‘내곡’은 분원리 8개리의 하나이거나 분원리에 속하는 자연마을이고, 거리상 분원2리와 그리 멀지 않은 지근거리라는 결론이다. 게다가 분원리에서는 공소와 함께 대동회 주관으로 매년 고청신사(高淸神祀)를 행했다고 한다. 육장군(六將軍) 화상을 내걸고, 깃발을 들고 유가하며, 산에 올라 제사를 올리고 화포(火砲)를 쏘며 불놀이를 하고, 산대와 연희패를 불러 가무를 즐겼다 하니 거대한 지역축제의 성격을 지녔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분원리의 지역적 위세가 컸음을 뜻한다. 분원 공소에는 공인을 포함하여 무려 수백 명이 근무했으니 분원 8개리의 민간인까지 합하면 2,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한 지역으로 추산된다. 일찍부터 분원리의 출입구라 할 우천리에 4·9일장인 우천장이 섰던 것도 이 때문이고, 실제로 지역인사의 도문연(到門宴, 과거급제 잔치)과 공소의 행사 때에는 전주의 명창 성창열(成昌列)과 김만성(金萬成) 등을 초청할 정도로 위세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분원리의 관성묘는 언제 세워졌을까? 위치를 비정할 수 없는 상황만큼이나 건치 연혁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당대의 얽힌 정국을 돌파하고 외세의 개입에 따른 난국을 평정하려는 고종 후기의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명성황후가 임오군관(1882년) 당시 충주로 피신을 했을 때 환궁 날짜를 맞췄다는 진령군과의 인연으로 북관왕묘가 세우진 것은 1883년 가을이다. 진령군은 ‘관우를 몸주로 모신 무녀’였다. 이런 진령군의 의도로 세워진 관왕묘이지만 일견 국가 주도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북관왕묘 건립은 여러 지방에 신성한 자극을 주었다. 이를테면 강화의 남관왕묘(1884년)·동관제묘(1885년)·북관왕묘(1892년), 평양의 관왕묘(1893년), 지도군(현 신안군)의 관왕묘(1894년), 전주의 관왕묘(1895년), 개성·인천의 관왕묘(1897년)가 바로 그것이다. 지방의 이런 건치 연혁을 감안할 때, 분원리의 관성묘 역시 19세기 후반의 일(아마도 1891년경)이 아닌가 한다. 관우신앙의 전체적 맥락에서는 군신(軍神)으로 직능에 힘입어 외세를 막고자 하는 원망(願望) 달성의 의지와 함께 재복신, 행업신으로서의 영험성에 의탁하여 분원리에서 생산된 도자의 유통과 상업적 영리 추구를 위해 건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테면 ‘도자의 신, 그릇의 신’으로서 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추론일 뿐이다.

지규식의 일기에서 내국의 관성묘를 참배한 기록은 모두 15회이다. 1회는 한양의 남관왕묘를 참배했으니 모두 16회이다.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관우에 대한 숭신이 깊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가 얼마나 영침을 신봉했는지 1899년 1월 초하루

에는 관제마, 내국 관성묘, 번자회사에서 각각 한 차례씩 세 번이나 점을 쳤는데, 그 가운데 두 번이 영침이다. 그러므로 영침 횟수는 모두 17회나 된다. 지규식의 첫 참배는 1891년 1월 1일이고 마지막은 1905년 1월 1일이다. 모두 설날 차례를 지내고 나서 관왕묘를 배알한 것이다. 1906년 이후의 참배 기록은 없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1905년 10월 미국인 ‘전도부인’ 2명이 한국 부인과 함께 분원 마을에 왔을 때 그들을 만난 지규식은 당일 기독교에 입교했다. 이후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 공부를 했을 정도이니 지규식의 관우신앙은 이미 소멸된 것이다.

지규식의 일기가 그렇듯 그가 관성묘에 가서 한 일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다. “차례를 지낸 후 관성묘에 가서 배알하고 ‘영침’을 뽑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5회의 일기에 설날 오전의 일과가 마치 설날의 공식 관행처럼 기술되어 있다.

영침은 「관제영침(關帝靈籤)」을 말하는데, 관제는 관성제군으로서의 관우를, 영침은 ‘신령스러운 제비(籤)’를 뜻한다. 굳이 풀이하자면 ‘관성제군이 내리는 신령스러운 제비’라는 말이다. 점을 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즉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법이다. 제1점에서 100점까지 적힌 댓가지[제비]를 담은 첩통(鐵筒)을 흔들어 한 가지를 뽑은 다음 제비에 적힌 침을 보고 점복서에 해당하는 ‘영침’으로 점을 친 사람의 길흉화복을 따지는



전주 관성묘에서 영침을 치는 장면:
① 배알하고 분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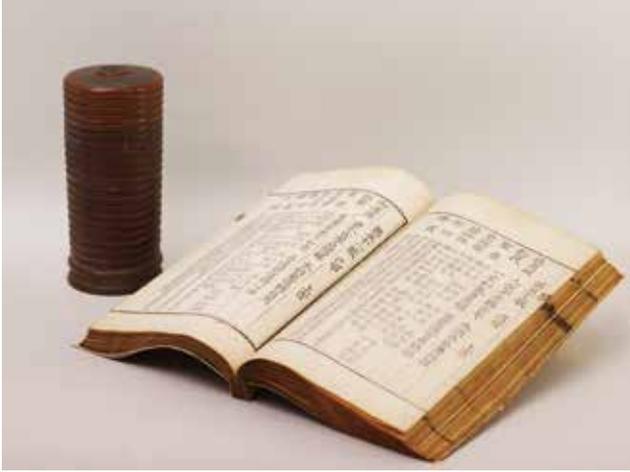
②분향 후 사배하면서 관제를 배알한 사정을 마음속으로 아뢴다.



③영침이 든 산통을 흔든다



④산통에서 댓가지를 꺼내어 몇 침인가를 확인한다.



「관제영첩(關帝靈籤)」과 산통(개인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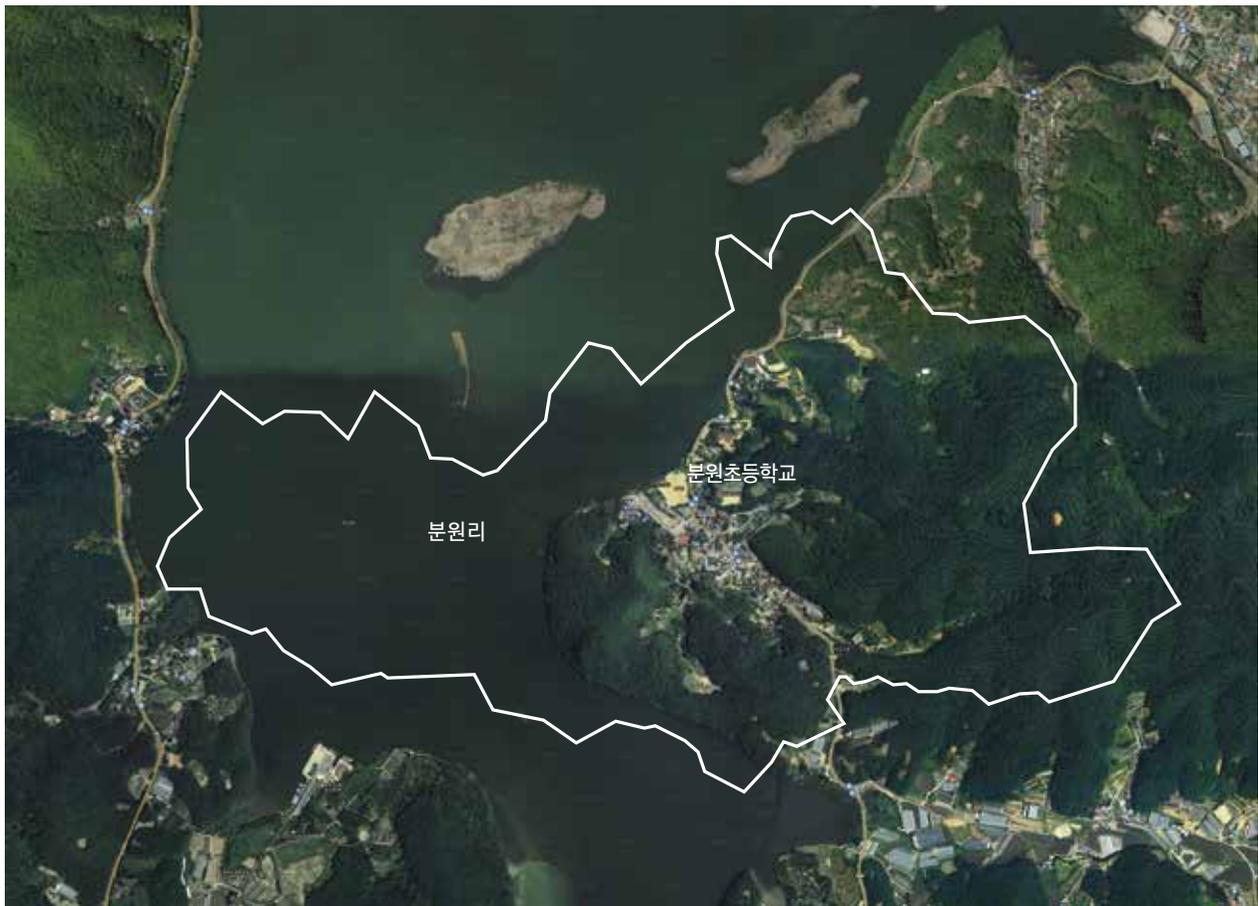
의 점사가 실려 있다. 각 첩마다 제목이라 할 첩운(籤運)과 이를 설명한 칠언절구가 달려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성의(聖意), 동파해(東坡解), 벽선주(碧仙註)에 이어 첩의 뜻을 풀이한 해왈(解曰)과, 시에 대한 뜻풀이인 석의(釋義)가 이어지며 끝으로 점을 쳐서 실제로 징험한 경험담을 적은 점험(占驗)이 적혀 있다.

첩통을 흔들어 첩을 뽑는 것 자체가 단순한 일이지만 관우의 영험이 널리 알려졌기에 일반인의 인기를 끌었다. 「관제영첩」은 1884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널리 유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후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대중의 인기에 부응했고, 일일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각 첩을 인쇄하여 해당 첩사를 나눠주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관왕묘(개성 소재)를 찾아 정월 신수점을 치는 개성의 인파를 다룬 신문기사(1939년 3월 1일자 고려시보, “금년신수는 대길할까요?”)는 관성묘와 영첩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방식이다. 이런 모습은 전주 남고산성 남동쪽에 위치한 관성묘에 가면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

「관제영첩」에는 제1첩에서부터 제100첩까지 천간(天干)에 따라 차서(次序)를 정해 갑갑(甲甲)에서 계계(癸癸)까지 총 100가지

지규식이 기독교로 입문하던 해인 1905년 1월 1일 설날 아침, 생애 마지막으로 뽑은 영첩은 제82첩이었다. 일기에 영첩의 칠언절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아 이때에도 점을 친 사람에게



분원리 일원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해당 영첩을 나눠 준 것으로 보인다.

가묘(家廟)에서 차례를 지낸 뒤 내곡에 가서 관성제군을 배알하고 추첨하여 십지 82를 뽑으니 상길(上吉)이다. 제목에 ‘송인종인모(宋仁宗認母)’라 하였다. 시는 다음과 같다.

彼亦人中一輩賢	저 또한 사람 중에 한 어진이
勸君特達與周旋	그대에게 권하노니 특별히 사무쳐 더불어 주선하라.
此時賓主相歡會	이때에 손과 주인이 즐거워 서로 모이니
他日王侯却竝肩	다른 날 왕후로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

지규식은 이 해에 ‘상길(上吉)’을 뽑았다. 영첩의 제목은 “송인종이 친어머니를 알다.”인데, 이는 송나라 인종의 출생과 성장에 얽힌 고사와 관련이 있는 제목이다. 송 인종은 아버지 진종과 어머니 이신비(李宸妃)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장헌태후가 아들로 삼아 양육된 인물이다. 하지만 나중에 생모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역사적 사건을 말한 것이니, 모든 일이 사필귀정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제목이다. 그러므로 제82침은 「관제영침」의 ‘해석(解曰)’에 따르면, “모든 일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쾌이니, 이 침을 뽑은 지규식은 ‘좋은 쾌를 뽑았다’는 안도감과 ‘일이 잘 풀릴 한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심으로 흔쾌히 관성묘를 나올 수 있었으리라.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서

관왕묘당은 분명 유형자산이나 거기서 행해졌던 신앙의례는 무형자산이다. 유형은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으나 무형자산은 가치를 잃었을 때 바람처럼 흩어지기 일쑤이다. 아쉽게도 분원리 내곡에 존재했던 관성묘는 무형과 유형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것도 공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기억에도 존재하지 않는 채 말이다.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서 존재했던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에 있었던 현신당(顯神堂)도 마찬가지이다. 내곡의 관성묘보다는 규모도 작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마을에서는 현신당이라는

당호를 걸고 관우를 모셨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산제당과 함께 1년에 한 차례씩 치제했고, 평소에는 단골무당이 관리했다. 그러나 묘당은 1999년 경에 완전히 없어졌고, 유물들은 망실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기억도 소멸된 채 아는 이마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망각은 소멸에 이르고 기억은 영원에 이른다.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서 분원리의 관우신앙은 당대를 담당했던 그 몫이 가치를 잃고 스스로 망각의 지평으로 건너간 때문인가?



서울의 무속신당에 모셔진 관우장군

글 장장식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 풍수설화의 연구>로 문학박사를 취득하고, 몽골국립대학교 외국어문대학 객원교수, 국립민속박물관 학예관을 역임하면서 고려대·경희대·단국대·동국대 대학원 등에서 민속학을 강의하였다. 한국의 무형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및 한국과 몽골의 민속문화 비교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여 수십 편의 논문과 다수의 저서(공편저 포함)를 출간하였다. 현재 김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풍악산에 견주던 경승, 한탄강(漢灘江)

최동원

물과 불이 만나 만든 절경, 한탄강

조선후기 문신인 서계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승으로 이름 높았던 한탄강변의 화적연을 풍악산(금강산)의 일만이천 봉에 비견될 만큼 뛰어나다고 극찬하였다. 한탄강의 풍광은 비단 박세당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산수유람을 즐기고 그 곳에서 성리학적 가치를 구현하려 했던 많은 문인들이 즐겨 찾으며 글과 그림을 남겼던 곳이다. 한탄강은 최근 유네스코에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에 공룡이 살았던 시기를 지나 구석기인들이 터를 잡던 신생대 제4기인 약 50~13만 년 전 사이 한탄강 일대에는 수차례 대규모 화산폭발로 인해 두꺼운 용암이 쌓이게 되었다. 이후 한탄강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지대를 흐르면서 약한 바위틈을 헤집고 깎아내어 현재의 한탄강 현무암 협곡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한탄강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현무암 주상절리와 ‘U’자형의 협곡이 형성되었다. 최근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포천의 비둘기낭 폭포와 화적연, 명우리협곡 등 대부분의 문화재와 명소들이 화산활동과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탄강의 지질학적 가치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지질학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부터이다. 때문에 전근대 시기까지 한탄강에 대한 가치는 지질학적 개념이 배제된 지리적 입지와 경관적 가치를 통해 한탄강을 바라봤을 것이다.

한탄강(漢灘江)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한탄강은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철원의 김화와 동송읍을 거쳐 포천의 드넓은 냉정리 평야와 자일리 평야를

사이에 두고 6km에 달하는 명우리협곡을 지나 아우라지에서 영평천과 만나고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만나기까지 약 140km를 흐른다.

한탄강은 혹자들에 의해 ‘궁예가 계속된 실정(失政)으로 자신의 부하인 왕건에 의해 나라를 빼앗겨 한탄을 했다.’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알고 있거나, 혹은 ‘6.25전쟁 때 북쪽에서 월남하는 사람들이 한탄강의 높은 수직절벽 때문에 넘어 오지 못해 한탄했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한탄강(恨歎江)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후기 대학자인 화서 이항로(李恒老, 1792~1868)도 한탄강에서 시¹를 지으면서 궁예의 한(恨)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으니 한탄강(恨歎江)으로 불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조선시대 한탄강은 구간별로 이름을 나눠 불렀다. 기록에 의하면 한탄강의 발원지인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 일대는 당탄(塘灘)으로 불렸으며, 김화부터 철원까지는 주상절리가 섬돌처럼 층층 계단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체천(砌川), 마흘천(磨訖川)으로 불렀고, 포천의 화적연 일대는 마하천(摩訶川)이며 지금의 명우리협곡 일대는 주상절리 협곡이 쪽 뻗어 있다고 해서 직탄(直灘)이라 했다. 그리고 한탄강의 하류인 연천 일대는 강폭이 넓고 하천이 커서 대탄(大灘) 또는 대원탄(大原灘)이라 불렀다.²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탄강(漢灘江)의 지명은 18세기 중반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에 “양주 한탄계곡(楊州漢灘溪)”이라고 기록되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양주목의 관할지역이 현 동두천시까지 포함하고 있어 연천과 동두천 사이 구간을 ‘한탄계’라고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탄(漢灘)’이란 지명을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여지도서』, 『해동지도』를 제외하면 ‘한탄’이란 지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한탄강 하류인 연천 일대의 지명으로 각종 문헌 기록과 19세기에 간행된 군현지도 및 『동여도』 등에 ‘대탄(大灘)’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지도서』 양주목 조에는 대탄진을 ‘양주목의

1 『화서선생문집』 권1, 시 '역백응담. 지화적연. 차주자석름봉운 歷白龍潭. 至禾積淵. 次朱子石廩峯韻

2 『여암전서』 산수고4, 수경

청송면과 연천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까지 국한되어 사용하던 '한탄강(漢灘江)'이란 지명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탄(漢灘)'은 큰 여울을 뜻하는 한자 '대탄'에 크다는 의미의 '한'으로 훈(訓)을 새긴 것이다. 이후 '한'을 음새김 하면서 '寒', '恨' 등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다가 그중 크다는 의미가 있는 '漢'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漢)'은 물 이름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漢'이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탄(灘)'은 '물이 빨리 흐르고 돌이 많아 배가 다니기 위험한 곳'을 의미하며 순 우리말로 '여울'을 뜻하고 있는 한자어 '대탄(大灘)'을 우리말씩 표현으로 바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큰 여울이 있는 강'이라는 의미의 한탄강은 근대 지리학적 개념이 도입되던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명과 하천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07년 일본 통감부의 '포천, 연천 지방 시찰보고서'³에 "폭도가 출몰하는 지역을 시찰하면서 초성리(당시 포천군)에서 한탄강(漢灘江)을 건넜다."라는 기록이 공식화된 최초의 기록이다. 이후 소략하긴 하지만 일부 기록에는 추운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인지 '한탄강(寒灘江)'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이후에는 동아일보 등 언론지 등에는 모두 한탄강(漢灘江)로 표기되었으며, 한탄강의 표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옛사람들이 바라본 한탄강

조선시대 한탄강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은 숙종대 상신을 지낸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이다. 그는 연천으로 낙향해 한탄강 전역을 기행하며 많은 시문과 유산기를 남겼다. 그는 한탄강에서 시작해 포천(영평)과 화천의 경계인 백운산 일대까지 이어지는 산세를 '용의 이동 경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칭송했다.⁴ 그는 한탄강의 경승지 중 '대탄', '화적연', '창옥병', '금수정', '백로주', '고석정', '삼부연' 등 지금까지도 명승으로 유명한 곳을 두루 다니며 뛰어난 경관을 유산기로 남겼다.

오강(烏江)에서 호구협(壺口峽)을 지나면 그 위가 송우(松隅)인데, 돌벼랑과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오래된 성이 있으니, 절경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또 그 위가 대탄(大灘)으로서 청송(靑松) 골짜기 어귀가 되니, 골짜기에는 구경할 만한 경치가 많다. 대탄에서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창옥병(蒼玉屏)에는 박정승(朴政丞)의 사당이 있고, 물위에서 석봉(石峯)을 바라보면 바위에 큰 글씨가 새겨져 있다. 또 동쪽으로 몇 리 남짓 가면 금수정(金水亭)이 우두연(牛頭淵)가에 있다. 우두연 가에는 또 봉래(蓬萊)의 시가 새겨져 있는데, 글자체가 또한 기이하여 감상할 만하다. 그



한탄강의 지명을 '한탄강(寒灘江)'으로 표기하고 있다. -경원선 사진첩(1910년대) / 서울역사아카이브

³ 『통감부문서』 4권, 3. 내전축탁보고-동건 연천-포천 지방 시찰보고서

⁴ 『기연』 제27권 하편, 산천 上

위로 20리 되는 곳은 백로주(白鷺洲)로서 칠리탄(七里灘) 아래에 있다. 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백운계(白雲溪)의 물과 합쳐진 다음 굽이돌아 영평(永平) 서쪽을 지나 우두연과 화강(花江)의 물이 되고, 영평에 30리 못 미쳐서 화적연(禾積淵)이 된다. 화적연 안에는 석봉이 있는데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 화적연 주변은 모두 기암(奇巖)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며, 소나무, 단풍나무, 철쭉나무가 많다. 또 그 북쪽으로 10여 리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석정(孤石亭)이 나온다. 물속에 층층의 바위가 푸른빛을 띠고 우뚝 솟아 있는데, 물이 깊고 이끼가 미끄러워서 사다리를 타고도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상류에는 또 칠담(七潭)과 팔만암(八萬巖)이 있고, 그 위에 황씨(黃氏)의 별장이 있다. 화적연에서 10여 리를 가면 용화산(龍華山)이 나오는데, 용화산에는 세 개의 큰 폭포가 있고, 폭포 아래 세 개의 석담(石潭)을 삼부(三釜)라고 한다. 동방의 방언(方言)에 폭포를 '락(落)'이라고 하니, '삼부락(三釜落)'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 위는 용화사(龍華寺)이다. 백운산(白雲山)은 영평 동북쪽 60리 지점에 있는데, 물길이 더욱 멀고 산이 더욱 깊다. 서울 북쪽에서 산수가 그윽한 곳을 들자면 백운산의 수석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그 밖에는 수춘(壽春)의 사탄(史呑)이 또한 산수가 뛰어난 곳이다. 이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정군에게 주어 산수를 유람할 때 길을 안내하는 자료로 삼게 하고자 한다.(기언 별집, 제9권, 기(記), 정군에게 주는 산수지로기(山水指路記))

허목에 이어 한탄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인물은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다. 그는 33세 때까지 여러 곳으로 옮겨서 살다가 33세부터 43세까지 고향인 전라도 순창에 묻혀 살면서 저술에 힘썼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지리학보다는 어학에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영조의 명으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감수하고, 1770년에는 『문헌비고(文獻備考)』를 편찬할 때 「여지고(輿地考)」를 담당하며 지리학 부문에 많은 저술을 남겼다.

대탄강(大灘江)은 회양(淮陽) 쌍령(雙嶺)의 송관리(松官里)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 말흘천이 되고, 당탄이 된다. 장암산(帳巖山)의 광탄천(廣灘川)을 지나 자연담수(자연담수)에 이르러 적실원(赤實院)을 지나 고랑(高郎)의 명승지 남에서 정자연(亭子淵)이 되고, 김화천을 지나 체천이 되어 평강 저동(豬洞)의 양천(涼川)을 지나 철원 삼부연의 개울에 이르러 마흘천(磨訖川)이 된다. 화적연의 물을 지나 마하천(磨訖川)이 되고, 백호천(白湖川)을 지

나 청송리(靑松里)에 이른다. 양주 불곡산(佛谷山)의 초촌천(樵村川) 서쪽을 지나 대원탄(大原灘)이 되어 종담으로 들어간다.(『여암전서旅菴全書』 13, 산수고4, 수경(水經)).

허목과 신경준에 이어 한탄강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은 포천에서 출생한 연경재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다. 그의 학문은 본집·외집·별집으로 구성된 『연경재전집』(188권 102책, 1840년, 헌종6 추정)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풍속·서적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성해응이 한탄강과 관련하여 남긴 글은 영평현 지역의 산수를 기행하고 기록으로 남긴 「기동음산수(記洞陰山水)」와 수리에 대해 기록한 「동수경(東水經)」에 전하고 있다.

화적연(禾積淵)의 수원(水源)은 청화산에서 발원하여 화강의 물과 합치고, 철원을 지나면서 일곱 못(潭)과 8만 바위가 된다. 영평 북쪽에 이르러 못이 되는데, 서지점(西池店)에서 몇 리 정도 들어가면 이른다. 소나무 숲을 뚫은 한 기슭 아래 내가 그 앞에서 가로 지르는데, 물빛의 맑음이 푸른 옥(碧玉) 같다. 좌우의 비취빛 버량에는 여러 꽃들이 다투어 피어 있고, 내 가운데 바위의 힘찬 생김새는 거북이 엮드린 모습 같다. 바위 한 봉우리가 국자 자루처럼 서 있는 것이 벼날가리 같아 이 때문에 이름이 되었다. 봉우리 위에는 단 샘(甘泉)이 있는데, 아주 맑고, 곁에 용굴이 있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바위 아래 작은 구멍은 깊이를 알 수 없고, 빛깔은 아주 검다. 만일 신물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용은 바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돌이 가로 세로로 뚫려 있는데, 흑 과연 그럴까. 바위 위에 제단이 있는데, 가뭄에 희생과 제물을 쓰고, 중사에 올라 있다.(『연경재전집』 50, 기동음산수(記洞陰山水))

성해응은 한탄강변 제일 경관인 화적연에 대해 그림을 보듯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화적연의 형상이 기이하고 영험하여 선조대 이후 국행기우제 터로 이용되었던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성해응은 한탄강의 발원지에 대해 「기동음산수」와 「동수경」⁵에 각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화적연의 수원을 청화산으로 기록한데 반해 대탄강의 근원은 강원도 회양의 송관리로 인식했다. 그는 「동수경」을 집필하면서 한탄강의 지명과 경승지는 대체적으로 신경준의 기록을 따르고 있지만, 「기동음산수」에서 화적연을 기술하면서 허목의 기록을 참조한 것으로

5 『연경재전집』 외집 44, 동수경

보인다.

그리고 조선후기 한반도의 하천 소재지, 연혁 등을 정리하여 집필한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대동수경』⁶에서 한탄강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정약용은 한탄강을 체수(砌水)라고 표현했으며, 각 지역의 역대 기록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철원일대의 체천에서는 고려 승려 무외(無畏)의 「고석정기」를 기록했으며, 화적연을 설명하면서 허목의 「화적연기」를 인용했다. 그리고 김창흡이 은거하며 여생을 보낸 삼부연은 그의 「석천곡기(石泉谷記)」를 통해 설명하였다. 정약용은 한탄강에 대해 인문지리적으로 탐구하면서 유산기와 관찬지리지의 관련 기록을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기술하였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랑한 한탄강의 경승, 영평팔경(永平八景)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양주, 포천, 가평, 영평은 동교(東郊)이고, 고양, 적성, 파주, 교하는 서교(西郊)인데 양교(兩郊)는 모두 땅이 매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 이곳으로 온 자는 가난하고 소진해져서 한두 세대를 내려오면 신분마저 낮아져 품관이나 평민이 되어 버린 자가 많다.”라고 했으며, 또한 “한강 이북 경기지역의 산중 고을은 산이 높고 물이 차가워 심기에 알맞지 않고 들판 고을에 작물을 심기도 하고 심지 않기도 한다.”⁸라며 지금의 경기 북부 지역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묘사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거총론 산수’에 “동교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으나 명승이라고 일컫는 산으로 영평의 백운산이 있고, 삼부연 폭포가 기이하고 웅장하다.”라고 기록하며 경기 북부 지역 중 영평의 백운계와 한탄강 일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⁹

경승(景勝)은 명승(名勝), 명소(名所), 승경(勝景), 승지(勝地) 등으로 표현되며 단어적으로 뛰어난 경치를 가진 곳을 뜻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유가적 관점에서 경승은 ‘수기치인(修己治人)’

의 대상이며 학문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곳이었다.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명한 명승지를 찾아다니며 유람을 즐겼고 이를 통해 성리학자로서 소양을 다졌다. 조선시대의 경승은 ‘팔경(八景)’과 ‘구곡(九曲)’문화로 대두되는데 ‘팔경문화’에 대해서는 도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야기되며 일반적으로 중국 소주의 절경인 ‘소상팔경’이 들어와 전파된 것으로 보며,¹⁰ ‘구곡’문화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무이산에 정사(精舍)를 짓고 구곡을 유람하며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구현한 것을 본받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경승은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닌 정신수양과 교훈, 역사문화가 결합된 장소로 인식하였다.

조선시대를 살던 사대부들은 정신수양과 학문정진에 대상이 되었던 산수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유람하는 것을 즐겼다.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경승지로는 관동팔경, 단양팔경, 송도팔경 등으로 각종 유산기에 기록될 만큼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이와 같은 경승지에 빠지지 않는 곳이 ‘영평팔경’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소암 이병원(李秉遠, 1774~1840)은 “영평 산수 가운데 노닐만한 곳을 쓰다”라는 장문의 기행문을 남겼으며¹¹,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남인의 영수였던 미수 허목은 영평의 산수를 극찬하며 다수의 유람기¹²를 남겼다.

조선 후기 지리지인 『여지도서』에는 영평지역의 이름난 산천으로 백운산과 화적연, 유리연(流里淵)을 꼽았으며, 누정으로 이양정(二養亭)과 금수정(金水亭)을 기록했다.¹³ 이외의 지리지에서도 영평의 주요 경승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영평팔경을 중심으로 관련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하고 있는 영평팔경은 ①화적연(禾積淵,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소재), ②창옥병(蒼玉屏,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③금수정(金水亭,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④낙귀정(樂歸亭,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⑤백로주(白鷺洲, 포천시 영중면 금주리), ⑥청학동(靑鶴洞,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⑦와룡암(臥龍巖,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⑧선유담(仙遊潭,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으로 백운산에서 발원한 영평천변이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 변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화적연의 경치를 최고로 꼽고 있어 가장 많은 시문

6 『대동수경』 제4, 패수, 대수

7 이중환/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6, 121쪽.

8 이중환/이익성 역, 위의 책, 을유문화사, 2006, 194쪽.

9 이중환은 우리나라 산수를 표현하면서 관동팔경과 단양팔경 등 경기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경치를 극찬했는데 유독 경기 북부인 동교와 서교지역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10 안장리, 「소상팔경 수용과 한국팔경시의 유행 양상」, 『한국문화와 예술』 13, 숭실대학교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4.

11 『소암집』 권15 “영평산수가유자기 永平山水可遊者記”

12 『기언』 권27 하편, 산천 상 “백운계기 白雲溪記”

13 『여지도서』 경기도, 영평.



영평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화적연

에 남아 있으며¹⁴ 조선 후기 유행한 진경산수화의 대상이 되었다.¹⁵

화적연¹⁶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벼를 쌓아 놓은 형상을 한 바위와 연못’이다. 허목은 영평지역을 유람한 후 화적연의 형상과 풍광을 아래와 같이 남겼다.

체천의 물은 청화산에서 발원하여 화강의 물과 합류하여 육창(陸昌, 강원 철원의 옛 이름)을 지나 칠담팔만암(七潭八萬巖)이 되고, 영평 북쪽에 이르러 화적연이 된다. 동쪽 기슭은 긴 벼랑과 소나무 숲이며, 그 아래는 석장으로 모두 흰 바위들이다. 북쪽은 석봉으로 수중에 백 척 높이로 서 있다. 위에는 지극히 고요한 감료(甘潦)가 있는데 사람의 기운을 복돋아 준다. 옆에는 용혈석(龍穴石)이 있는데 아래에 끝이 안 보이는 구멍이 있다. 시냇물은 굽이굽이 흘러 남쪽 기슭에 이르면 푸른 절벽이 화적연에 잠겨 있다. 바위 주위에는 소나무며 철쭉이 많다.

(『기언』 권27 하편, 산천 상.)

그런데 『여지도서』에는 화적연을 “유석향(乳石鄉)은 영평현 북쪽 30리에 있는데, 옛 이름이 유석향이고 지금은 화적이라 한다.”¹⁷라고 하며 화적연의 옛 이름을 유석향으로 기록했다. 유석향은 고려시대 향소부곡의 향(鄉)이 있었던 곳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며¹⁸ 이곳에서 유석이 생산되던 것으로 이해된다. 유석¹⁹

은 석영(백석영과 자석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적연 일대에 분포한 화강암에서 석영을 채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적연의 지명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선조대 재상인 박순이 1586년(선조 19) 영평에 은거한 후 화적연의 경치에 탐복해 시를 남기면서 전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곳의 지명이 화적연으로 불리게 된 것은 농경사회의 제례 의식과 연관이 있다.

높이가 20미터 이상 되는 기암괴석이 벼짚단을 쌓아 놓은 형상을 하고 있어 풍년을 기원하는 상징적 의미로 화적연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가뭄이 극심할 때 조정에서 재상을 보내 기우제를 지냈으며, 송도를 포함한 교(郊)지역에서는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유명한 기우제 터였다. 특히 화적연은 용과 관련된 전설과 형상을 하고 있어 기우제 중 용신제를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²⁰

신령스러운 못 엉기어 빠지니 / 靈湫凝湛,

못 물줄기 돌아 흘러 모이네 / 衆流攸匯。

구름과 함께 비를 내려주시니 / 與雲降雨,

응험은 있고 업신여김 없도다 / 有應無怠。

오늘 이 큰 가뭄 / 今茲大旱,

인민의 목숨이 거의 위태롭도다 / 民命其殆。

덕 잃음은 나에게 있으니 / 失德在予,

인민이 무슨 죄 있겠는가 / 赤子何罪。

정성은 자질구레하고 격식조차 갖추지 않았으니 / 微誠未格,

근심과 두려움 날로 더 하네 / 憂懼日倍。

많고도 큰 비 담은 단 못이여 / 庶霈甘澤。

이 굶주림에 은혜를 베푸소서 / 惠此飢餓。

(『백헌선생집白軒先生集』 16, 무진년(1628) 5월 중신을 파견한 기우제문)

그런데 화적연을 유람하던 사대부들은 ‘화적연’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 후기 문신 이민구는 화적연의 풍광을 시로 읊으며 ‘석룡퇴(石龍堆)’라 하며 용처럼 생긴 큰 바위 언덕으로 묘사하였다.²¹ 그리고 박태보는 화적연을 유람하고 난 후 바위의 형상이 거북모양과 같다 하며 “‘화적’이라

14 화적연을 주제로 한 시문은 『서계집』, 『사암집』, 『기언』, 『화서집』 등 23편의 시와 4편의 기(記)가 전한다.(문화재청, 『고서화 고문헌 등에 나타난 명승지원 발굴조사』, 화적연, 2011, 82쪽)

15 정선, 정수영, 이윤영 등 18세기 유명 진경산수화가들이 화적연을 그림을 남겼다.

16 화적연은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와 관인면 사정리 사이의 한탄강변에 있으며, 현재 국가 명승 제93호로 지정(2013. 1. 4)된 경승지로 영평팔경에서도 제1경으로 꼽힌다.

17 『여지도서』 경기도 영평현, 고적.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 영평, 고적에도 “현 북쪽 40리에 유석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8 『세종실록』 지리지 영평현 “영평현의 속성으로 지금 없어진 유석향의 성이 4인데, 서, 임(혹은 백), 하, 윤 이다. 라고” 하며 부락의 의미로 유석향을 사용했다.

19 『한대사전』 “유석(乳石) “고대유복유석법, 유위석종유, 석위백석영, 자석영, 적석지지류 古代有服乳石法, 乳講石鍾乳, 石講白石英, 紫石英, 赤石脂之類”

20 이경석(1595~1671) 『백헌선생집』 권16 ‘무진년(1628) 5월 중신을 파견한 기우제문’

21 『동주집』 권6, 시, 동유록



영평팔경의 제2경 창옥병



창옥병 암각문(선조 윤음)

는 이름이 속되니 ‘귀룡(龜龍)’이라고 불러야 한다.”²² 하여 그의 아버지인 서계 박세당이 ‘귀룡연’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화적연의 경치를 금강산에 견줄만한 경치라고 극찬하며 유람의 소회를 남겼다.

자동 안개에 옷소매 젖어 / 衣袖沾殘紫洞煙
표표히 귀로에 귀룡연에 들어섰네 / 飄飄歸路入龍淵
더욱 어여빠라 그림 같은 열두 봉우리가 / 更憐六六峯如畫
풍악산 일만이천 봉에 방불한 것이 / 欲遍楓峯萬二千
(『서계집』 권3, 시, 후북정록, 화적연)

화적연은 영평지역 경승과 관련한 거의 모든 기록에 등장하는 명소로 18세기에 들어 진경산수화가 유행할 때도 많은 화가들이 찾아 그림을 남겼던 곳이다. 특히 임진강 유역이나 금강산 가는 길에 머물며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 겸재 정선이 금강산 가는 노정에 경치가 뛰어난 곳의 풍광을 그림으로 남긴 ‘해악전신첩’에 화적연이 담겨 있다.

영평천 하류부근에 ‘푸른 옥과 같은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하여 창옥병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창옥병은 선조대 상신으로 영평에 낙향해 은거한 박순이 산수를 향유하다 생을 마친 곳이다. 그의 연보에 따르면 “이곳에 배견와와 이양정을 짓

고 문우들과 시주(詩酒)를 즐기고 청랭담과 창옥병의 산수를 바라보며 수행했다.”라고 한다. 『대동지지』에는 창옥병을 “현의 서쪽 10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창옥병의 폭이 수마정이요, 높이가 40~50자에서 백수십자로 깎은 듯 한 절벽에는 굴곡과 고저가 있고 암혈이 있는가 하면 갖가지 형태의 동물 모양이 돌출된 바위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 크기와 모양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창옥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순과 관련된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연려실기술』에는 박순이 ‘1586년 벼슬길에서 물러나 영평에 살았는데 거처에 배견와(拜鵞窩) · 이양정(二養亭) · 백운계(白雲溪) · 청랭담(淸泠潭) · 토운상(吐雲床) · 창옥병(蒼玉屏) · 산금대(散衿臺) · 청학대(靑鶴臺) · 백학대(白鶴臺) 등이 있었다.’²³ 라고 하여 사암이 낙향하며 지은 배견와와 이양정 주변에는 창옥병과 함께 많은 경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박순은 「이양정기」를 지으며 창옥병 부근에 있는 11개의 명소를 이양정 절벽에 새겼다고 한다.²⁴ 창옥병에는 박순을 비롯하여 영평의 경승에 대한 암각문이 많이 남아 있다.²⁵ 그 중에서도 선조가 박순의 지조와 절개를 높이 내린 윤음인 ‘송균절조 수월정신(松筠節操 水月精神)’²⁶을 석봉 한호가 써²⁷ 영평천가의 거암에 새겼으며, 박순이 짓고 김수증이 쓴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²⁸의 시문이 각자되어 있다.

박순은 창옥병의 풍광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22 『서계집』 권3, 시, 후북정록.

23 『연려실기술』 18권, 선조조 고사본말.

24 『사암집』 권4, 기, 이양정기.

25 창옥병 부근의 암각문은 현재 포천시 향토유적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다.

26 『현종실록』 9년 무신 9월 2일(무술 戊戌)

27 최근 창옥병의 위치비정과 함께 창옥병 암각문 중 선조가 박순에게 내린 윤음을 송시열이 써 각자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노재현 외, 「창옥병의 위치 비정 및 사암 박순의 정원유적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34-4, 한국전통조경학회, 2016.)

28 『사암집』 권2, 칠언절구 ‘제이양정벽 題二養亭壁’.

송시열이 지은 박순의 신도비명에는 “영평에는 백운산이 있어 시내와 못이 절승하였으므로, 공이 이내 집을 짓고 살았는데, 깨끗이 속세에서 벗어나 시사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매일 촌민(村民), 야노(野老)와 함께 자리를 다투며 한가로이 세월을 보냈으며, 배우러 오는 이가 있으면 서로 토론하여 지칠 줄을 몰랐다. 거기에는 유명한 배견와 · 이양정 · 토운상이 있고 백운계 · 금수담 · 창옥병이 둘러 있는데, ... 상이 공에게 영원히 떠나 버릴 뜻이 있음을 알고 어의를 보내어 문병하고 세 차례나 소명을 내렸으나 끝내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 창옥병과 영평에 은거해 남은 여생을 산수유람과 작시(作詩)에 취해 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후학들은 박순의 안빈낙도한 삶을 본받고자 사암이 거처했던 배견와 뒤편에 옥병서원을 지어 그 뜻을 현양했다. 이렇게 볼 때 창옥병과 일대의 경승들은 박순의 향저(鄉邸)와 정원 명소로 파악할 수 있겠다.

창옥병에서 동으로 약 3리 정도 가면 영평천이 거대한 암반에 부딪혀 휘돌아 치는 곳에 정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금수정이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놀이로 전국의 명승을 돌아보는 판놀이인 ‘청구람승도(靑邱覽勝圖)’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총 120개의 경승을 소개하였다. 경상도에 16개소, 경기·충청·전라·황해도에 14개소, 함경도에 13개소, 평안도에 12개소, 한양에 9개소 등 지역마다 고르게 선정하였는데, 한탄강변에는 철원의 삼부연과 영평의 금수정이 포함되었다.

『여지도서』에 금수정은 “현에서 서쪽으로 7리 떨어져 있는



영평팔경 제3경 금수정

데 옛 부사 김확이 복축(卜築)하였다.”²⁹라고 한다. 그런데 금수정을 지은 사람과 소유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포천시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전기 안동김씨인 금옹 김윤복이 정자를 세우고 ‘우두정(牛頭亭)’이라 했다가 김윤복에게 아들이 없어 사위인 봉래 양사언에게 물려주고, 양사언이 정자의 이름을 금수정이라 했으며 이후 안동김씨에게 돌려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 중기 현재의 장소에 김명리라는 사람이 우두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얼마 후 이 정자를 조선시대의 시인이자 서예가로 널리 알려진 양사언에게 주었으며, 이름을 금수정으로 고쳤다.”³⁰라 하는데 양사언 보다 김확(1572~1653)이 후대 인물로 양사언 이후에 금수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계집』에 “금수정은 안동 김씨인 김환의 별업이다.”라고 해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도 안동 김씨의 소유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³¹ 이를 정리해보면 금수정의 옛 이름은 우두정으로 영평천가에 소의 머리처럼 불쑥 솟아오른 형세를 이름으로 표현했으며³², 봉래 양사언이 소유하면서 이름을 ‘금수정’으로 고쳤다. 현재 금수정은 안동김씨 문온공파 후손들의 소유로 양사언 사후 안동김씨가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여유당전서』에는 “금수정이 우두연가에 있으며 그 연못 위에 또 봉래의 시를 새긴 것이 있는데 그 글자체가 역시 기이하다.”³³라고 해 금수정에 당대 명필의 석문(石文)이 남아 있음을 표현했다. 금수정에는 조선시대 4대 문장가이자 서예가로 꼽히는 봉래가 머물던 곳으로 그와 관련된 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특히 금수정이 지상낙원이었다는 뜻을 담은 ‘경도(瓊島)’는 큰 글씨를 잘 썼던 양사언의 필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석문으로 이덕형, 한호, 이서구 등 당대 유명한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양사언의 뜻을 잇고자 했다.

현재의 금수정은 6.25 전쟁 때 완전히 소실된 것을 1980년대 포천시에서 복원한 것으로 시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평팔경 중 화적연, 창옥병, 금수정을 제외한 다른 경승들은 기록이 소략한 편이다. 대부분 박순, 허목, 김창협 등이 영평지역을 유람하면서 지은 시와 기문(記文) 정도만 전하고 있다. 백로주는 축석령에서 발원한 포천천이 북으로 올라가 영평천과 합류하기 전에 위치해 있다. 허목은 백로주기에서 “경성 동북쪽에는 산과 물이 많은데, 영평의 창옥병과 백운계, 청성(지금의

29 『여지도서』 경기도 영평, 누정.

30 문화재청, 앞의 책, 2011, 35쪽.

31 『서계집』 권3, 시, ‘후북정록, 금수정.’

1926년 8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가평 명물 금수정의 景概’에 “지금부터 300여년 전부터 영평김씨의 소유로 있는 금수정은 양봉래(양사언) 선생의 소유가 되었다가 그의 아드님대에 다시 김씨의 소유가 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갑오대에 충정공 민영환 덕에 소유가 되었다가 다시 지금은 김씨의 소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32 포천시, 『포천군지』 하, 1997, 480~482쪽.

33 『여유당전서』 제6집 지리지 제8권, ‘대동수경’, 패수.

포천)의 백로주가 가장 아름답다. 청성의 물은 칠리탄을 지나 휘돌아 심연(深淵)이 된다. 증류에 바위섬이 있는데, 오래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창연히 바위 위에 줄지어 서 있고 양쪽 기슭은 모두 질푸른 기암절벽이다. 바위가 없는 곳은 모래이며, 이것이 이른바 백로주이다.”³⁴ 라고 하며 백로주의 형세를 자세히 묘사했다. 백로주는 영평지역의 경승지가 주목받기 이전부터 지리 지나 고지도에 등장한다. 그 이유는 백로주가 서울에서 관북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인 경흥로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명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³⁵

백로주와 함께 포천천변에 위치한 낙귀정은 『사암집』에 시문이 남아 있으며,³⁶ 『영평군읍지』에는 “군의 남쪽 5리에 있는데 주인은 영의정을 지낸 황씨가 치사 후 고향에 돌아와 정자를 짓고 여생을 즐기다가 모반에 연루되어 사사(賜死)되니 이웃 사람들이 그의 무고를 원통히 여겨 무죄임을 구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낙귀정은 현재는 남아 있지 않으며 구전으로 위치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영평천의 상류로 가면 지금의 일동면 수입리 강가에 크고 작은 돌무리들이 널려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와룡암이다. ‘와룡암’의 명칭은 허목의 『백운산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전에는 ‘용곡소’로 불렸다. 기문에는 “영평현 치소 동쪽으로 20리 가면 수동(水洞)에 와룡암(臥龍臺)이 있는데, 수중 석대(石臺)의 길이가 수십 길이며 물이 깊고 바위가 많다. 시냇가는 온통 키 큰 소나무에 길게 뻗은 골짜기이며, 그 위는 사당이다. ... 반석과 험준한 바위가 많은데 30리가 모두 그러하다. 깊이 들어가면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석장(石場)이 있다.”라고 표현했다. 와룡암은 가평 또는 춘천 방향에서 영평과, 포천 방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곳으로 평소 통행이 잦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고 가는 유객(遊客)들이 쉬어 가는 장소로 활용된 듯싶다.

이외의 경승으로 포천시 영증면에 소재한 청학동과 이동면 도평리 백운계곡에 있는 선유담은 허목의 유람기와 『송국당금강산유산록(松菊堂金剛山遊山錄)』에 소략하게 등장한다. 특히 『송국당금강산유산록』에는 현재 전하고 있는 영평팔경의 모든 명소가 기록되어 있다.³⁷

이처럼 영평팔경은 박순과 양사언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창옥병과 금수정은 사암과 봉래의 개인 별장이었으나, 유람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그들이 남겨 놓은 유산(석문과 낙향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었다.



금수정에 있는 양사언 석문(경도)

글 최동원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조선시대사를 전공했으며, 현재 포천시청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역사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조선 후기 경기 북부지역의 유람문화와 도로의 발달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34 『기언』 권27, 산천상.

35 백로주는 1917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작된 지도(1:67,000)에 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36 『사암집』 권2, 칠언절구 “낙귀추령쇄창연. 유유두원독좌선. 십리징만천첩취. 사군수어노부전 樂歸秋冷鎖蒼煙。惟有頭龜獨坐禪。十里澄灣千疊翠。謝君輸與老夫專”

37 『송국당금강산유산록』은 작자 미상으로 임기중의 『역대가사문학전집』(1998)에 실려 있다. 유산록에는 금강산 가는 길목의 경승지들을 기문으로 남겼다.

의왕시, 의왕향토사료관 그리고 소장 문화재

서영진

의왕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서가 협소하고 남북이 긴 지형으로 동쪽으로는 용인시가 서쪽으로는 안양시, 군포시가 남쪽으로는 수원시가 북쪽으로는 과천시와 접한다. 과거 수원군, 화성군, 시흥군에 행정구역 상 속해 있다가 1989년에 의왕시로 승격하였다. 면적은 54,038km², 인구는 16만이 조금 넘고 6개의 행정구역이 있다. 서울과 인접한 위성도시이지만 규모가 작고 시 면적의 약 85%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접해 있는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에 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재 분야 등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2007년에 개관한 의왕향토사료관 1개관이다. 면적은 전시설 198m², 수장고 99m²이며 단독 건물이 아닌 시립 중앙도서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의왕향토사료관은 작은 규모지만 매년 꾸준히 특별전시를 열고 있고 연중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유물 수집은 대부분의 지자체 박물관과 비슷하게 기증·기탁 중심이며 2019년부터 구입을 진행하고 있다.

의왕향토사료관의 개관 역사를 살펴보자면 2007년 이전 의왕시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중과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과 근현대자료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자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장자들의 대부분이 높은 연령대로 향후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하여 이들을 한군데로 모아 보존·관리함과 동시에 아직 연구되지 않은 많은 자료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 때 규모 있는 박물관 건립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은 작은 규모의 전시설과 수장고가 마련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의왕시는 왕곡동의 청풍김씨, 월암동의 수성최씨, 내손동

의 전주이씨 등이 대표적인 문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왕곡동 청풍김씨 인백파의 후손 김준영님께서 2007년 의왕향토사료관의 개관과 함께 고도서, 고문서, 민속품 등 총 142건 387점을 기증해주셨다. 이 기증유물들을 수년에 걸쳐 정리하고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연구 조사하여 번역총서 4권을 제작·출판하였다.¹ 또한 조사 연구 중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연사일록 및 한글 연행록 2건 4점과 상영도집 1건 1점이 각각 경기도 유형문화재자료 제314호와 제366호로 지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의왕향토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2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2017년에 지정된 『연사일록(燕槎日錄)』과 『연행록』, 2021년에 지정된 『상영도집(觴詠圖集)』의 저자는 의왕 출신 문인 김직연(金直淵, 1811~1884)이다. 청풍김씨 문중에서 기증한 고문헌의 대부분은 김직연과 관련 있는 자료들이다. 김직연은 1811년 12월 17일 광주(廣州) 왕륜면(旺倫面) 사근천리(肆覲川里)에서 출생하였다. 사근천리는 지금 의왕시의 고천동 부근으로, 본래 이름은 사근천(沙斤川)이었다. 자(字)는 경직이고, 호는 품산(品山),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기증 고문헌 중 「품산김선생자술」에서 김직연이 자신의 생애를 자필로 기록한 연보가 있다. 이 연보에 보면 호를 품산(品山)이라고 지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직연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친이 우뚝한 바위가 솟아있는 태몽을 꾸었으므로 아명(兒名)을 ‘바우[巖]’라 하였다. 그런데 그가 관례를 치를 때 고모부인 하우(何愚) 이도재(李道在)가 바위를 뜻하는 ‘뽕’자를 파자(破字)하여 ‘品’자와 ‘山’자로 호를 지어준 것이다. 보통 ‘산’이 붙는 호명(號名)은 실제로 있는 주변의 지명에서 따온 것들이 대부분인데, 품산은 실제 지명이 아닌 아명을 파자하여 재미나게 지은 것으로 상당히 독특한 호라고 할 수 있다. 이 연보에 보면 김직연이 1858~1859(철종 9~10)에 걸쳐 연행을 다녀와 사행의 일을 기록한 『연사록』을 남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1 의왕향토사료관 번역총서 1 『연사일록(燕槎日錄)』, 2011, 번역총서 2 『독고록(讀古錄)』, 2012, 번역총서 3 『연행록』, 2014, 번역총서 4 『상영도집(觴詠圖集)』, 2020.

연사일록과 연행록은 각각 2책 3권(상·중·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사일록은 한자로 연행록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 연사일록을 살펴보면 표제(標題)는 『연사록(燕槎錄)』이나 내제(內題)는 『연사일록(燕槎日錄)』으로 표기되어 있어 제목은 『연사일록(燕槎日錄)』으로 정하였다. 이 책은 조선시대 후기 철종대에 김직연이 북경까지의 사행(使行) 과정을 각각 한자와 한글로 빠짐없이 기록한 글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자료 중 가장 후기 것으로 확인된다.



연사일록 2책3권



연사일록 내제(內題)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사행(使行)의 정사(正使)는 이근우(李根友), 부사(副使)는 김영작(金永爵)이었으며 김직연(金直淵)은 서장관(書狀官)이었다. 상권에는 1858년 10월 27일 한양을 출발하여 12월 25일 북경(北京, 燕京)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다. 중권에는 북경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12월 26일부터 이듬해 2월 3일까지 38일간의 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하권에는 2월 4일 북경을 출발하여 3월 20일 한양으로 귀국해 임금께 복명하는 내용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별단(別單)」, 「문견사건(聞見事件)」, 「문견잡지(聞見雜識)」 등이 첨부되어 있다. 이 중 「별단(別單)」과 「문견잡지(聞見雜識)」는 서장관의 신분으로 연행(燕行)한 저자가

귀국해서 승정원에 바친 공식 문건이다. 여정(旅程)의 일정과 사행(使行)을 통해 접한 청국의 실정을 조정에 보고하기 위해 간략하게 서술한 것이다. 이에 반해 「문견잡지(聞見雜識)」는 김직연이 북경에 머물면서 접한 각종 견문을 자유롭게 서술한 것으로 당시 청국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비롯하여 저자의 감회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글 연행록은 연사일록과 같이 2책 3권(상·중·하)으로 구성은 동일하다. 내용도 연사일록과 동일하나 매일매일의 사행 일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사일록과는 다르게 중간중간 빠진 일이나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 어려운 단어나 개념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해서 기술하였다. 아마도 연사일록은 임금께 복명하기 위한 보고서 형식의 성격이 강하다면 연행록은 일반인들 즉 저자의 주변사람들에게 북경까지의 여정기를 들려주고자 저술한 것이 아닐까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연행록은 500여 종이 넘지만 한문본과 한글본이 함께 있는 경우는 10여종에 불과하다. 또한 김직연이 저술한 연사일록과 연행록은 현전하는 본(本) 중에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시 조선후기 청나라의 혼란한 정세와 그를 바라보는 조선 유학자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역시 김직연이 저술한 『상영도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상영도집은 품산 김직연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상영도(觴詠圖) 놀이를 즐기며 지은 시문(詩文)을 모은 책이다. 불분권(不分卷) 1책 13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정사(精寫)한 필사본이다. 국내에서 발견된 예가 매우 드문 자료로 조사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장장식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영도집의 가치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 책의 표제는 『상영집(觴詠集)』이고 내제(內題)는 『상영도집(觴詠圖集)』이어서 제목을 『상영도집(觴詠圖集)』으로 정하였다. 이 책에는 별도의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이 실려 있지 않아 자세한 편찬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김직연의 유문(遺文) 중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그 제작과 편찬 등을 김직연이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사대부들이 주로 즐겼던 놀이 중 ‘상영도(觴詠圖)’라는 판놀이(일종의 Board Game)가 있다. 말 그대로 ‘술 마시고(觴), 시를 읊조리며(詠), 노는 놀이판(圖)’이다. 놀이를 하려면 81칸을 갖춘 놀이판과 주사위(輪木: 윤목)가 있어야 한다. 또한 놀이를 진행하는 동안 상영(觴詠: 술 마시며 시 짓기)을 위한 술동이와 지필묵도 필수이다. 특정 놀이 칸에 특정된 지시 사항을 수행하며 시문을 지어야 하는데 시문의 완성 여부를 따져 음주를 하게 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임무수행을 성



상영도집 표제(表題)



상영도집 내제(內題)



상영도집 서두(序頭)

공해야 술을 마시는 것이고 실패했을 경우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이다. 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가하는 사람들은 놀이자의 신분을 정해야 한다. 일종의 가상신분이며 이 신분은 놀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특정 놀이 칸의 장소성에 따라 신분에 걸맞은 대우와 과업수행 여부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²

상영도집의 서두(序頭)에 등장하는 인물의 명단은 인씨(人氏)라는 제목이 달려 있으며, 총 14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인물의 본관과 성명이 기재되고 성명 아래에 소자(小字)로 자(字)와 생년(生年)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

래 한 칸을 띄우고 인물의 호(號)가 쓰여 있다. 이 호는 각 작품의 저자 표기에 쓰인다. 인물이 배열된 순서는 생년 순이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작품 목록에는 작품의 제목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작품의 형식이 소자(小字)로 부기(附記)되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작품의 저자가 호(號)로 표기되어 있다.

상영도 놀이에 참여한 문인들의 연력은 1799년생 이용재(李應在, 1799-?)부터 1826년생 이승악(李承渥, 1826-?)까지 다양한 편이며 최대 27살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개인별로 수록된 작품의 수도 차이가 나는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이는 본서의 편찬을 주도한 품산 김직연(13편)이다. 그 다음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상영도



대전역사박물관 소장 상영도

² 상영도 놀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선비들의 와유(臥遊)와 놀이, 상영도 놀이: 경기도 의왕의 인물 김직연이 남긴 판놀이 시문집」, 경기학광장 2020 겨울 호, 장장식, pp111~114.



상영도집 본문

로는 김직연의 고종사촌인 노화(老華) 이승경(李承敬, 1815~?) (11편)이고 이어서 이승경과 같은 한산 이씨(韓山李氏) 집안인 경은(景恩) 이승악(李承渥, 1826~?) (10편)과 초사(蕉史) 홍건후(洪健厚, 1805~?) (10편)의 순이다. 다음으로는 한산 이씨인 기산(綺山) 이승락(李承洛, 1810~?)과 화천(華川) 이승령(李承齡, 1820~?) (각 7편)이 뒤를 잇는데, 이 6명이 남긴 작품의 수가 총 58편으로 전체 80편의 72.5%에 달한다. 반면에 한계(寒溪) 이응재(李應在, 1799~?), 소유(小遊) 권용정(權用正, 1801~1861), 현호(玄壺) 이기재(李沂在, 1816~?)처럼 단 1편의 작품만 수록된 인물도 있다. 14인 중에서 한산 이씨 가문의 인물이 총 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14명인데 상영도의 최대 참여인원은 보통 8명으로 아마 14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놀이판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김직연과 그 사촌들이 중심이 되어 다른 문인들과 소규모로 종종 어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품의 저작(著作) 시기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부 작품들이 김직연의 문집 『품산만필(品山漫筆)』에 수록되어 있고 그 중 일부의 저작 시기가 1850년대에 걸쳐 있다. 따라서 1850년대를 중심으로 주로 상영도 놀이가 벌어졌고 작품들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상영도 놀이 방법을 살펴보면 8종의 놀이자(역할)와 80곳의 여행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놀이자는 각각 사객(詞客), 우사(羽士), 금객(琴客), 검객(劍客), 미인(美人), 승려(衲子), 어부(漁父)인데, 사객은 시인과 같은 문사(文士)를 지칭하며, 우사는 도가(道家)에서 도를 수행하는 도사를, 금객은 거문고를 연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검객은

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협객을 포괄하는 대상이다. 어부는 단순히 어부뿐만이 아니라 도가(悼歌)를 읊거나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 등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다. 상영도집에 수록된 개별 작품의 배경은 모두 중국에 있는 지명을 따왔으며 각 지역과 관련 있는 설화, 역사 등을 설명하면서 시를 짓고 있다.³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영도집』의 가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영도집』은 14인의 문인 작품 80편을 수록한 시문집으로 상영도 놀이판 81칸에 대한 실제 놀이의 결과물이며 상영도시 80편 전체를 수록한 유일한 작품집이다. 둘째, 상영도 놀이에 참여한 개별 문인들에 대한 정보(본관, 자, 출생년도, 호)를 담고 있어 지역사와 지역 인물에 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셋째, 상영도는 승경도, 남승도, 팔선와유도와 함께 조선시대 사대부가 즐겨 놀았던 판놀이 중의 하나로 사대부들의 수준 높은 지적 유희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의왕향토사료관을 대표하는 2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의왕향토사료관은 역사가 길지 않고 외형적인 규모나 예산 지원 등이 타 박물관들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꾸준한 연구와 전시를 통해 조금씩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향후 꾸준한 유물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내실 있고 발전하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글 서영진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를 전공했으며 현재 의왕시청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역에 숨어있는 고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화재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3 80곳의 지명과 자세한 설명은 『상영도집(上影圖集)』, 의왕향토사료관 번역총서4, 김직연 著, 신재용 譯, 2020. 참고

경기도 지역 석탑의 전개과정과 조영 특징

이서현

I. 머리말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 지역에는 삼국시대 불교 관련 유적이거나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백제부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4세기 후반부터 한산주에 사찰을 지었다는 『三國遺事』의 기록으로 보아 경기도 지역 역시 이 무렵부터 불교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불교의 유입 이후 경기도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불상, 석탑, 승탑, 마애불 등 다수의 불교미술이 조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상과 더불어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불탑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의 불교미술에 대한 연구는 개별 유물에 대한 고찰, 사찰 또는 사지에 조성된 유물에 대한 연구, 지역별 조성 현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² 이밖에 특정 시대에 조성된 불교조형물을 다루는 연구 속에서 경기도 지역에 조성된 불교조형물이 연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³ 그러나 경기도 지역 전체를 하나의 문화영역으로 파악하여 전체 불교조형물을 다룬 연

구는 많지 않으며, 경기도 지역 불교조형물을 각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한 연구성과도 많지 않다.⁴ 이 중 경기도 지역 석탑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하여 석탑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은 1편 확인된다.⁵ 이 선행 연구는 경기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조성된 석탑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지정된 석탑 23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에 한계가 있다.

경기도 지역에 남아 있는 석탑 가운데 지정된 석탑은 1998년 이후 현재 29기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정 석탑을 대상으로 하여도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정 석탑 29기를 기본으로, 석탑의 형태가 양호하고 양식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비지정 석탑, 경기도 지역에 있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반출된 석탑 등의 상황까지 고려한 경기도 지역 내 석탑은 약 47기 정도로 파악되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 내 유일한 현존 전탑인 신록사 다층전탑까지 포함한다면 불탑의 수량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선행 연구가 20여 년 전에 이뤄진 만큼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을 새롭게 하여 경기도 지역 석탑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백제 침류왕 원년(384년) 불교 공인 이듬해인 385년 漢山州에 사찰을 짓고 10명의 승려를 출가시켜 그 절에 머물게 했다는 기록(『三國遺事』卷3 興法 難陀闍維條 “明年乙酉創佛寺於新都漢山州, 度僧十人, 此百濟佛法之始”)으로 볼 때 서울지역에는 이미 4세기 후반부터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 지역 역시 이 무렵부터 일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은창, 『龍仁 漁肥里的 三層石塔』, 『고고미술』통권67호, 한국미술사학회, 1966, pp. 168~169; 朴慶植, 『安養 安養寺의 七層塔과 龜趺』, 『文化史學』 제11·12·13호, 韓國文化私學會, 1999, pp.617~685; 朴慶植, 『安養 中初寺址에 대한 考察』, 『實學思想研究』14집, 역사실학회, 2000, pp.85~112; 박경식, 『경기도 안성시의 석불과 석탑에 관한 고찰』, 『고문화』5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0, pp. 71~109; 황보경, 『河南地域 佛教遺蹟에 대한 研究』, 『古文化』56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0. 12, pp. 181~213; 엄기표, 『利川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0호, 한국문화사학회, 2003, pp. 161~188; 황보경, 『漢江流域 신라 佛教遺蹟의 현황과 특징』, 『신라사학보』12호, 신라사학회, 2008. 04, pp. 213~271; 오호석, 『고려 초기 竹州지역의 석탑과 건립배경』, 『선사와 고대』31, 한국고대학회, 2009, pp. 259~287; 이순영, 『조선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18,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pp. 239~271; 엄기표, 『하남 춘궁동 3층과 5층 석탑의 건립시기와 의의』, 『선사와 고대』34, 한국고대학회, 2011, pp. 305~331; 최성은, 『죽주(竹州) 장명사지(長命寺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초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3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1, pp. 515~536;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pp. 1~36; 김훈래, 『여주 신록사 다층석탑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제2집,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3, pp. 77~113; 엄기표, 『남양주 水鍾寺의 조선시대 승탑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285, 한국미술사학회, 2015, pp. 131~164; 최성은, 『평택 深福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 『동국사학』65,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pp. 235~266; 이서현,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연구』, 『문화재』52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pp. 90~119 외 다수.

3 석탑의 경우를 예로 들면, 경기도 지역 내 고려~조선시대 석탑이 많은 관계로 이에 관한 연구에서 경기도 지역 석탑이 비교 검토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홍대환,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진정환,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은주, 『고려시대 신라계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송지현, 『조선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등.

4 박경식, 『경기도의 석조미술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9호, 1998, 6, pp. 65~80; 박경식, 『京畿道の 石燈에 관한 考察-지정된 석등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8호, 한국문화사학회, 2002. 12, pp. 173~190.

5 박경식,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0호, 1998, 12, pp. 95~122.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경기도 지역 석탑 48기(전탑 1기 포함)를 새롭게 선정하였고 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정리, 분석 및 종합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건립시기, 분포, 양식 등에 따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며, 경기도 지역에서 석탑의 확산과 전개과정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과 양식

1. 석탑 현황

경기도 지역⁶에는 신라~조선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발간된 『한국사지총람』의 폐사지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전국의 폐사지는 5,393개소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총 536개소의 사지가 확인되었는데 가장 많은 곳은 47개소의 연천군이며, 그 다음으로는 44개소의 안성시, 다음으로는 용인시에

서 42개소가 확인되었다.⁷ 아마도 사찰의 건립과 함께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아 있는 석탑 수량은 사지의 개소 보다는 현저히 적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기도 지역 석탑 가운데 지정문화재를 포함, 비교적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47기의 석탑과 1기의 전탑을 포함하여 총 48기를 고찰대상으로 삼았다.⁸ 그러나 사지 발굴조사 등을 통해 탑재 일부가 출토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경기도 지역 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8기의 석탑 현황을 보면, 문화재로 지정된 석탑 30기, 비지정 석탑 16기 국외 반출 석탑이 1기, 도난 1기로 구분된다. 지정 석탑의 경우 선행 연구가 발표된 1998년 이후 7기의 석탑이 새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⁹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현재 행정구역 상 16개 시·군에 분포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곳은 안성시로 총 10기의 석탑이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용인과 이천에 6기가 남아 있고, 여주 5기, 안양 3기 순이다. 가평, 고양, 과천, 남양주, 양평, 하남, 화성 등은 2기, 구리, 의정부, 파주, 평택 등은 각 1기의 석탑이 남아 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 석탑은 주로 경기남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은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표

연번	석탑명	시·군(수량)	시기	지정현황	비고
1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가평군(2)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63호	
2	가평 하판리 지진탑		고려후기	문화재자료 17호	
3	북한산 용암사지 석탑	고양시(2)	고려후기	비지정	석탑재
4	북한산 상운사 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5	연주암 삼층석탑	과천시(2)	고려후기	유형문화재 104호	
6	과천 문원리 삼층석탑		고려후기	문화재자료 39호	
7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구리시(1)	고려후기	유형문화재 205호	

6 경기도는 현재 행정구역 상 남쪽으로는 충청남도과 접해 있고, 서쪽은 인천과 서해, 동쪽은 강원도에 접해 있으며, 북쪽은 황해도와 닿아 있다. 경기도 행정구역은 신라~고려까지 조급 변화가 있어 왔지만 조선 초 한양 천도 무렵부터 점차 오늘날과 유사하게 자리잡았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 내 석탑을 살펴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이 글의 서술과정에서 사용하는 “경기도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지역 내 소재하지만, 기증 등을 통해 移建되어 경기도 내 사찰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휴전선 이북에 포함된 지역 역시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하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서울은 경기도 지역과 거의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생각되나, 수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경제·행정·문화가 집약된 지역으로, 불교미술 역시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나므로, 이 글에서는 현재 서울지역에 조성된 불교미술은 제외하였다. 서울지역 불교미술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엄기표, 「서울지역 佛敎文化의 展開 過程과 特徵 -石造美術을 中心으로-」, 『郷土서울』7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1, pp. 145-206.

7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사지총람』, 2010.

8 본 논문은 석탑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도 포함시켰다. 이유는 신륵사 다층전탑이 경기도 내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탑이면서 신륵사 내에 건립된 다른 석탑들의 분포와 건립시기를 파악하는데 함께 검토하는 것이 무방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 특별히 전탑으로 구분하지 않는 이상 전체 연구대상을 모두 칭할 때는 ‘석탑’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9 박경식 선생의 1998년 논문에서는 강화 하점면 오층석탑도 경기도 석탑으로 포함하여 지정 석탑을 23기로 보았으나, 현재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해당하고,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행정구역 변천을 보아도 인천지역에 해당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연번	석탑명	시.군(수량)	시기	지정현황	비고
8	수중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시(2)	조선전기	보물 1808호	
9	묘적사 팔각다층석탑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279호	
10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시(10)	고려전기	보물 435호	
11	매산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12	죽산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78호	
13	신창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제130호	
14	죽림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79호	현 칠장사
15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현 죽산면사무소
16	청룡사 삼층석탑		고려중기	문화재자료 59호	
17	도기동 삼층석탑		고려후기	문화재자료 76호	
18	청원사 칠층석탑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116호	
19	장원리 삼층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2011년 도난
20	삼막사 삼층석탑	안양시(3)	고려후기	유형문화재 112호	
21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고려후기	유형문화재 164호	
22	안양 미륵당지 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현 의왕시
23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양평군(2)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80호	
24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고려전기	문화재자료 21호	
25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시(5)	고려중기	보물 91호	
26	여주 하리 삼층석탑		고려중기	보물 92호	
27	여주 신록사 다층석탑		조선전기	보물 225호	
28	여주 신록사 삼층석탑		고려전기	문화재자료 133호	
29	여주 신록사 다층전탑		고려후기	보물 226호	
30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용인시(6)	통일신라	유형문화재 194호	
31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고려중기	문화재자료 42호	
32	용인 서봉사지 석탑재		고려중기	비지정	석탑재
33	용인 마북동 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석탑재
34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35	용인 용덕사 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36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의정부시(1)	조선전기	유형문화재 186호	
37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천시(6)	고려전기	유형문화재 106호	
38	이천 관고동 오층석탑		고려중기	비지정	
39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1916년 반출, 국립중앙박물관
40	이천 갈산동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이천시립박물관
41	이천 후안리 오층석탑		고려전기	비지정	이천시립박물관
42	이천 오층석탑		고려전기	-	국외반출(일본)
43	파주 운계사지 삼층석탑	파주시(1)	고려후기	비지정	현 범륜사
44	평택 심복사 석탑	평택시(1)	고려후기	비지정	
45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시(2)	고려전기	보물 12호	
46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고려전기	보물 13호	
47	용주사 오층석탑	화성시(2)	고려중기	유형문화재 212호	
48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고려후기	비지정	

<표 2> 경기도 지역 석탑 현황(시대별)

통일신라	고려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가평 하판리 지진탑	고양 용암사지 석탑	고양 상운사 석탑
고려			
			
과천 연주암 삼층석탑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과천 문원리 삼층석탑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고려			
			
안성 매산리 오층석탑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안성 신창리 삼층석탑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고려			
			
안성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안성 청룡사 삼층석탑	안성 도기동 삼층석탑	안성 장원리 삼층석탑(도안)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고려			
			
안양 삼막사 삼층석탑	안양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미륵당지 석탑(현 의왕시)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고 려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 하리 삼층석탑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
고 려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용인 서봉사지 석탑재	용인 마북동 석탑
고 려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천 관고동 오층석탑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고 려			
			
이천 갈산동 오층석탑	이천 후안리 오층석탑	이천 오층석탑(국외반출) [사진: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홈페이지]	파주 운계사지 석탑
고 려			
			
평양 심복사 석탑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고 려	조 선		
			
화성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남양주 수증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조 선			
			
여주 신록사 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2. 시대별 석탑 양식

경기도 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553년 경에 신라에 편입된 이후 고려가 들어서기 전까지 신라의 영역에 속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신라의 영역이었지만,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석탑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¹⁰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은 발굴조사 결과 하층기단은 9세기 통일신라 석탑의 하층기단을 재사용하였던 것이 확인¹¹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하층기단 상부의 석탑은 전형적인 고려 석탑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 내에서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석탑은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전형적인 이층기단에 삼층 탑신을 올린 신라 일반형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9세기 말의 신라 전형석탑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초층탑신받침을 별석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갑석 상면에 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로 별석 받침을 다시 올린 초층탑신받침은 보령 성주사지에 건립된 4기의 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라 석탑의 탑신받침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¹²

경기도 지역 석탑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고려 석탑이다. 49기의 탑 중에서 통일신라 석탑 1기, 조선 석탑 6기 인데 비해 고려 석탑은 41기로 압도적인 수량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에 석탑 조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 지역 대부분에 고려 석탑이 남아 있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남아 있는 수량은 주로 1~2기가 확인 되는데, 안성, 용인, 이천, 여주 등은 5기 이상씩 분포하고 있어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성은 봉업사지 일대를 중심으로 죽산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천은 설봉산 주변으로 현재의 이천 시내 부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주는 남한강 주변과 신록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은 특정한 곳에 집중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건립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15기, 고려 중기는 7기, 고려 후기는 19기로 파악되고 있어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석탑이 가장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전기 석탑으로는 봉업사지 오층석탑, 죽산리 삼층석탑,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등으로 고려 전기 석탑 대부분이 안

10 경기도 지역 내 통일신라 불교미술은 불상의 경우 최근 죽산리 석불입상이 통일신라 불상일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당간지주는 장의사지 당간지주, 중초사지 당간지주 등이 있다.

11 경기도박물관, 『고려 왕실사찰 봉업사』, 경기도박물관, 2005, p. 206.

12 이순영, 『신라 석탑에서 별석 탑신받침의 형식과 특징』, 『신라사학보』32, 신라사학회, 2014. 12, p. 413.

성과 이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지역적 특수성과 중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이후 고려 중기~후기에 걸쳐서는 특정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역 전반적으로 석탑 건립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은 전국적으로 약 14기 정도 확인되는데, 절반 정도가 서울·경기 지역에 건립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역 내 건립된 석탑을 보면,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묘적사 팔각 칠층석탑,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 등 6기가 확인된다. 현등사를 비롯하여, 수종사, 신륵사, 회룡사¹³ 등이 수도인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조선 왕실의 원찰이거나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승유역불 정책으로 인하여 불사가 전대에 비해 축소되었지만, 왕실과 종척들에 의해 시행된 불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지역의 조선시대 석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⁴

현등사 삼층석탑은 현재는 삼층만 남아 있으나 원래는 5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⁵ 기단부는 2층으로 불상대좌와 같이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의 구조를 보이는데, 조선초기 능묘 석조물과 양식적으로 친연성이 보인다.¹⁶ 또한 기단부 안상과 연화문, 옥개석의 치석수법 등에서는 고려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 고려 석탑을 계승하면서도 조선시대 석조물 양식이 반영되어 두 시대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립시기 역시 현존하는 조선시대 석탑 중 가장 이른 시기인 조선 초기 1411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¹⁷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묘적사 팔각칠층석탑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두 석탑은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은 세조 5년(1459)에 창건되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¹⁸ 이 무렵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묘적사 팔각칠층석탑은 치석수법으로 볼 때,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비슷하거나 약간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 신륵사 다층석탑은 평면 방향의 일반형 석탑이나 대리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또한 기단은 불대좌 형식을 보이고 있고 면석에 파도문, 운룡문 등을 조각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불교도상을 조각하는 석탑장엄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기단부의 운족형 안상, 연판무늬 등은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매우 유사하고 운룡문이 조각된 사례로 보아 왕실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정확한 층수를 알지 못해 ‘다층석탑’으로 불리고 있는데, 체감율을 검토한 결과 13층의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¹⁹ 회룡사 오층석탑은 평면 방향 일반형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현등사 삼층석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기단부의 안상, 연화문 형식 등이 수종사 팔각오층석탑과 친연성이 높지만, 조각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수종사 석탑보다 약간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 청원사 칠층석탑은 앞에서 언급한 석탑들보다 세부 양식과 치석수법 등에서 많은 부분들이 간략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 지역 내 조선시대 석탑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13 회룡사는 고려 우왕 10년(1384) 무학대사가 창건했다고도 하고 조선 태조 4년(1395)라고도 전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회룡사라는 寺名으로 불리게 된 것은 태조 7년 태조가 함흥에서 돌아와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하여 회룡사 또한 왕실과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韓國寺刹全書』, “高麗辛禰十年(甲子)無學大師初創·朝鮮太祖四年(乙亥)無學王師 初創 現今無學土窟是也 七年(戊寅)太祖自咸興回駕 臨幸於此 爲王師擴張 改名回龍..”

14 이순영, 「조선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18,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pp. 260~261.

15 이순영, 위 논문, p. 252.

16 이러한 구조는 조선초기 장명등의 화사석과 대석이 단일석으로 조성되는 체석(體石)과 매우 유사하다.

17 이순영, 위 논문, pp. 264~265.

18 『奉恩寺末志』와 『水鍾寺重修記』에 따르면 세조 5년(1459년) 세조가 楊州 兩水江에 行幸하여 龍船을 물에 띄우고 經夜할 때 문득 早谷山(雲吉山)에서 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기이하여 다음날 이곳을 답사하다 산중턱 暗窟에 列坐한 18羅漢像을 발견한 후 팔도의 方伯에게 명하여 그 산중턱에 石階를 만들고 절을 창건하게 했다고 한다. 수종사란 명칭은 세조가 친히 조곡산에 행차해서 땅을 파니 물(水)이 솟고, 또 鍾을 얻어 水鍾寺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30, 국립중앙박물관, 1982, pp. 42~43.)

19 신륵사 다층석탑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김훈래,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제2집,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3, pp. 77~113.

<표 3> 경기도 지역 석탑 양식 특징

연번	석탑명	지역	시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신석	옥개석			
				탱주	상층기단받침	탱주	부연	초층탑신받침		옥개받침	탑신받침	물끓기홈	
1	어비리 삼층석탑	용인	통일신라말	1	2단	1	각형1단	2단+별석	양우주	4단	호형 2단	有	
2	하판리 지진탑	가평	고려후기	-	-	1	-	2단	-	4단	1단	-	-
3	용암사지 석탑	고양	고려후기	-	-	-	-	각형2단	양우주	4단	각형 2단	-	-
4	상운사 석탑	고양	고려후기	1	-	1	-	2단+별석	양우주	4단	2단	-	-
5	연주암 삼층석탑	과천	고려후기	-	2단	×	각형1단	3단	양우주	4,3,3단	2단	有	노반, 양화
6	문원리 삼층석탑	과천	고려후기	안상	-	양우주	×	1단	양우주+문비	3단	1단	有	-
7	아차산 삼층석탑	구리	고려후기	-	-	-	×	2단	양우주	3단	-	-	-
8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	-	-	1단	양우주+문비	5단	2단	-	-
9	매산리 오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3단	양우주	호형	각호각3단	-	3단	1단	有	-
10	죽산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2단	양우주	×	연화문	양우주	4단	2단	-	-
11	신창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2단	양우주	각형1단	2단	양우주	4단	2단	-	-
12	죽림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전기	-	-	-	×	호각2단	양우주+문비	4단	2단	-	노반
13	일죽 죽림리 삼층석탑	안성	고려후기	1	-	양우주	×	-	-	4단	-	-	노반
14	청룡사 삼층석탑	안성	고려중기	-	각호각3단	1	호형	각호각3단	양우주	4단	1단	-	-
15	도기동 삼층석탑	안성	고려후기	-	-	양우주	×	-	양우주	1단	-	-	-
16	장원리 삼층석탑	안성 (현 도남)	고려후기	-	-	양우주	-	-	-	4단	2단	-	-
17	삼막사 삼층석탑	안양	고려후기	-	-	1	×	3단	양우주	3단	-	-	-
18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	고려후기	-	별석각형2단	양우주	각형1단	각형1단	양우주	4,4,3단	2단	-	-
19	미륵당지 석탑	안양 (현 의왕)	고려후기	-	-	-	-	-	양우주	3단	1단	-	-
20	지평리 삼층석탑	양평	고려전기	-	-	-	-	-	사방불	4단	2단	-	-
21	용천리 삼층석탑	양평	고려전기	-	2단	1	-	2단	양우주	3단	1단	-	노반, 복발
22	창리 삼층석탑	여주	고려중기	안상	연화문	×	호형	2단		3단	-	-	-
23	하리 삼층석탑	여주	고려중기	-	호각형2단	양우주	각형1단	2단	양우주	4단	2단	-	-
24	신륵사 삼층석탑	여주	고려후기	-	2단	1	호형	연화문	양우주	3단	2단	-	-
25	신륵사 다층전탑	여주	고려후기	-	-	우주	-	-	-	2단	3단	-	노반, 복발, 보륜 등
26	공세리 오층석탑	용인	고려중기	안상	연화문	양우주	호형	×	양우주	3단	1단	-	-
27	서봉사지 석탑재	용인	고려중기	-	-	1	-	2단	양우주	3단	1단	-	-
28	마복동 석탑	용인	고려후기	-	-	-	-	연화문별석(?)	양우주	5,4	1단	有	노반
29	용천리 오층석탑	용인	고려전기	-	-	양우주	-	-	양우주	4단	2단	-	-
30	용덕사 석탑	용인	고려후기	-	호각형2단	1	낮은호형	각호각3단	문비/향로	4단	1단	-	-

연번	석탑명	지역	시기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하층기단		상층기단			탑신석	옥개석			
				탱주	상층기단받침	탱주	부연	초층탑신받침		옥개받침	탑신받침	물끓기흙	
31	중리 삼층석탑	이천	고려전기	-	호각형2단	양우주	각형1단	각호각3	양우주	5단	2단	-	-
32	관고동 오층석탑	이천	고려중기	-	-	-	-	호각형2단	-	4,3,3,3,3	1단	-	-
33	안흥사 오층석탑	이천 (현 서울)	고려전기	1	1단	1	각형1단/ 물끓기흙	각호각호4단	양우주	5단	1단	有	-
34	갈산동 오층석탑	이천	고려전기	-	-	-	-	각형1단	×	3단	-	-	-
35	후안리 오층석탑	이천	고려전기	-	-	-	호형	각호각형3단	-	3단	1단	有	-
36	이천 오층석탑	이천 (현 일본)	고려전기	-	각형 2단	1	각형1단	각형2단	양우주	5단	2단	-	-
37	운계사지 삼층석탑	파주	고려후기	-	-	-	-	-	양우주	3단	2단	-	-
38	심복사 석탑	평택	고려후기	-	-	-	각형1단	호각형2단	양우주	4,3,3	2단	-	노반
39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	고려전기	1	1단	-	각형1단	각형1단	양우주	5,4,4,4,3	1단	-	노반
40	동사지 삼층석탑	하남	고려전기	안상	2단	1	각형1단	호각형2단	양우주	5,4,4	1단	有	-
41	용주사 오층석탑	화성	고려중기	안상	-	위패형	호형	1단	양우주/문비	4,4,3,3,?	2단	-	-
42	용주사 천보루 앞 오층석탑	화성	고려후기	-	1단	양우주	-	호각형2단	양우주	3단	1단	有	노반, 복발, 양화 등
43	현등사 삼층석탑	가평	조선전기 (1411)	안상	연화문	연주형	옥개형	연화문	우주+탱주	3단	1단	-	-
44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남양주	조선전기 (1493)	안상	연화문	원형	연화문	연화문	우주+額	3단	2단	-	복발
45	신륵사 다층석탑	여주	조선전기 (1473)	운족형	연화문	운룡문	연화문	-	양우주	3단	1단	-	노반
46	묘적사 팔각칠층석탑	남양주	조선전기 (15C)	안상	연화문	원형, 안상	연화문	연화문	우주+額	3단	2단	-	복발
47	회룡사 오층석탑	의정부	조선전기 (15C)	운족형/ 안상	안상+ 연화문	額	연화문	연화문	우주+額	2단	2단	有	-
48	청원사 칠층석탑	안성	조선전기 (15C말)	안상	-	우주	연화문	-	양우주	2단	1단	-	-

III. 전개과정과 조영 특징

1. 분포에 따른 특징

경기도 지역 석탑 분포 현황은 크게 경기북부와 남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주로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지역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수도였던 경주에서는 매우 번방지역에 해당하였고, 통일 이후에는 서해안 방면과 한강 이북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전처럼 강화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미술의 확산도 그리 활발하

지 않았기 때문²⁰에 경기남부 일부에 소수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기북부 지역 역시 다수의 석탑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국전쟁 당시 격전장이었고, 현재에도 군사지역이라는 점에서 전쟁으로 인해 대다수 파괴되었을 것²¹이라는 점 등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분포 현황을 크게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경기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파주 등이다. 이 지역의 석탑은 9기로 전체 경기도 지역 석탑 수량에 비하면 20% 미만에 해당하여

20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pp. 28-29.

21 박경식,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0호, 1998, 12, p. 110.

집중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의정부 회룡사 오층석탑 등 조선시대 석탑의 분포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들 사찰은 대부분 조선 초기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거나 왕실 원찰이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들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강변에 비보탑 성격의 자연석 기단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과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연석 기단의 발생은 통일신라 석탑의 변화 유형의 하나로, 자연암반을 하층기단으로 삼는 발상을 통해 하층기단을 생략하여 자연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조성한 것과 전형양식의 기단 전체를 생략하여 자연석으로 기단을 대체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²² 두 유형은 모두 경주 남산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지적 특징은 고려시대에 높은 지대이거나 강을 끼고 넓은 시계를 확보하는 위치에 불탑을 건립하여 佛力에 의한 山川裨補 思想의 뜻이 담겨져 있는 裨補塔의 성격을 갖는 석탑들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비보탑 성격의 석탑은 주로 산 정상에 자연석 기단 석탑으로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다.²³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은 모두 강변에 위치하여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자연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조성하여 건립한 유형²⁴으로 사찰 가람의 일반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비보적 성격’으로 건립되었다고 생각된다.²⁵

세 번째, 고양시에 해당하는 석탑으로 상운사 석탑, 용암사지 석탑이 모두 북한산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산은 고대부터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으며, 그에 따른 사찰 건립과 수많은 불교미술이 조성되어 왔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북한산 내 사찰들은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는데, 상운사와 용암사 역시 당시의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석탑 건립이 이뤄졌던 것으로 이해된다.²⁶

네 번째, 경기북부 지역 석탑 9기를 제외한 39기가 경기남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27기가 안성, 이천, 용인, 여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경기도 지역 석탑의 가장 주목되는 분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행정구역 경계가 인접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석탑이 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성은 신창리 삼층석탑, 청룡사 삼층석탑, 도기동 석탑을 제외하면 대부분 죽산을 중심으로 한 곳에 석탑이 집중되어 있어 죽산이 불교미술 조성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皆次山郡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介山郡으로 바뀌고 고려 940년(태조 23)에 竹州로 승격된 곳이다. 죽주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해왔다. 삼국시대 고구려나 백제는 현재의 서울에서 이천을 거쳐서 충주와 청주 방면으로 진출했고, 신라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충주를 발판으로 한강 하류로 진출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서든 남북과 동서 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 죽주지역이었다.²⁷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은 사찰의 건립으로 이어지는데, 매산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永泰2년명 탑지석을 통해 766년경 사찰이 창건되어 있었고, 봉업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華次寺 명문기와를 통해 832년과 854년 등 통일신라부터 불사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죽주는 봉업사를 중심으로 불교미술 조성이 매우 활발하였다. 이는 고려 건국 직후인 925년 能達이 주도한 대규모 불사가 봉업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능달은 청주 호족 출신으로 왕건의 개국에 기여한 인물로, 그가 죽주에 파견되어 불사활동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왕건이 궁예의 지지기반이었던 청주세력을 비롯하여 죽주에 남아 있던 친 궁예적인 호족세력들을 견제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죽주지역에는 석탑을 비롯하여 매산리 석조보살입상²⁹, 봉업사지 석불입상³⁰, 장명사지

22 이순영,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 247.

23 홍대환, 「高麗時代 塔婆 建立에 反影된 裨補風水」, 『역사와 경계』82, 부산경남사학회, 2012. 3, pp. 76~77.

24 비보탑 성격의 석탑을 모두 ‘자연석기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자연암반 위에 단층기단을 세운 석탑과 자연암반 자체를 기단으로 삼는 석탑은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발생 원인으로 자연석기단 석탑은 과제석기단 석탑의 영향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이순영, 위 논문, 2018, p. 247.)

25 경기도 지역 내 현존 전탑은 신륵사 다층전탑이 유일하다. 그러나 안양의 안양사에도 태조 왕건이 건립한 칠층전탑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사 칠층전탑 역시 비보풍 수적 성격이 건립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지석, 『安養寺 七層塔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7호, 한국문화사학회, 2007. 6, pp. 675~695.)

26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의 건립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서현,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연구』, 『문화재』52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pp. 90~119.

27 정성권, 앞 논문, 2013. 3, pp. 4~5.

28 경기도박물관, 위 보고서, 2002, p. 526.

29 정성권, 「안성 매산리 석불 입상 연구 - 고려 광종대 조성설을 제기하며-」, 『문화사학』17, 한국문화사학회, 2002, pp. 287~312.

30 최성은, 「나말러초 중부지역 석불 조각에 대한 고찰-궁에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pp. 4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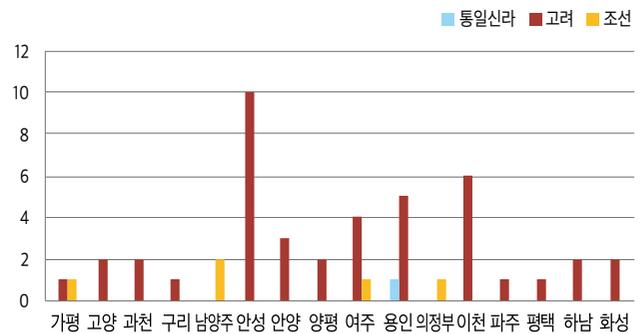
석불좌상³¹, 기슬리 석불입상³² 등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다수의 석불이 확인되고 있어 고려전기 경기도 지역 불교미술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천은 호법면 후안리에서 발굴된 후안리 삼층석탑을 제외하면 중리, 관고리, 갈산동 등 雪峯山과 福河川 사이 이천 시내 부근에 석탑이 집중 건립되었다. 이천지역은 조선시대에 淸川驛, 阿川驛, 仍邑院, 貫川院³³ 등의 驛院이 있어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1895년 후대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利川府移屬陰竹縣邑誌』에 의하면 음죽현에서 북쪽은 利川大路로 통하고, 동쪽은 竹嶺大路로 통하며, 서남쪽은 鳥嶺大路로 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북쪽에서 영남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령이나 조령을 넘어야 하는데, 당시 이천대로를 통하여 왕래했음을 알 수 있다.³⁴ 한편, 설봉산에는 설봉산성이 남아 있는데, 신라 지방군사조직인 南川倂이 설치되었던 군사·행정의 요충지였다. 官庫里의 옛 지명은 官後里로 조선시대 進上米를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던 것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하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천지역은 군사적, 행정적 뿐만 아니라 물자의 수송에도 중요한 곳이었다. 또한 설봉산은 이천의 鎭山으로 정상 부근에 영월암이 있으며 영월암 마애여래입상(보물 제822호)으로 볼 때 나말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이천 불교문화의 중심지 역할³⁵을 했기 때문에 이 일대에 석탑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은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일신라 석탑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있는데,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용천리 오층석탑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고려중기 이후의 것이다. 앞서 살펴본 안성, 이천과 달리 용인 내에서 특정한 곳에 석탑이 집중 건립되기 보다는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용인의 광고산 서봉사지가 용인지역에서 불교문화가 가장 성행했던 곳으로 생각되는데, 부서사 주지였던 현오 국사 종린의 입적 후 왕명에 의해 1185년 세워진 서봉사지 현오 국사탑비가 남아 있어 고려중기 주요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 초 1407년 『태종실록』에서는 여러 고을의 資福寺를 정하는데 천태종 사찰로 서봉사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불경을 간행했던 사찰로 기록되어 있고, 광고산 일대의 사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어 이 일대 사찰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주는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 신륵사 다층석탑 등 신륵사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창리 삼층석탑, 하리 삼층석탑 역시 신륵사와 마주보는 남한강변 부근으로 여주의 석탑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양쪽 강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주는 신륵사 외에 고려초기부터 대찰로 변창한 고달사에 원종대사 해진탑과 고달사지 부도, 원종대사 해진탑비 등 뛰어난 조각수법을 보이는 불교미술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³⁶, 고려초기에는 고달사가 여주지역 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고달사는 조선시대에 서서히 쇠락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폐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말 나옹선사가 신륵사에서 입적한 이후부터 조선시대에는 신륵사가 여주지역 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⁷ 신륵사의 사세는 조선초기 영릉의 원찰로 확정되면서 1472년(성종 3)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최전성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신륵사 다층석탑이 건립되었으며, 왕을 상징하는 용이 석탑 기반부 장엄조식으로 등장하는 등 원찰로서 국가의 지원과 함께 寺格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기도 지역 시군별 석탑 분포 현황

31 최성은, 『죽주 장명사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 초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36,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p. 533.

32 정성권, 「안성 기슬리 석불입상 연구-궁에 정권기 조성 가능성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25, 신라학회, 2012, pp. 351~399.

33 『新增東國輿地勝覽』卷 8, 利川都護府, 驛院條. 『東國輿地志』, 利川都護府條.

34 . 엄기표, 「利川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0호, 한국문화사학회, 2003, p. 177.

35 영월암에는 보물로 지정된 마애여래입상 외에도 영월암 석조광배 및 연화대좌(나말려초), 영월암 삼층석탑(고려), 석조여래좌상(나말려초) 등의 석조미술이 남아 있다.

36 엄기표, 「여주 高達寺址의 淨屠와 塔碑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18, 동악미술사학회, 2015, pp. 123~164.

37 신륵사에는 석탑 외에도 보제존자 석승, 탑비, 석등, 팔각원당형 승탑, 원구형 승탑 등 조선초기부터 불교미술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 지역의 중심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건립시기에 따른 특징

경기도 지역 석탑을 건립시기 별로 구분해 본 결과, 통일신라 1기, 고려전기 15기, 고려중기 7기, 고려후기 19기, 조선 6기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보면 고려시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고려전기와 고려후기에 집중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일하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물론 죽산리 삼층석탑은 발굴조사 결과 9세기 통일신라 석탑 기단부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온전히 석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비리 삼층석탑이 유일하다. 통일신라 석탑은 9세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경기도 지역에는 거의 건립되지 않았다. 그동안 신라 불교문화가 전파된 현황에 대해 신라 일반형 삼층석탑의 북방한계는 금강산-속초 향성사지 삼층석탑³⁸-인제 한계사지 삼층석탑-홍천 물결리 사지 삼층석탑-횡성 증금리 삼층석탑-원주 거둔사지 삼층석탑-안성(봉업사지) 죽산리 삼층석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³⁹ 이를 통해 보면 상대적으로 강원지역보다 경기지역에는 신라 석조미술품이 소수만 남아 있다.⁴⁰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지역 신라석탑의 북방한계는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까지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비리 삼층석탑이 경기도 지역 내 현존하는 유일한 신라석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려전기 석탑은 대부분 안성, 이천에 집중 건립되었으며, 양평, 하남, 용인에서 소수 확인된다. 안성과 이천에 고려전기 석탑 건립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분포현황에서 검토하였다. 양평은 지평리 삼층석탑과 용천리 삼층석탑이 해당되는데, 지평리 삼층석탑은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어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한 사방불 석탑이다. 용천리 삼층석탑은 사나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나사는 태고 보우가 용문산 소설암에서 입적한 후 사나사에 석종과 석종비를 세웠다. 그러나 용천리 삼층석탑은 신라계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있어 이보다는 이른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은 용인의 유일한 고려전기 석탑으로 죽산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전기에 죽산지역의 석탑 건립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중기 석탑은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화성 등지에서 비교적 소수 확인되는데, 고려전기 석탑 건립의 영향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려후기 석탑은 19기로 가장 많이 확인된다. 고려후기 석탑은 경기도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이 시기에 석탑 건립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경기북부 지역에 석탑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나, 남아 있는 석탑이 대부분 고려후기~조선 전기에 해당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다수 파괴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이 거의 없다는 점은 약간 의아스럽다. 일반적으로 고려는 건국 직후부터 전국적으로 석탑 건립이 확산된다. 통일신라 전형 석탑 양식을 기본으로 변화를 보이거나, 백제석탑 양식을 계승한 석탑, 평양 일대에서 평면 팔각형 석탑이 다수 건립되어 백제와 고구려 석탑을 재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들과는 달리 고려만의 새로운 양식의 석탑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양식의 석탑이 전국적으로 분포한다.⁴¹ 물론 경기북부 사지 중 고려전기부터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곳들도 있고, 포천 구읍리 석불입상 등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석불도 일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에는 고려전기에 해당하는 석탑은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석탑 건립의 사례가 극히 드문 것을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파괴만을 이유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려 태조는 건국 직후 후백제의 항복을 받은 곳에 개태사를 세우고 석조삼존불입상(936년)과 개태사 오층석탑을 조성한다. 개태사에 조성된 석조미술품은 통일 후 최초로 조성한 불교미술품으로서 고려만의 새로운 불교미술품 양식의 태동이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후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등은 광종의 왕권 강화와 왕즉불 사상과 관련이 깊다.⁴² 이러한 사례로 볼 때 고려 건국 초기에는 개경 부근의 활발한 불사와 함께 통일 전쟁 과정에서 상징성이 있는 지방이나 호족 세력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지방에 주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사찰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북부에는 석탑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 석조미술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는 불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전기의 교통로를 살펴보면, 고려전기에 개성에서 서울 방향으로

38 이순영, 「신라 향성사지 3층 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시기」, 『신라사학보』35, 신라사학회, 2015, p. 127.

39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38.

40 이는 문화전파 경로로서 당시의 교통로가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순영, 「강원지역의 신라 석조미술품 확산과 전파경로-인제 한계사지 석조미술품을 중심으로」, 『豪佛 鄭永鎬 博士 八旬頌祝紀念論叢』, 2015, p. 400.

41 홍대환,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327~329; 진정환,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15~18.

42 정성권, 「안성 매산리 석불입상 연구-고려 光宗대 조성설을 제기하며-」, 『문화사학』17호, 한국문화사학회, 2002, pp. 287~312.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해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1~4차-』, 2006, pp. 50~51 및 p. 66.

향하는 길은 개성-장단-적성-양주-의정부-서울로 통하는 길과 장단-임진나루-파주-고양-서울로 통하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전자는 삼국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온 길이고 임진나루와 혜음령을 연결하는 길은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종 21년(1067년)부터 남경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양주를 거치지 않고 파주를 거쳐서 남경으로 통하는 즉,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 파주-(혜음령)-고양 교통로가 새로운 교통로로 각광받게 되었다.⁴³ 실제로 양주-의정부 일원에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양주는 양주 회암사지를 중심으로 조선전기에 불교미술이 집중되어 있고 의정부는 망월사, 회룡사 등에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불교미술이 다수 남아 있다. 또한 연천은 심원사에 조선시대 석종형 승탑이 다수 남아 있는 등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불교유적과 석조미술이 다수 확인된다. 어쩌면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경기북부의 동쪽에 해당하는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엔 고려전기에 대형 불사가 성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 결과 석탑을 포함하여 불교미술 조성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미술사적 의의

경기도 지역 석탑은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조성되었다. 이들 석탑은 각 시대 양식을 반영하고 있어 큰 틀에서 한국 석탑의 양식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기도 지역이라는 공간 영역 속에서 살펴본다면, 나름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경기도 지역 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고양 상운사 석탑,⁴⁴에서 초층탑신받침을 별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탑에서 초층탑신받침은 갑석 상면에 받침이 조출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통일신라시대부터 받침을 별석으로 삽입하는 방식이 등장한다.⁴⁵ 갑석 상면에 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에 다시 별석의 초층탑신받침을 올리는 형식은 보령 성주사지 건립된 석탑 4기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초층탑신받침의

변화는 1층 탑신받침 뿐만 아니라 각 층마다 별석받침을 감입하는 방식, 초층탑신받침 자체를 연화문으로 변화시키는 방식, 탑신받침을 1층 탑신석 하단에 모각하는 방식과 별석받침을 양련형 또는 복련형의 연화형으로 조성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⁴⁶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로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고 성주사지 석탑과 같이 갑석에 탑신받침을 조출하고 다시 별석 탑신받침을 올린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갑석에 탑신받침을 조출하고 그 위에 올린 별석 초층탑신받침에 양련의 연화문을 장식한 예는 고양 상운사 석탑과 용인 마북동 석탑이 유일하다. 별석받침을 연화형으로 변형한 석탑은 원주 용운사지 삼층석탑,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원주 서곡사지 삼층석탑, 안동 임하동 동삼층석탑, 노산 관축사 삼층석탑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석탑의 초층탑신받침의 변화는 통일신라부터 탑신에 안치된 사리에 대한 상징성을 강화하고 고려석탑이 고전화되면서 상승감을 높여주기 위한 시각적 목적 등이 반영되어 다양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⁴⁷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상운사 석탑과 마북동 석탑은 어비리 삼층석탑의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고려시대에 들어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⁴⁸

고려시대 석탑 양식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계승양식과 고려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승양식은 신라, 백제, 고구려 석탑 양식을 계승하는 석탑을 가리키며, 고려양식은 고려시대 석탑만의 독자적인 양식을 갖춘 석탑을 말한다. 경기도 지역 고려석탑을 보면, 신라계 석탑과 고려양식 석탑이 대부분이다. 신라계 석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석탑은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이천 중리 삼층석탑, 이천 오층석탑, 이천 안흥사 오층석탑, 안성 신창리 삼층석탑, 양평 지평리 삼층석탑, 양평 용천리 삼층석탑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신라계 석탑 대부분도 한강 이북을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통일신라 석탑 건립의 북방한계선과 어느 정도는 지역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양식으로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 매산리 오층석탑,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

43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1~4차-』, 2006, pp. 50~51 및 p. 66.

44 용인 마북동 석탑 용인 마북동 석탑은 완전한 석탑 형태를 보이지 않지만, 양련의 연화문이 장식된 별석 탑신받침이 확인된다.

45 최초의 별석 초층탑신받침은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일반형 석탑에서 별석 초층탑신받침이 등장하는 것은 8세기 후반부터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순영, 『新羅 石塔에서 別石 塔身받침의 形式과 特徵』, 『新羅史學報』32, 신라사학회, 2014, pp. 389~432.

46 고려석탑의 탑신받침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홍대한, 『高麗初 石塔의 塔身받침 造形特性에 관한 研究-塔身받침의 起源과 變化를 중심으로-』, 『文化史學』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 615~620.

47 이순영,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 252.

48 이서현, 앞 논문, 2019, p. 113.

		
<p>사진 1. 어비리 삼층석탑 별석 탑신받침</p>	<p>사진 2. 상운사 석탑 별석 탑신받침</p>	<p>사진 3. 마복리 석탑 별석 탑신받침</p>

하리 삼층석탑,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이천 후안리 오층석탑,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등이다. 신라계 석탑도 적지 않으나, 아무래도 고려석탑 양식을 보이는 석탑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 석탑 가운데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되는 석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고려의 친신라정책과 그들이 수용했던 문화적 기반, 그리고 중앙에 진출했던 옛 신라세력에 의해 개성과 인접지역에 신라계 석탑 건립이 촉진되었던 것이고, 반면 후백제 세력은 무신란을 전후하여 모두 몰락하였기 때문에 후백제 세력이 그들의 문화를 경기도 지역에 이식시키지 못하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국한하여 발현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⁴⁹ 한편,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묘적사 팔각칠층석탑은 고려시대의 고구려양식 계승 석탑과는 시기 차이가 있지만, 평면 팔각형 구조를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양식적 원류를 찾기도 한다.⁵⁰ 그러나 세부적으로 기단부의 안상과 연화문, 옥개석의 우동마루 표현 등은 조선시대 능묘조각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어 평면 구조는 영향이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이미 조선화된 석탑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계승양식 석탑과는 차이가 있다.

세 번째, 고려시대 석탑의 결구방식 특징 중 하나인 탑신을 여러 매회의 석재로 나누어 결구하는 방식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결구방식을 조합식⁵¹ 또는 적층식⁵² 등 연구자에 따라 달리 부르는데, 탑신을 구성하는 석재를 2매 이상의 석재를 수직으로 적층하거나, 가로방향으로 결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결구방식은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이천 오층석탑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결구방식이 경기도 지역에서만 나

타나는 것은 아니다. 광주 서오층석탑, 안동 하리동 삼층석탑, 강진 금곡사지 삼층석탑, 화순 한산사지 삼층석탑, 장성 천방사지 오층석탑,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제천 소악사지 삼층석탑 등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비교하면 경기남부 지역에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석탑의 크기는 통일신라 말에 이르면 기단부 규모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레 줄어들고, 사용하는 부재도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통일신라 말 석탑은 대부분 탑신은 1석으로 조성하는데, 고려시대 석탑의 크기가 전대에 비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탑신석을 여러 매회로 나누어 결구하는 방식이 사용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통일신라 말에 소형화된 석탑 제작 방식에서 다시 대형화하여 제작하는 과정에서 1층 탑신을 여러 매회의 석재로 나누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탑신 제작 방식과 관련하여 경기지역 석탑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탑신석과 옥개석을 단일석으로 조성하는 방식이 주목된다. 석탑 부재를 단일화하는 경향이 시대 흐름에 따른 석탑 건립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탑신과 옥개를 단일석으로 제작할 경우 1층 탑신석은 1석으로 조성하고, 1층 옥개와 2층 탑신부터 부재를 단일화하는데, 이처럼 주로 아래층 옥개와 상층 탑신을 단일석으로 제작하게 된다. 아마도 석재를 치석하고 가공하는데 있어 이러한 방식이 제작상 편리하면서도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탑신을 쌓아 올리는데 유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달리 아래층 탑신과 상층 옥개를 단일석으로 조성하여 치석한 석탑도 등장하고 있다.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안성 매산리

49 박경식,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0호, 1998, 12, p. 112.

한편, 구리 아차산 삼층석탑은 안내문에 백제계 석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석탑의 3단 옥개받침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각형 3단 옥개받침 형식은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 오층석탑의 옥개받침과 친연성을 엿보이기는 하나, 아차산 삼층석탑 3단 옥개받침 중 제일 위쪽의 1단은 모서리를 깎아 치석하여 차이가 있다. 2층과 3층 옥개받침은 2단인데, 마찬가지로 위쪽 1단은 모서리를 깎아 치석하였다. 기단부도 완전하지 않아 백제계 석탑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50 박경식, 앞 논문, 1998, p. 114.

51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3.

52 홍대환,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285.

		
사진 4.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탑신 결구방식	사진 5.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탑신 결구방식	사진 6.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탑신 결구방식
		
사진 7.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 탑신 제작 방식	사진 8.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탑신 제작 방식	사진 9. 안성 매산리 오층석탑 탑신 제작 방식

오층석탑 등에서 이러한 방식이 확인되는데, 모두 경기남부 지역에 해당하며 공교롭게도 인근지역이다. 대부분 1층을 제외한 그 상층의 탑신과 옥개를 단일화했는데, 전체의 부분만 적용한 경우도 있고, 2층 이상의 탑신 구성을 모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도 있다. 이들 외에도 부여 홍량리 오층석탑, 공주 반죽동사지 석탑, 강릉 등명낙가사 석탑, 천안 만일사 석탑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소수 확인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주로 경기남부

와 충청 일부에서 보인다. 앞서 탑신을 여러 매로 결구하는 방식도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데, 이러한 탑신 제작 방식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역시 추정컨대, 아래층 탑신+상층 옥개 구성을 석탑 제작 방식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엄조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장엄조식은 시대 양식에 따른 보편적인 유형이 주류를 이루지만, 특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먼저 기단부 조식을 살펴보면, 안상과 연화

		
사진 10.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기단 안상	사진 11. 여주 창리 삼층석탑 기단 안상	사진 12.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갑석 연화문
		
사진 13. 과천 문원리 삼층석탑 기단 안상	사진 14.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기단 위패형 장식	사진 15. 신륵사 다층석탑 기단 운룡문

문이 조각되는데, 안상만 새기거나 안상과 연화문이 동시에 조각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다.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은 하층기단 각 면에 안상을 3구씩 조각하였는데, 전형적인 연화형 안상으로 통일신라 양식을 보이고 있다. 여주 창리 삼층석탑은 하층기단이 면석과 갑석이 단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면석부 각 면에 안상을 2구씩 조각하였고, 갑석 상면은 복련의 연화문으로 장엄하였다.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은 현재 하층기단 면석부가 땅속에 묻혀 있지만, 각 면에 안상을 4구씩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고 한다.⁵³ 갑석 상면은 큼직한 연화문이 복련으로 새겨져 있는데, 모서리 꽃잎이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다. 과천 문원리 삼층석탑은 단층기단의 소형 석탑인데, 기단 지대석은 1매의 판석으로 조성하였고 측면에 2구의 안상이 조각되어 있다.

기단부 장엄 종류 중 특이한 사례는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인데, 단층기단으로 1석으로 조성한 지대석 측면에 안상을 3구씩 조각하였고, 기단 면석에 위패모양을 조각하였다. 이러한 위패

형 장식은 주로 범종이나, 석종형 부도에 조각되는 경우가 많고 석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신륵사 다층석탑의 경우 기단은 불대좌형으로 하층 면석은 파도문, 상층 면석엔 운룡문을 조각하였으며, 대칭되는 갑석부는 상하로 연화문을 새겨 장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상대갑석 상면을 연화문으로 장엄한 석탑으로는 안성 죽산리 삼층석탑, 여주 신륵사 삼층석탑이 있다.

탑신에 새겨지는 장엄은 주로 문비(門扉)인데 내부 공간을 조성하여 감실을 표현하는 경우와 표현에 새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은 1층 탑신 남면의 중앙에 한단 안으로 들어서 공간을 조성하여 감실을 표현하고 있다. 감실 주변으로 장식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어 다른 재질로 문짝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성 칠장사에 있는 죽림리 삼층석탑은 1층 탑신 한쪽 면에 장방형의 문비를 새겼는데 가운데 음

		
사진 16.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문비	사진 17. 안성 죽림리 삼층석탑 문비	사진 18. 과천 문원리 삼층석탑 문비
		
사진 19. 용인 용덕사 석탑 문비	사진 20. 용인 용덕사 석탑 향로조각	사진 21.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문비
		
사진 22. 양평 지평리 석탑 사방불	사진 23. 파주 운계사지 석탑 옥개받침 화문장식	사진 24. 용인 마복리 석탑 옥개석 구름문

⁵³ 李殷昌, 『龍仁 貢稅里 五層石塔』, 『미술사학연구』통권58호, 한국미술사학회, 1965, pp. 80~81.

각선을 세로로 새겨 문짜를 표현하였으며 양문에 원형의 문고리를 양각하였다. 과천 문원리 삼층석탑의 1층 탑신에도 문비가 새겨져 있는데, 얇은 음각선으로 전체 문비를 구획하고 가운데 세로의 음각선으로 문짜를 표현하였으며 그 중앙에 자물쇠 고리가 조각되어 있다. 용인 용덕사 석탑은 한 면에 자물쇠 고리를 새긴 문비가 있고 반대 면에 향로를 조각하여 탑신 내부 사리에 대한 장엄 의사를 높이고 있다. 용주사 오층석탑의 1층 탑신에도 2줄의 돌대로 문비를 구획하고 내부에 자물쇠형 고리를 조각하여 문비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양평 지평리 석탑은 경기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1층 탑신에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옥개석에도 장엄을 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파주 운계사지 삼층석탑은 옥개석 하면에 옥개받침이 전각부와 만나는 모서리에 꽃잎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옥개석 모서리에 풍경을 걸기 위한 구멍 주변을 꽃잎모양으로 장식하는 사례는 밀양 소태리 오층석탑, 성주 동방사지 칠층석탑에서 확인되기도 하나, 옥개석 하단 모서리 부분에 꽃잎모양 장식이 새겨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용인 마북리 석탑은 기단부도 남아 있지 않고 탑신석도 1층만 남아 있어 원형을 알 수는 없으나, 1층 옥개석 지붕면 한쪽에 피어오르는 구름문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다른 석탑에서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어 독특한 장식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기단부 안상, 연화문으로 장식된 갑석, 1층 탑신의 문비 조각, 사방불 등은 다른 석탑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장엄 형태이며, 용주사 오층석탑 기단부의 위패형 문양, 용덕사 석탑의 향로 조각, 운계사지 석탑의 옥개받침 화문 장식, 마북리 석탑 옥개석의 구름문 등의 장식은 특이한 사례로 다양한 장엄조식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 48기의 석탑을 대상으로 양식과 시대별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석탑 건립은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경기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논문은 경기도 지역 석탑의 분포 현황과 건립시기를 분석함에 따라 건립 특징을 도출하여 경기도 지역 석탑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석탑의 미술사적 의의를 통해 그 지역의 불교문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지역 역시 삼국시대 불교가 유입된 이후 고려~조선을 거치는 동안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석탑 건립도 성행하였다. 분포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 보다는 경기남부에 집

중 건립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지역은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이다. 이는 신라 불교문화의 북방한계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고려시대에 들어 이 지역에서 불사가 활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에는 석탑을 건립하는 대형 불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대별 특징을 보면 통일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석탑이 남아 있어 꾸준히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석탑은 용인 어버리 삼층석탑 1기로 신라 불교문화의 북방한계 범위를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주로 고려시대 석탑이 집중 건립되었는데, 고려 전기에 경기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건립되었으며, 고려 후기 역시 전기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에 지속 건립됨을 볼 수 있다. 고려 후기에 들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석탑이 건립되는데, 한층 석탑 건립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가까운 지역과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들에 석탑이 건립되어 당시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석탑 건립은 지역적 특수성, 즉, 교통의 요지인 곳에 주로 건립되는데 안성, 이천, 용인, 여주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 주목되는 지역에 불사가 성행하였고 그로 인해 석탑 건립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술사적인 측면에서는 성주사지 석탑의 영향을 받아 별석 초층탑신받침 석탑이 통일신라~고려에 걸쳐 건립되었다는 점과 고려시대 석탑 중 백제계 석탑은 확인되지 않고 주로 신라계 석탑과 고려양식 석탑이 건립되었다는 점, 탑신 결구 방식과 탑신 제작 방식에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석탑 장엄 조식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고려왕실 사찰 봉업사』, 2005.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寺址』, 2010.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해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1~4차』, 2006, pp. 50~51 및 p. 66.

김훈래, 「여주 신륵사 다층석탑 연구」, 『미술사와 문화유산』제2집, 명지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2013, pp. 77~113.

박경식, 「경기도의 석조미술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9호, 1998, 6, pp. 65~80.

박경식, 「경기도의 석탑에 관한 고찰-지정된 석탑을 중심으로-」, 『문화사학』10호, 1998, 12, pp. 95~122.

엄기표, 「利川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에 대한 考察」, 『문화사학』20호, 한국문화사학회, 2003, p. 177.

엄기표, 「하남 춘궁동 3층과 5층 석탑의 건립시기와 의의」, 『선사와 고대』34, 한국고대학회, 2011, pp. 305~331.

엄기표, 「여주 高達寺址의 淨屠와 塔碑에 대한 고찰」, 『동악미술사학』18, 동악미술사학회, 2015, pp. 123~164.

오호석, 「고려 초기 竹州지역의 석탑과 건립배경」, 『선사와 고대』31, 한국고대학회, 2009, pp. 259~287.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30, 국립중앙박물관, 1982, pp. 42~43.

이순영, 「조선초기 가평 현등사 삼층석탑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18,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0, pp. 239~271.

이순영, 「新羅 石塔에서 別石 塔身받침의 形式과 特徵」, 『新羅史學報』32, 신라사학회, 2014, pp. 389~432.

이순영, 「신라 향성사지 3층 석탑의 양식 특징과 건립시기」, 『신라사학보』35, 신라사학회, 2015, p. 127.

이순영, 「강원지역의 신라 석조미술 확산과 전파경로-인제 한계사지 석조미술을 중심으로」, 『豪佛 鄭永鎬 博士 八旬頌祝紀念論叢』, 2015, p. 400.

이순영, 「統一新羅 石塔의 造形과 特性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p. 247.

이서현, 「북한산 불교 석조미술 연구」, 『문화재』52권 1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pp. 90~119.

李殷昌, 「龍仁 貢稅里 五層石塔」, 『미술사학연구』통권58호, 한국미술사학회, 1965, pp. 80~81.

전민숙, 「고려전기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83.

정성권, 「안성 매산리 석불 입상 연구 - 고려 광종대 조성설을 제기하며-」, 『문화사학』17, 한국문화사학회, 2002, pp. 287~312.

정성권,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 연구-궁예 정권기 조성 가능성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25, 신라사학회, 2012, pp. 351~399.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 38.

정성권, 「경기도 내 통일신라 석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죽산리 석불입상을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86, 부산경남사학회, 2013, pp. 1~36.

진정환, 「고려전기 불교석조미술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 15~18.

최성은, 「나말려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역사와 현실』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pp. 48~52.

최성은, 「죽주 장명사지 석불좌상의 복원적 고찰과 고려 초기 석불 양식」, 『강좌미술사』36, 한국미술사연구소, 2011, p. 533.

홍대한, 「高麗初 石塔의 塔身받침 造形特性에 관한 研究-塔身받침의 起源과 變化를 중심으로-」, 『文化史學』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 615~620.

홍대한, 「高麗時代 塔婆 建立에 反影된 裨補風水」, 『역사와 경계』82, 부산경남사학회, 2012. 3, pp. 76~77.

홍대한, 「고려 석탑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327~329.

글 이서현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석조미술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부터 용인시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활용에 관심이 있다. 현재 경기학예연구회와 전국학예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자체 학예연구직원 간 소통은 물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학센터 소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에서 경기지역학을 전담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 활용, 교육, 전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학센터의 사업은 경기지역학 연구활성화, 경기학 도서 발간·보급, 문화 자원 기록·보존·관리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위사업으로 지역학 강좌·교육, 경기학 조사와 연구, 경기지역학 네트워킹, 경기역사문화총서 발간,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보급, 경기 대표인물 평전 발간, 본 『경기학광장』(계간지) 발간,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 근현대 문화자원 아카이브, 자료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고, 경기학 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학연구자모임 회원모집

2018년 경기학의 발전을 위한 '경기학연구자모임'이 결성되어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경기학 관련 학술 정보의 제공은 물론,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경기학연구자모임 담당자 메일(kst9796@hanmail.net)로 가입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가입비는 없으며 문의는 031-231-8578(담당 : 김성태)로 하시면 됩니다.



경기학연구자모임 연구발표회 모습

『경기학 광장』 원고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계간으로 발행하는 『경기학광장』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경기학광장』은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 마당’입니다.

전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집필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노트나 특별논고, 경기학 칼럼 코너도 있습니다.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간단한 심의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적당히 짜깁기 한 원고는 수록하기 어렵습니다.

다소 거칠더라도 직접 조사, 탐방, 취재한 내용을 원합니다.

글감

분야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테마 : 마을, 인물, 사건, 민속, 음식, 생태, 여행, 르포,
축제, 경기학 관련 책소개, 칼럼, 연구노트 등

주제 : 이 책의 목차 참조

자격

경기도민이나 경기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경기학 칼럼, 연구노트, 논고는 전문학자로 제한

분량

기 본 : 200자 원고지 30매

연구노트 : 200자 원고지 50매

논 고 : 200자 원고지 100매

원고료

원고지 1매당 10,000원

모집

연중 수시

심사

재단 내부 심사 후 게재 결정

절차

사전접수후 게재가 결정되면 정식으로
‘투고 신청서’와 ‘투고확약서’와 함께
완성본 제출

사전접수처

kst9796@hanmail.net

문의

경기학센터 담당자
(031-231-8578)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Village & Community

신도심의 전원마을인 수원 호매실동 자목마을
“외우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린이 논어교실



People & life

고양 백정현 어르신께 듣는 6.25 전쟁 이야기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김형구 관장
경계 없는 유통의 달인,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 대표



Trip & healing

신구와 생사의 경계에서, 고양 행주산성과 서오릉
한남정맥 답사기, 용인 아차지 고개에서 버들치 고개까지
죽음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부활', 망우리공원
안양 비산누룽지백숙



Information & news

경기도의 신석기인, 해양시대를 열다 - 김포 신안리 유적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길 <하>
책으로 경기도를 읽다 - 『도시의 두 얼굴 -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Research & study

포천 '남북교역 시장'의 추억과 '새 희망 마을'
여주 신록사와 해인사 고려대장경
이천시 고백리 풍천임씨 고문서
조선의 신이 된 관우, 경기도 분원리에서도 좌정했었다
풍악산에 견주던 경승, 한탄강(漢灘江)
의왕시, 의왕향토사료관 그리고 소장 문화재
경기도 지역 석탑의 전개과정과 조영 특징

